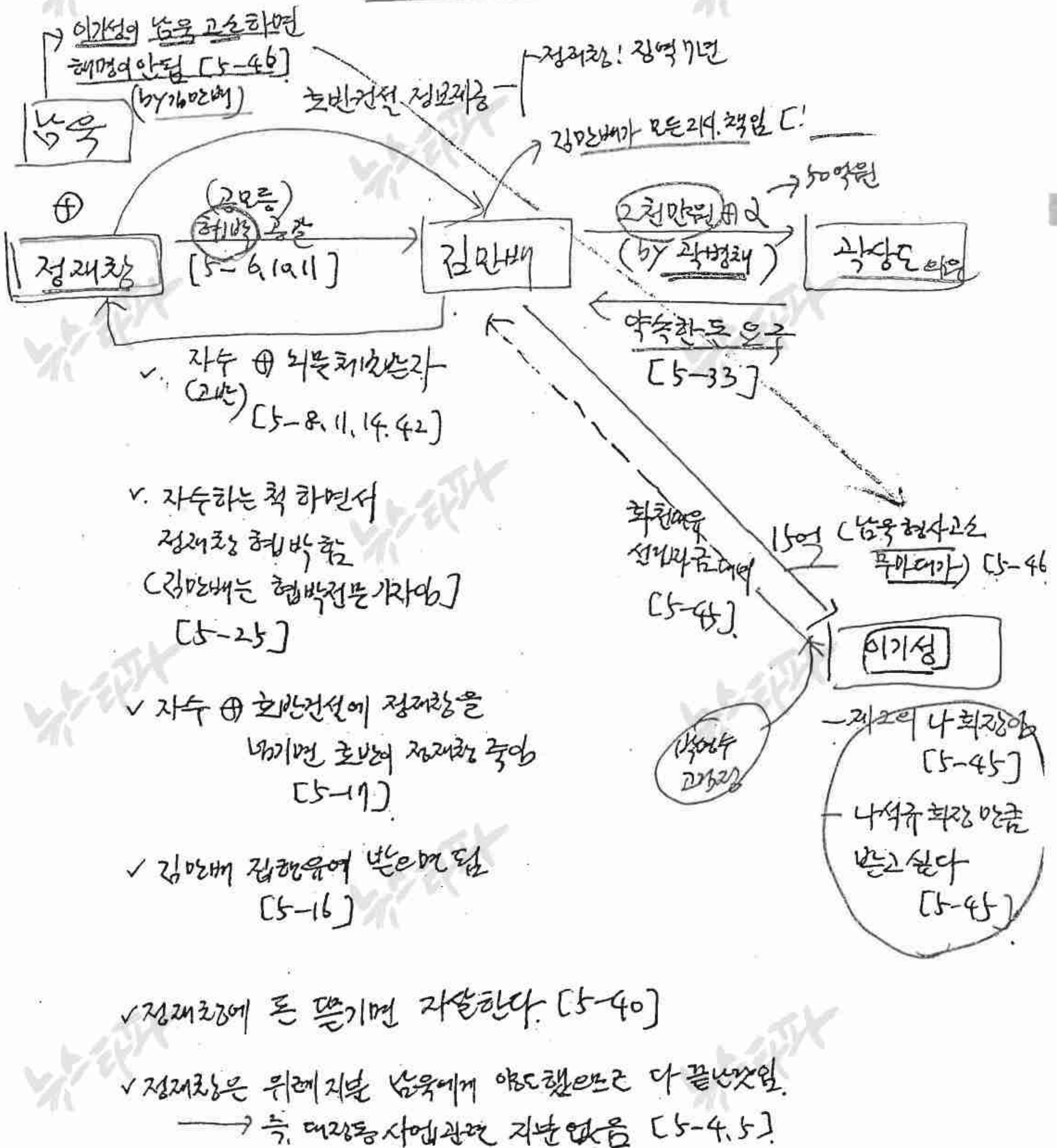


5차(은야) - 수정본



오리역 내부지  
개발사업

인. 회가 증고 대비  
12층 → 20층 ~ 24층  
[5-47, 54]

- 녹음일시 : 2020. 4. 4.(금) 21:00경
- 녹음장소 : 교대역 할리스커피숍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정 영 학 아 예.

김 만 배 앓어. 앓어.

정 영 학 일찍 오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 만 배 아니, 금방 왔어.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뭐 마셔?

정 영 학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카모마일.

정 영 학 카모마일이요? 예.

(차 주문)

정 영 학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김 만 배 (휴대폰 문자를 보여주면서)

형이 가서 이따 찾아올 테니까 한번 잘 읽어봐. 맨 위에서부터. 응?  
여기서부터.

정 영 학 아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쪽 읽어봐. 근데 여기 보기 보기로 해서.

정 영 학     아..

김 만 배     다 읽고. 다 읽어봐.  
하얀색은 재창이가 보낸 거고, 파란색은 내가 보낸 거야.  
재창이가 먼저 세 개를 보냈다고.  
여기 보면은 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다 읽어봐 그냥. 다 읽어봐야지 문맥이 통해.

정 영 학     이 새끼 도둑놈 같은 놈이네요. 아주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 김 만 배     다 읽어봐. 그날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보낸 거야.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너가 한 얘기. 응?

‘니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개가 가 가지고 서로 한다고 했으면 잘 했는데  
개가 무슨 너를 방해했냐. 응? 내가 안한다는 게 개가 망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 끝에..  
세 가지를 다 읽어봐.  
하나 다 읽었어?

정 영 학     예. 이건 완전히 핑계입니다. 핑계.



김 만 배 또 하나. 다 읽었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천천히 읽어봐. 다 차근차근.

정 영 학 제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읽고 있어.

정 영 학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읽고 있어. 읽고 있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거야.

)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응? 가감 하지도 않고.  
아, 이거 또 하나 있어. 그만한 게. 봤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다 읽었어?

정 영 학 일단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김 만 배 여기까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이 새끼 여기 이러잖아.



왜냐면, '많은 감정들이 오고갑니다.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박 아냐?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보낸 거야.  
파란 건 내가 보낸 거야.

정영학 예. 제대로 보내셨네요.

김만배 응?

정영학 제대로 보내셨어요.

김만배 그다음에 또 읽어봐. 내가 자수한다고 그랬어. 이 씨팔 새끼.  
다 읽어봐.

정영학 맞아요. 남의 걸.. 정확하죠.

김만배 그 얘기 뭘에 한참 싸웠거든.  
왜냐면 자기..

정영학 형님이 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만배 아니 그런데 애는 과거 뭉이 너하고 뭐 그런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무슨 상관있냐..

정영학 그 망한 것 그걸로 고소하지 그럼.

김만배 그래. 그건..

정영학 그런데 3분지 1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가 남욱이한테 팔고 위례를

받아갔어요.

김 만 배 그래. 끝이잖아.

정 영 학 끝이죠.

김 만 배 그리고 과거에 있으면 뭐 어쩔거야? 망했는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가면서 이거를 보낸 거야. 나한테.  
널 뭐 가만 안 둔다느니, 이러면서 갔어 인제.  
다 읽어. 다 읽어봐. 그 밑에도 또 있으니까.

정 영 학 형님하고 대판 하셨네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대판 하셨네요.

김 만 배 대판했지. 그날 형이 만나서. 너 땀에. 니가 뭐 망쳐놨니 어찌고 그래서.  
다 읽어봐. 밑에도. 밑에도 있잖아.  
밤 11시 몇분까지 전화 와가지고 이 지랄한 거야.  
아유, 새끼, 집요한 새끼. 응?  
오늘 여기 찾아와서 뭐 한다는 등..

정병하

정 영 학 진짜 형님 말씀이 논리적이네요.

김 만 배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정 영 학 형님 말씀이 맞아요.

김 만 배 이 선에서 별도로 밑에 봐봐.  
다 본 거야?

정영학 아니, 저..

김만배 지금도 꼬리를 내리는 거야. 내 말이 맞으니까. 이거는 오늘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가야 돼. 영학아 너도. 옥이도. <sup>→ 23억 24억</sup> 옥이 여기서 이탈하면 다 죽는 거야. 이 새끼 협박에. 응? 근데 여기까지는 공개를 안한 것 같애. 그 이상은. 옥이가.

정영학 읽어보니까 사실 저한테 대한 협박은 아니에요.

김만배 그래. 나한테 협박이야.

정영학 형님에 대한 협박이에요. 돈 더 주라.

김만배 더 달라고.

정영학 그때 (...) 그때는 가야지. 그 내용 나왔을 때는. 저하고 옥이는 인제 (...)하고.

김만배 이젠 안 나와.

정영학 아니 저하고 옥이는 (...) 하고, 형님한테 요거 하면서 형님.. 형님 위례에서도 하면서 솔직히 30억, 20억..

김만배 응?

정영학 위례에서는 20억을 챙겼어요. 그 다음에 저거,

김만배 50억.

정영학 150억에 세후 120억이에요. 거의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180억 정도 돼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지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털고 나갔잖아요.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정 영 학 형님이 좋아서 같이 한 거잖아요.

김 만 배 그리고, 나는 인제 모르겠어. 솔직히 옥이하고 영학아 너랑 관계도 모르겠고. 요새 와서는.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인제 재창이랑 옥이랑 관계도 모르겠고.  
솔직히 인제 다 나는 인제 모르겠어.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조는 잃으면 안돼. 너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돼.

정 영 학 제가 생각했던 기조가 이겁니다, 형님. 이게 사실입니다.  
형님이 사실대로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  
왜냐면 우리 캠프에 있지도 않은 애인데.

김 만 배 응. 맞지.

정리작성



정 영 학 우리 캠프에 있지도 않고, 남옥이 문제 됐을 때 개는 호반에 가 있고 부  
국에 가 있던 친구입니다.  
부국에서 아마 요구를 비싸게 해서 쫓겨난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부국의 자료를 맘대로 보고 왔겠습니까. 방에도 맘대로 들어  
가고. 우리 캠프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팩스에 홍창환 부사장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은행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혹시 그, 형님이 워낙 다 끌고 가자고 하셔서..

김 만 배    이게 내 취지였던 거 아냐. 원래 내 취지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응?  
너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봐.  
너를 협박하는 것 아니야.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걸 형이 보낸 거야. 이걸 형이 생각한 거고.

정 영 학    정말 그.. 되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대로입니다.

김 만 배    이 새끼 더 뜯어 먹을라고 그러는 거야.

정 영 학    저하고 남욱이한테는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떤 저기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썼어요.

김 만 배    형한테.. 그런데 형이 자수한다고 그래서 겁먹고 있어.  
너도 뭐라고 그러면 자수한다고 그래. 만배형이 자수하자고 그러는데..

정 영 학    뭘로, 공갈 협박으로 자수한다고 합니까?

김 만 배    아니, 그냥 만배형이 공모. 재창이 니가 훔쳐온 것 사용해서 했다고.

정 영 학    자수하라고?

김 만 배    응. 자수하자. 만배형 자수해서 처벌 받자.  
그리고 과거에도 공무원들한테 뇌물 준 것 있으면 처벌 받자. 자수하면.  
좀 있으면 10년 다 지나가는데 하자. 응? 이랬다고.  
그래서 니가 결정하겠다고. 너도 그렇게 여차 하면 할라고 그런다고.

↓  
정리함

만약에 재창이가 그러면.  
재창이 지금 겁먹었어. 내가 자수한다고 그러니까.  
달려온다고 그러잖아.  
와서 꼼짝 못하게 할게.

정영학      그게 인제 애는 계속 협박을 하면 저하고 남욱이가 내놓을 줄 알았거든  
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확 밀었을 때 70억에서 120억이 늘어났잖아요.  
합의하기로 해놓고 한번 더 화를 내니까 15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형님, 150억도요 협박해서 받아내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김만배      그럼.  
그리고 이 새끼는 지금 뭐냐면, 우리 지금 돈 버는 게 수천억인 줄 알아.  
너는 천억대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에.

정영학      (웃음) 무슨 천억입니까.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옥이랑 너가.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거야. 세상에.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 참고하라고.  
이걸로 다 정리한 거야. 문자로.  
말하면 정리가 안 돼서 형이 대화도 안하고 그냥 문자로.  
먼저 문자를 보내길래, 너 씨팔 새끼 죽어봐라.  
이 새끼 보내준 사람이..

정영학      문자 보낸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김 만 배 협박이야.

정 영 학 예. 우형이 집어넣은 것도 협박이에요.

김 만 배 협박이지.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 잘 하라 그러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너, 문자를 봐라. 맞춤법 하나도 안 틀렸어. 애가 보낸 게.

정 영 학 아!

김 만 배 정재창 솜씨가 아니야.

정 영 학 정재창 솜씨예요? 같이..

김 만 배 응? 봐봐. 이게 정재창 솜씨인가.  
내가 볼 때 맞춤법 띄어쓰기 하나도 안 틀렸어.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어? 재창이가?

정 영 학 진짜 그러네요.

김 만 배 그래서 형도 '너 이 씹새끼 죽어봐라' 이랬어.  
그래, 안 그래? 이게 정재창 솜씨가 아니야.  
이것도 읽어봐. 맞춤법 틀린 거 있나 봐봐. 응?

정 영 학 이것도 제기를 한 거네요. 협박에 의한 (...)

김 만 배 호반.

정영학 협박이에요, 이게.

김만배 협박이지. 형은 호반은 상관없어.  
호반에서 돈 받은 건 아니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기성이가 분양 받은 것뿐이 없는 거 아냐?

정영학 예.

김만배 근데 뭐.  
이 밑에 봐봐. 오른쪽으로.  
'많은 감정들이 오고갑니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협박 멘트 아니야?

정영학 사업체 회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이게 공갈범의 전형이에요.  
예의를 갖추면서 공갈을 공갈을 (...)잖아요. 공갈이죠.

김만배 아니 글썄 이게 공갈이지. 그래서 내가,

정영학 애가 이게 일산에서도 한번 이랬구요. 몇번 이게 몇 번 반복이에요.  
애는 하는 것마다 이래요.

김만배 아니 그래서 내가 자수한다고. 에이 씨팔놈아.  
아게 다(개) 범죄사실이잖아. 응?  
잘했어? 잘 보냈어? 응?  
영학아, 겉먹으면 안돼.

정영학 예.

김만배 니 말대로 눈치 보는 것 같이 끌려 다니는 것이, 끌려 다닐 거냐.

정영학 공대 나왔어요. 서울대 공대. 법적인 걸 하나도 몰라요. 협박하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주식 다 뺏기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  
 그리고 저 주식을 저한테 준 이유가요, 이렇게 무상으로 뺏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돌려달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산 거요. 일산 거. 몇 번 해봐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김만배 힘든 게 아니라, 욕심이 더 나는 거겠지.  
 내가 딱 그랬지.

정영학 지가 힘든 게 뭐 있어요. 세달 내내 골프 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왜 이 자식아 너는 저런 새끼랑 태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해서.. 나도 너한테 섭섭한 게 있었는데 나는 그냥 잊어버려. 왜 그런 놈한테 얘기를..  
 내가 볼 때 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이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애. 쓰잘데없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정영학 솔직히 그렇게 된 이유가, 같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성문 대표가 욕을 해대.. 그때까지 아예 안 만났거든요. 욕을 해대는데, 자폭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김만배 잡혀가?

정영학 자폭한다고.

김만배 누가?

정영학 정재창이. 자폭한다고 난리가 나갔고, 그냥 옆에 이렇게 들어주다가 한 겁니다. 이렇게.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뭐 말, 업무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만 배      형은 걱정이야. 정민용이랑 저기 누구야 그 (...)에 있는 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오늘 성문이하고 완범이한테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놈들이 뭐를 해도 마  
지막 보고는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를 끌어들일려고 할 거야.  
왜냐면 완결시켜놓고 너 발로 차고, 결국에 나중에 그리고 재물로 쓰고.  
그래서 나는 안했으면 좋겠어.  
너 돈 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정 영 학      예. 형님, 진짜 진심으로..

김 만 배      형 모르게 하면, 하지 마.

정 영 학      형님 걱정하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김 만 배      알아?

정 영 학      그럼요. 여기가 무너지면 저도 위험합니다.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진짜.

김 만 배      약속해. 응?

정영학 네, 안합니다.

김만배 그냥 조언자로서 해, 좋은 취지의 조언자. 응?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우리가 한다고 소상히 소문난 거 알지?

정영학 화천에서 한다고요?

김만배 응?

정영학 화천에서 한다고요?

김만배 성문에도 들었대.

너는 남양주 가서 죽으면 그냥 다 전멸이야. 응? 방어할 수도 없어. 응?  
년 십새끼 그래서 아예 자수할게. 내가.

정영학 이게 들어가면 저 죽는 거지. 형이 자수하니? 자수의 형식을 취하면 고발  
이지.

정영학 예.

김만배 여기까지 했다면 여기서부터 (..)

정영학 예, 예. 위에는 (..)에다가 유형이 놓고 (..)

김만배 유형이라고 저기 얘기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육이 입에서 나갔어.

정영학 통화를 했겠죠. 옆에 있으면서.

김만배 아!

정영학 우형이 들먹이고 (...) 약간 좀..

김만배 아니 그러니까 형보고 더 달라 이거지.

정영학 아니 그걸 떠나서 위례에서도 최소 20억, 30억은 챙겼고, 여기에서 150억이면 170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응찰도 안했고.

김만배 재창이 전화 오면 만배형이 '자수하는 건 어떠냐' 그랬다고 그래.

정영학 저는 수신거부를 해놔서..

김만배 아, 그랬어?

정영학 올까요? 안 올 겁니다.

김만배 받지 마. 받지 말고, 아예 통화를 하지 마.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왜냐면 위험하잖아.

정영학 네, 네. 아니, 통화 안한 지 오래 됐습니다. 아예 수신거절 해놨습니다.

김만배 남옥이는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응?  
너하고는 통화했냐?

정영학 옥이, 저하고 아예 통화 안 합니다.

김만배 우형이 말로는 국내에 있는 것 같다는데.  
둘이가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정영학 예..



김 만 배 이거 남욱이 문자 보여줘, 말어? 나중에.

정 영 학 욱이도 같은 기조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 만 배 근데 내가 볼 때 잘 모르겠어, 나도.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애.  
재창이 하는 걸 보면.

정 영 학 여태까지 우형이 들어와 있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 만 배 성준이 들어가 있는 건?

정 영 학 아, 이번에 다 찾아 봤겠네요.

김 만 배 우형이 이름은 없어. 현성이 이름으로 있지.

정 영 학 사실 뭐 사업이 인제..

↳ 6호주주: 조현성

김 만 배 끝났는데 뭘.

정 영 학 네, 네. 이성문 대표도..

김 만 배 자수하면 어떻게 수사하면 어떠냐. 돈은 이미 벌어있고.  
니네는 다 빠져. 그냥 만배 하나 여차 하면은 집행유예 받으면 되는거야.  
응?

정 영 학 형님이 안전하셔야지.

김 만 배 아니, 안전해. 집행유예면 안전한 거지. 무슨.  
니네들이 같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지. 멀리 가.

욱이 주둥이가 문제지.

아고~ 슬슬슬슬 (...)

남욱

그리고 정민용이 상가에 몽주가 와 있더라.

정영학 예.. (...) 그걸 어떻게..

김만배 그거를 호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있는 데에는 없고 내실에 있더라. 내실에.

정영학 예..  
아, 이제 형님한테 하네요.

김만배 아니 뭐 인제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거지.

정영학 투항 했겠네요. 투항.

김만배 아니, 형은 자수하지. 난 자수해. 재창이 그러면은.  
호반이 가만 안 넘기거든. 호반은 김상열 회장이 재창이가 (...) 정보 훔  
쳐갔다면. 안 그러겠어?

↓  
(즉) 호반권식

정영학 네.

김만배 오늘 몇 개 쳤냐?

정영학 94개요. (웃음)

김만배 난 102개 쳤다. 저번에 한번 쳤는데.

정영학 안 맞더라고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빨리 이제..  
어제부터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김만배 아니, 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어제인가 그제. 그저께.  
많은 얘기를 한 거야. 악담을 하면서. 뭐 그냥 옛날 얘기서부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야. 해가지고 뭐 지분 살려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안했느니. 응? 공정하지 않다고.

정영학 지는 그때 사업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형님 오시기 전까지 전혀 안 되고 있던 거. 안 되니까 팔고 나간 거예요.

김만배 그래.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정영학 작전이죠. 작전.

김만배 응. 자기 인생의 행복을 정영학이가 뺏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아니 형님, 그만큼 돈 벌어줬으면 됐죠.

김만배 내가 그 얘기했어. 너 재창아, 영학이가..

정영학 안 만났으면 돈 어디서 벌어요. 형님 안 만났으면 돈 어디서 벌니까.

김만배 아니, 너하고 형이.. 너를 빗대서 형한테 하는 얘기야.  
욕이는 욕 안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내 얘기는 안하고 내가 니 얘기 한 거야.

정영학 '야' 개가 솔직히 애가 착하니까 돈을 주지, 그만큼. 돈을 왜 주냐 그러면. 그리고 개가, 니가 그래 약점을 쥐고 있어. 무슨 약점을. 그러면 니가 그렇게 흔들어대면 검찰이 알면 너도 죽고 영학이도 죽는 일인데 니가 진짜 흔들 수 있냐' 응?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런 걸 옛날에 (...) 하는 놈들이 너는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요만큼 챙겼으면 됐지,

정영학 맞아요.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원래 일은 안하고 뒤에서 정보만 캐는 애예요. 이날 평생을.  
뭐 일을 합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아니, 아무것도 안한 사람한테 그만큼 챙겨줬으면 됐죠.

김만배 다 정리되는 것 같애. 형이 볼 때는.

정영학 네, 형님 잘, 정말 잘..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마무리는 저 새끼가 전화오거나 뭐하면 만배형 자수한다는 거 엄  
청나게 말렸다고 그래. 응?  
↳ 장래희망

정영학 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만배 니네들한테 설득하더라고. 같이 가서 자수하자. 응?  
성문이 말대로 저 새끼는 이미 가진 자라 자수 못해. 형은 할 수 있어.

정영학 그런데 이 대표가 그걸 정확히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얼마나 뭐라 하는지. 사람 같은 사람하고 만나지, 뭐할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김만배 너는 진짜 형이 너한테 한마디 할라고 그러다가 안하는 거야.  
왜 그런 놈하고 3년간 어울려 다니면서..

정영학 형님, 어울려 다닌 게 아니구요. 지가 필요할 때, 돈 받을 때 6개월에 한  
번 연락 옵니다. 진짜로. 골프 한번 치고.  
저는 골프 배우고 싶어서 간 건 있습니다만, 지 필요하면 3개월에 한번  
연락 오고 6개월에 한번 연락 오고. 어울린 것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도 그런 내용을 좀 아는가요?

김 만 배

내가 오늘 얘기했어. 문자를 보여준다고 그랬더니 그 새끼는 안본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남양주 얘기.

네 명을 같이 만나게 해달라. 우리.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

‘니가 직접 해. 왜 형을 통해서 만날라고 그래?’ 그랬지. 응?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한다고 하든,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겠지만, 본인이 안한다고 그러면 안하는 거고.

그러면 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보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형은 앓는다고 그랬는데.

정 영 학

아니, 저도 안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안하고 있고, 아예 안합니다.

김 만 배

거기서부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인생을 망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정 영 학

본인이 따올 능력도 없는.. 아니 뭐 뭐를?

김 만 배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너 자꾸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는데, 개가 무슨 인생을 망치냐? 형이 안한다고 그래서, 형하고 안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개가 방해한 거냐? 응?’

형이 만약에 진짜로 안한다고 그러면, 개 의사하고 상관없이 안한다고 그러면 형이 니네들 인생 망친거냐?’ 내가 그랬지. 응? 그 얘기를 했지.

그래도 안하는 건 안하는 거고, 개도 취사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개한테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진짜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육이한테 뒤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뭐를 하고 있으면서.

‘개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그랬지.

‘만약에 하면은 안 버리고 갈 수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지난번에 자식아, 내가 니네들이 얘기한 것 슬쩍 못 들었을 것 같애?’

내가 그랬지.

‘끝까지 하게 해야지, 병신아’ 이러더라고. 재창이가 육이한테.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본인이 자신 있다고 몽주 통하고 우형이 통한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자신 있어? 안 버릴 자신?  
나는 너한테 다른 건 필요없어. 아무 부탁도 안할 거야.  
남양주만 하지 말어.

정영학 안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너, 형 씹는 거 씹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해.

정영학 형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알어. 그런데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남양주만 하지 말어.

정영학 형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진짜. 없구요.

김만배 그래서 남양주 만은 하지 말어. 왜냐면 남양주는 이미 (...)

정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만배 이것도 형이 다 해결했었어.  
재창이는 형한테 등급이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너나 욕이 정도 협박해서 형하고 이게 맞냐고.  
너한테도 안 된대. 그냥 니가 분란 일어날까봐 하는 거고.  
너한테도 솔직히 니가 독하게 먹으면 개가 적수가 돼? 안 되지.

정영학 아니, 저는 그냥 옛날에도 형님이 좀 양보하자 해서 한 거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하고 개인적으로..

김만배 그런데 형이 용서해놨거든. 그날도 하도 욕을 해서.



형도 개네들이 뭐 배신을 했느니 뭐니 역모를 하자고 옥이가 그러는데, 형은 다 용서했다.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너도 마음속에 뭔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게 얼마나 편하냐, 마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게 용서다. 그거 왜 못하냐, 이 새끼야.

정영학 형님, 옥이가 꾸념을 해도 역모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옥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정영학 꾸념을 한 적은.. 누가요?

김만배 옥이가.

정영학 제가 하자고 했다고요?

김만배 니가 하자고 그랬대.

정영학 형님, 제가 왜요?

김만배 아니 몰라. 그러면서 그날도 요거프레소에 가서 대판 싸우자고. 그런데 본인이 안 싸우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끝나고 옥만 먹었대. 싸울라고 와서 왜 안 싸우냐고.

정영학 형님, 그거는 대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조그만한 거에 대해서 형님 요거는 좀 부담이 큼니다, 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만배 알어.

정영학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김만배 그래, 알았어. 형은 이제 다 이해해. 그리고 그런 거는 넘어서.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재창이한테 했지, 내가.

‘다 용서했다, 형은. 그리고 용서하면 마음은 편한데, 너는 돈도 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하냐. 그리고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용서해주라. 니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뭐 잘못이 있어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지. 응?

정영학 아랫사람이 일할 때 형님 의사결정 한 것 중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욕먹을 거예요.

김만배 안 보면 씨발 뭐 할 수 있지.

정영학 형님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무슨..

김만배 그래.

정영학 강하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개는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라 인간적이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자기 조카가 형사부 검사래. 그래서 아유, 그래 알았어.

정영학 형사부요?

김만배 몰라. 형은 뭐 청장이고.

정영학 (웃음) 아이구. <sup>정영학</sup> <sup>정영학</sup>

김만배 남들이 들으면 니가 개한테 신세진 줄 알아.  
형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하는데, 아니까.  
나는 재창이한테 얘기해도 선을 정해놓고 얘기해. 이 정도 넘지 않을라고. 이 안에서는 온갖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이 선을 절대로 안 넘지. 아무리 해도 항상 이 선은 지켜.

왜냐면 처음에 약속 때는 이것이 우리 알리바이고 지켜, 해놓고도, 아무리 꼬시든 뭐하든 이 선은.

정영학 하여튼 주변에서도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만나 봐야 손해인데'

김만배 나도 안 만날라고 그래.

정영학 '이날 평생 남 약점 잡고 맨날 협박하고, 이걸 몇 번이나 봤으면서 왜 가냐'

그 민철홍 평가사 당한 것 보면 참..

저한테도 그렇게 해갖고, 저는 변호사 붙여서 이야기해라 했더니 안하더라고요.

김만배 삼자대면 할 수 있대 그리고. 니가 성문이가 조만간에 김만배를 칠거다.

정영학 형님이..

김만배 아니 아니, 그래서 자기가 삼자대면도 할 수 있대. 그래서 '뭘로 쳐?' 그러니까, '아니 뭐 돈도 있고 뭐, 형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성문 대표가 그랬다는데, 조만간에 친다고'

'그런 얘기를 영학이 그 새끼는 왜 미친 새끼들한테..'

'정 회계사도 뭔가 형님한테 불만이 있었겠쥬'

정영학 제가 여태까지 태도 한번 안보셨습니까? 형님한테 말씀드려보고 이게 맞다면 따릅니다.

김만배 괜참아.

정영학 그다음에 저하고 이 대표하고.. 이 대표 성품도요.. 아니 뭐, 저는 또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이 대표도 그렇고.

김만배 아니, 상관없어. 말은 뭐 어때, 하면은. 형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영학 아니,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성문 대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잔 적이 있는지.

김만배 그리고 재창이 이 새끼 조심해.

정영학 예.

김만배 왜냐면, 형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나는, 너 문자에서도 봤듯이, 아무리 얘기해도 형은 그 선을..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5년 동안 맨날 되 뇌였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돼.

정영학 예. 어떠한 경우도 문자, 핸드폰 뭐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이상한 정보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김만배 형은 이거 다 재창이 협박하는 거야. 오히려, 알지? 재창이를 오히려.

정영학 예.

김만배 재창이 뜨끔했을 거야.

정영학 예.. 재도 그, 그..

김만배 협박은 형이 잘하지, 개가 잘 하나? 기자인데, 형이. 응? 그지?  
형이 자수하는 척 하면서 협박해.

정영학 그게 죄가 되는 거네요. 호반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 게.

김만배 죄가 돼.

정영학 그게 무슨, 무슨..

김만배 재는 비밀은 영업비밀을 훔쳐온 거야.

정영학 영업비밀을 훔쳐온 거에 대한 죄가 되는 거네요?

김만배 그렇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되게 중죄야. 그게 7년이야.

정영학 증인이 다 있으니까요.

김만배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맞았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우리는 가져 왔는데 참고하라고 (...)

정영학 예.

김만배 처벌은 형이 받는 거거든. 책임지고 형이 했던 거니까.  
니네들은 안 받을 거야. 결정을 내가 했으니까.  
니네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했어.

정영학 제가 그때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보관하고 있나요,

김만배 응.

정영학 제가 3일.. 이틀 전에 가져왔잖아요.

김만배 응.

정영학 일주일 전 파일, 당일날 제출한 파일. 갖고 와서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동이 없습니다.

김 만 배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 영 학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되죠 뭐.

김 만 배 그래서 당일날.

정 영 학 바꿨다..

김 만 배 그것 때문에 바꿨다.  
그러면 처벌 받는 건 니네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거니까.

정 영 학 아니 뭐 조금은 바뀌었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 기대한 거..

김 만 배 아니, 훔쳐온 걸 바꿔야지. 이후에. 또 뭐 보상과.  
지금 해놓으면 세팅이 지금 돼 있는 거라 안돼 그럼. 컴퓨터에.

정 영 학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 자체만 하나만 남겨봐도 되니까요.

김 만 배 그걸로 잡아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야지 나중에 호반에 주더라도 호반이 재창이..  
그걸 겁내는 거야. 재창이는. 광주 애들이..

정 영 학 그게 법적으로 저희한테 문제는 없을까요?

김 만 배 법적으로 우리는, 아니 우리는 뭐 가져온 거니까..  
형이 처벌받지. 형이 결정한 거니까.



정영학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김만배 한 적도 없지. 그런데 형이 궁금하니까.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잖아.

정영학 맞습니다. 아니 가져왔는데, 몰래.

김만배 몰래.

정영학 가져오라 한 적은 없으세요, 형님이.

김만배 그래. 형이 처벌 받지.

니네는 요거 공모에서 다 빠져야 돼. 형 혼자..

그래야지 이 사건이 방어하기가 쉽지.

나는 너하고 개입하지 말고, 너는 실무 시킨 것만 하고.

→ 419차 8조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욱이 특히. 아니, 보호해서가 아니라, 욱이는 체력이 안돼.

내가 볼 때 상당부분이 욱이한테 넘어갔을 거야.

형은 재창이한테 준 적이 없어.

재창이가 이런 저런 알고 와서 물어보면 뭐 어느 정도 공헌지분 그거는 있는데, 지분을 이런 것도 물어봐도 일체 한번 얘기해준 적 없다.

넘버파이브도 물어보길래, 그건 뭐.. 어차피 확인된 거니까.

우리 넘버파이브도 알아오는 게 쉽지 않아.

정영학 그 현장 때는 현장에 그 이호근이한테 돈을 줄 때 남욱이가 천화동인4호에서 쫓습니다. 현장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김만배 (어, 삼촌이야. 여보세요?)

거기서 알 수 있겠지.

정영학 예. 아니면 기업은행.

김 만 배 (응, 그래. 응~ 알았어. 삼촌 봤어. 응. 응~ 삼촌 일 보고 있어. 응. 그  
 래, 내일 보지. 응~)  
 형은 정보 하나도 준 게 없어. 형은 지킬 것 다 지켰어.  
 니네들 같이 주둥이 싸지 않고.  
 문자도 재창이랑 싸우더라도, 형은 딱 틀에 맞춰서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sup>↑ 정래랑</sup>

김 만 배 너도 협박해. 그 새끼가 문자 보낸 거.  
 뭘 겁내? 질질질 끌려가다.. 아유~ 그런 거 다 형한테 미뤄.  
 나는, 형이 회장이라 형이 최종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그러게 유한기한테 돈 줬다고 뭐하러 떠들어.

정 영 학 형님, 떠든 적 없습니다. <sup>→ 김만배</sup>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떠든 적 없습니다. 전혀.

김 만 배 나한테 그러더라고. 영학이 형이 따로 돈 줬다고. 나도..

정 영 학 아유, 무슨..

김 만 배 (웃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정 영 학 그거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니, 그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걸 시키도록. 하도록.  
 제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도와주는데 왜..

김 만 배 그럼.

정영학 예를 들어서, 왜 줘니까 그걸? 말도 안 된다니까요.  
지가 줬겠죠. 할라고.

김만배 아니, 지가 많이 줬겠지.

정영학 예.

김만배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개가 돈 줄 놈이니? 어떤 놈인데.

정영학 저 골프 몇 번 치면 수십억 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수십억 준 것처럼 얘기하니까.

김만배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거를 참고하라고 오라고 한 거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 예.

김만배 신경쓰지도 마. 이미 니네들하고 붙는 거하고 형하고 붙는 거는 급이 틀리  
니까. 형이 그냥 용궁으로 보낼게.

정영학 참.. 저하고 옥이 상대하기는 편했죠.  
금방 같이 죽자 하니까 60억 나오고, 60억 나오고.

김만배 아니, 옥이는 이거지. 남양주 하자고 그러니까, 슬슬슬슬 연락도 안하잖  
아. 응?  
내가 '해봐, 남양주 같이 해' 그러면. 내가 그랬거든.  
'형님 왜 저보고 하라 해서..' '해, 임마. 돈 벌고 좋지'

정영학 옥이 지가 60억 주기로 했다고..

김만배 누구?



남북  
↑

정영학 육이가 60억 주기로 했다고.

김만배 누구를?

정영학 재창이.

김만배 남양주 하는 조건으로?

정영학 아니 아니요. 이거 할 때 처음에. '형도 60억 주고' 그래서 '알았다' 고.

김만배 그 얘기는 나한테도 한 거야. 그래서 120억이 된 거야.

정영학 그래서 120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막 하다가 위례 준만큼 줘라..

김만배 그게 위례 저기해서, 요거플레소에서 그런 거 아니야?

정영학 예. 그래서 '그러면 20억 줄게'

김만배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정영학 끝내자 했는데, 지가 10억 더 달라 해서 인제..  
원래는 '저는 20억만 책임질게요'  
나머지는 형님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 하면, 추가적으로 10억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끝났잖아요. 사실은.

김만배 그래.

정영학 그 정도면 형님..

김만배 그런데 형한테 또 들이대는 거지.

정영학 핵심은 수천억이죠 뭐.

김만배 <sup>↑ 정리의심</sup>  
씨팔 새끼 한번 용궁 갔다 와야 돼.  
여기야. 저기.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범무법인 여기 위에 있지. 강찬우 변호사는 이 건물 위에.

정영학 아, 이 건물입니까?

김만배 응.

정영학 여기에 그 저기도 있습니다. 그게 그.. 저희 가끔 옛날에 처음에, 오..

김만배 오수? 오수는 옷 안 벗었고.

정영학 아니 아니요. 저기 그.. 이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갑자기..  
용석이 형님.

김만배 응?

정영학 뭘 용석.

김만배 응?

정영학 용석이 형님.

김만배 아, 최용석!

정영학 최용석 변호사님.

김 만 배 아.. 최용석 변호사는 지도 연장 안해준 것 때문에 좀 섭섭했는지 연락도 없더라고. 그런데 많이 받았지 뭐.

정 영 학 많이 받았죠.

\* 13화 55쪽

김 만 배 사람들 참 욕심 많아. 그지?

각상도: 각병채를 통하여

정 영 학 예.

↳ 각상도

50억 수령함

김 만 배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정 영 학 각병채  
그냥..

김 만 배 며칠 전에도 2천만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팔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한 사람은 너보다는 (...)

양완별 전무

정 영 학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골치 아파.  
형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잘 대처할 거야. 잘 대처하고.

성문이가, 너 고집이 쎄데 자꾸 저거를 인허가 받은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허가 받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냥 현재 상태에서 팔든지, 인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해야지.

꼬리표가 붙는 심의가 결과가 나오면 되게 힘든 거야.



그런데 지금 성문이는 인허가에 자신 있는데, 형이 파악한 바에는 잘 안 돼.

정영학 아..

김만배 그런데 성문이가 저거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너지시 얘기를 해줬는데. 인허가 잘 안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보편은, 팔든지. 땅을. 아니면 우리가 중도금을 받고 담보대출로 분양을 하든지. 우리가 분양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병식 부장 만나서 너 연장해서 우리 뭐.. 너 왜 그런 것을 해? 니가? 6월달에 안 팔리면 현재 있는 돈으로 중도금 갚고, 담보대출 받아서 한 300~400억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내년엔 담보대출 받은 거 갚으면 되고. 그러면 땅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거지.  
대신에 그러면 오리역을 못하는 거고. 올해 팔면 오리역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정영학 당연히 저기가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형님.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준공나면 임시사용이 떨어질 겁니다.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임시사용이 떨어지면 보통 한 5월에서 6월. 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아무 때나 팔 수 있습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등기 해 와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만배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정영학 그러면 굳이..

김만배 인허가 할 필요도 없어.

정영학 뭐 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  
혹시 안 팔린다면, 안 팔리거나 뭐 한다면..

김만배 아니, 잘 팔려.  
어제 사실은 시행사 회장들하고 이렇게, 삼호 원식이 아저씨네 골프장 이  
런 데서 커피 마시고 우리 B1을 구경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왜 보자고 그런 거냐면, 김수남 총장님 통해  
서. 우리가 남양주 들어간다고 소문이 짝 나있는 거야.  
아니,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 두려운 사람이 누구니?

정영학 형님이죠.

김만배 우리지.

정영학 예.

김만배 확인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정영학 예.

김만배 하면 같이 하자. 아니면 안 할거냐.

정영학 같이 하자..

김만배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성문이한테 통화를 했어.  
성문이 그.. 우리 대표이사를 내가 통화 할게요, 이러면서. 응?  
안된다고.

정영학 형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죠.

김만배 아니, 어제 그랬어. 내가 아주 쇼를 하고 다녀요. 요새.

정영학 아니, 다른 대형 시행사들이 화천이 제일 걱정이죠.

김만배 아니, 그래서 내가 안한다고. 어제.  
B1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나는 B1 판다. 아니면 안 팔리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

정영학 소유권 이전을 해가면 언제든지 가져간다고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런데 저희 이름으로 놔두고 사업만 해라 하면, 이게 팔기 어렵죠.

김만배 그래. 그래서 저거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  
그리고 그냥 비싼 가격 아니어도 조금 이자 더 받고.

정영학 필요합니다.

김만배 그래서 왜 ‘자꾸 인허가를 고집해?’ 내가 그랬어. 안 되는 거.  
너 저기다가 이상한 거 붙어서 나오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확인을 해봐 임마. 응? 무슨, 왜 자꾸 인허가에 목숨을 거니?  
인허가를 만들어놓고 파는 게 좋은 건지, 그냥 파는 게 좋은 건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좋은 건지, 결론도 안냈으면서. 응? 영학이한테 물어봐라.  
인허가 안 나올 거야, 절대.

정영학 저도 형님, 옛날에, 옛날 초창기에 말씀하신거가 ‘2년 갖고 있자. 땅값은  
오른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최악은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형님, 땅값은 올라.

김 만 배      땅값은 올라.

정 영 학      땅값은 (...) 팔기는 팔아요. 천만원 이상.

김 만 배      그리고 돈 있는 애들은 후분양 해.

정 영 학      예. 저도 그냥 그래서..

김 만 배      그래서 개네들이 돈 있는 애들한테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사가. 후분양  
개네들.

정 영 학      예. 뭐 후분양 천5백.. 아니, 그냥 땅 갖고 있다 2년 후에..

김 만 배      응. 그래.

정 영 학      옛날에는 2년을, 3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1년..

김 만 배      2년이야.

정 영 학      아니요. 내년 5월이면 준공입니다. 1년만 기다려..  
이미 많이 돈을 냈어요.

김 만 배      지나갔어. 응.

정영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형님 판단이 맞으세요.

김만배 응. 그런데 성문이는 정일천 사장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인허가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정영학 예..

김만배 비싸게 받으면 한 10억 정도 더 주면 되고.

정영학 땅으로 팔면 좋은 안이니까.

김만배 최고 좋은 거지. 넘겨 와서 소유권을 다 한 상태에서..

정영학 예. 40억인가 더 냅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어차피 그 돈은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만배 그럼. 맞아.

정영학 40억 있어서 소유권까지 주면, 이미 2년 전에 1,300이었지 않습니까. 옆에 가.

김만배 응. 나중에 형이 얘기한 게 그거야.  
그리고 저 윤남엽이가 국장 되고 싶어서 분당하고 우리 바르게 허가를 안 해줘.

정영학 아..

김만배 그거 기본이 아니냐. 세상에. 기본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는데?

정영학 아, 그게 안 나는 게..

김만배 내가 볼 때는 양 전무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양 전무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양 전무가 똑똑해, 아주 그냥.

정영학 좀 양 전무 도움을.. 양 전무가 안 도와주나요?

김만배 아니, 되레 성문이가 양 전무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야, 양 전무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양 전무한테 도와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 회계사님이랑 양 전무는..  
아니 아니. 정 회계사, 어때?

정영학 저는 해야 된다고..

김만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양 전무는 반대해서, 그게 의지 없는 사람한테 해봤  
자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 없는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게.

정영학 저는 취지가 그냥 약속을 지키자 라는 취지였으니까. 해야 된다고.  
또는 차치하고 제안서를 냈었기 때문에..

김만배 그런데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영학 예, 예. 직접 안해도 됩니다. 그때는.

김만배 안해도 돼.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이유를 댈 수 있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이유를 댈 수 있거든. 코로나 때문에. 1년 있다가 팔아도 돼.  
팔면 100억은 더 받는 거야. 최소. 비용 다 해도.



1,300만원씩 그 정도는 받는다고.

정영학 예, 그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그러면 300억은 더 받아. 그지? 응? 300억.

정영학 사업하는 것 보다 그게 더 많이 벌 것 같기도 해요.

김만배 더 많이 벌어. 아이 그럼.

정영학 진짜 정재창이가 저하고 옥이한테 다, 이 합의는 완전한 합의이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저하고 옥이한테 받아가, 충분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 김만배 협박은 나한테는 안돼.

) 정영학 형님이야..

) 김만배 아이, 그럼. 나한테 협박은 안돼. 니네들을 핑계로 나한테..  
그래서,

정영학 예. 목표는 70억.

김만배 70억. 그런데 형은 안줘. 재창이한테.

정영학 많이 갔어요.

김만배 아니 그리고 <sup>김재창</sup> 형이 재창이 같은 놈한테 뜯기면 형이 자살을 하지.  
에이~ 형이 자존심이 있지.

정영학 예.. 아니 인제, 그나마 형님이 개중에 저를 그래도 제일 이빠하니까 공격을 하고..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개는 두 가지야, 영학아.  
 하나는, 형한테 돈을 더 뜯고 싶은 거고. 니네들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시끄럽게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남양주야.  
너를 어떻게 형님이 얘기해서 재창이 도와주게 할라고.  
 아, 그날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 하지 마.  
 개가 사업을 의지가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고. 우리 직원 중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 관심 있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 영학이하고 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 한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데 본인이 안하겠다면 못하는 거지. 내가 개한테 이래라..  
 그래서 나는 영학이가 거기 하는 거 반대다.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면, 형님이 반대하고 뭐할 계제가 뭐냐 그래서,  
'야 임마, 주지형이가 가서 사장을 하고.. 뭐야 이 새끼야'

정 영 학    말이 안 되죠. 그게.

김 만 배    그러면 영학이가 가서, 왜 그러면 1번 정영학이 죽고, 너는 빠져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2번이 원래 수남이라고 그랬어. 응? 화천대유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했지.  
 왜냐면, 영학이가 지금 뭐 숨어서 한다고 내보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게 할거다. 하지 말라고.

정 영 학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정영학이가 니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있으면 다 용서해줘. 돈도 받았는데, 왜.. 용서를 해주면 얼마나 편해? 진짜 망친 것도 아닌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왜 미래를 망쳐?' 내가 그랬지.

'나에 대해서 싫다고 그러는데 왜 미래를 망쳐, 새끼야. 그러면 내가 (.) 그거를 구도를 짰니? 내가 앓는다고 그랬으면 내가 니네들 인생을 망치니?' 그 얘기를 한 거야.

정 영 학 예.. 애는 세달 동안 그거를 생각을 해온 거예요.

김 만 배 너 어떻게 공격할지를.

정 영 학 말을 엄청.. 예. 그렇게. 밤새면서 고민해서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김 만 배 그래. 그런데 형이..

정 영 학 형님한테 한방에 깨진 거고.

김 만 배 한방에 깨졌지. '자수할게, 씨팔놈아. 너 협박하는 거냐' 고.

정 영 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망쳤다가 남양주 하게끔 한다는 말인데, 형님 아주 진짜 논리적으로 깨버리신 거죠.

김 만 배 아니, 맞잖아.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형을 상대로 해서 하게 했는데, 영학이가 안한다고 그래서, 영학이가 니 미래를 망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안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니네들 미래를 망친거냐?' 그랬어.

'다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리고 왜 영학이를 자꾸 끼어넣어? 영학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혹시 알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을지. 끝까지'



정영학 전혀 안해요.

김만배 아니, 그 얘기를 했지. 내가. 아니, 솔직히 했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애가 포기할 애니? 만약에 한다면 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이 새끼야. 응? 개가 이 새끼야, 너 감시할 애니? 그래도 이 새끼야, 머리 천하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인데. 개 나름대로는’

정영학 아니, 아닙니다.

김만배 ‘너하고 같냐?’ 내가 그랬지.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김만배 ‘너 이 새끼야, 내가 얘기했듯이, 남이 해놓은 거 뺏어갈 놈이잖아. 응? 옥이랑 너는. 영학이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아무도 안 보면 염산에다 손이라도 넣었어. 개는’

정영학 아유..

김만배 ‘맞잖아? 이 새끼들아. 그리고 너, 남양주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잘되면 나도 하나 쥐라’ 그랬지.

아니, 나 있는 얘기 다 해. 숨겨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이 얘기했어. ‘잘되면 재창아, 한 고랑 쥐’ 그랬어.

‘아, 형님 나 안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안하긴 새끼야, 무슨 안해?’

‘옥이랑 태국 갔다 왔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 무슨 갔냐고. 정영학이가 내 뒷조사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정영학 뒷조사를 제가 왜 해요?

- 김 만 배      몰라. 그 새끼 그러더라.  
그러면 태국 안 갔어? 내가 그랬지.
- 정 영 학      관심도 없어요. 형님.
- 김 만 배      태국 안 갔어? 같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대답도 안해.  
야, 이것 좀 더 가져와. 오줌 좀 누게. 요게 내꺼야.
- 정 영 학      예, 예. 먼저 따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묶어놓으셨네요.
-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아, 여기 접어 놓으셨네요. 예.
- 김 만 배      응. 화장실 갔다 올게.
- 정 영 학      예.  
저, 물 좀 더 주실래요? 아, 물 좀 더. 물만 더 주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 김 만 배      이 새끼 3개월 동안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돈 받아쓰고.
- 정 영 학      **너정제3능**  
말도 안 되는..
-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말도 안 되는..
-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지. ‘행복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지’ (웃음)
- 정 영 학      예..

이기성  
↑

) 김만배 나랑 영학이.. 아, 영학이는 빠지고, 욱이랑 우형이랑 기성이 문제만 해결  
할게. 너는 개입하지 마. 많이 뜯겼으니까.  
형은 한 15억 정도 내놓을라고 그래. 셋이서 빚을 어떻게..  
왜냐면 제2의 나 회장이 또 있더라고.

정영학

예?

→ 나석규 [(주)유강인드라건트, 대륙]

김만배

제2의 나 회장이. (웃음)

정영학

아!

↳ 이기성

김만배

제2의 나 회장.

↳ 이기성

) 정영학

아이구 형님,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 김만배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려고 그러니까 안돼.

우형이랑은 통화해도. 둘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성이가 또 욱이한테 내질러버렸더라고. 나 회장님만큼 받고 싶  
다.

↓  
이기성

↓  
남북

↓  
나석규

정영학

예..

[금강인드라건트(주), 대륙]

김만배

그냥 너는 모른 척 해.

정영학

예.

→ (주)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그리고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  
이기성



김 만 배 그러니까 너는 모른 척 하고 있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 돈, 뭘 돈 해서 제2의 나 회장이 또 있는 거야.

↳ 이기성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 걸 해결하라고 욕이 돈 많이 준거 아니야? 응?  
그런데 그냥 똑같이 널려고. 똑같이 내자 이럴라고. 셋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면 형님이 더 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자는 대로 해야지.

정 영 학 참~ 여기 저기 그냥..  
그런데 형님이 잘 분배하시는 것 같아요.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정 영 학 그렇게 해야 또..

김 만 배 해야지. 내가 만약에 형사고소라도 당하면, 그때는 또 가서 해명이 안 통  
해.

↓ 남쪽

정 영 학 이런 것 아끼다가 문제 되는거죠 인제.

김 만 배 응, 그럼.  
영학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정 영 학 예, 형님.

김 만 배 오리역에 사랑해.

정 영 학 아 예,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 만 배 너, 형이.. 얘기를 해볼게.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오리역을 사. 사서, 우리가 계약금 내고 이자 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 가다가 5년이지만 얼마나 좋으냐. 인허가를 가지고 가는 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2년 안에 고도만 높이면 돼. 양 전무 얘기를 들어봐. 괜히 종 바뀌서 주거로, 주거지역으로 할 것 없이 상업용지로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데 지금 12층까지 뿐이 안돼. 이거를 24층이나 20층까지만 올려놔.

정 영 학 최고죠.

김 만 배 그러면 가스충전소 없애지 않고 이쪽에 숲 공원 또 만들어도 충분히 오피스텔로 이게 나와. 그러면 이거 여차하면 반 팔라서 팔아도 돼. 그러면 본전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예. 아니 저도 그 오리역 사업, 사업성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사업성이 있다 라고 스테디가 이 부장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듣긴 했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서,

정 영 학 물론 뭐 나중에 좋은 조건에 금융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 김 만 배 이 부장하고 하면 되지.
- 정 영 학 일단은 검토한 결과가 괜찮다 하면.. 구찌가 크니까요.
- 김 만 배 응, 응. 그래서 또 형이..
- 정 영 학 이번에 나가 버리면.. 내년에 하시죠. 내년에.
- 김 만 배 응. 내년에. 왜냐면, 저 B1 해결을 못하면 저 오리역 못해.
- 정 영 학 아!
- 김 만 배 그래서 나는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안되는 거야. B1을 빨리 팔아야 돼. 안 그러면은..
- 정 영 학 이번에 보니까요, 이 부장이 세워놓은 거가 400억 정도밖에 우미에서 안 내는 구조입니다.
- 김 만 배 그런데 문제는,
- 정 영 학 예, 물론 뒷단이 좀..
- 김 만 배 그렇지. 경기가 잘못되면 B1으로 우리가 죽어.
- 정 영 학 아, 예.
- 김 만 배 그래서 나는 그거 정리해야 돼.
- 정 영 학 B1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임시사용승인이나 고시만 나면 바로 파시죠. 일단 정 안 되면.



김 만 배      그래. 그럼.

정 영 학      지금은 소유권을 못 넘겨주기 때문에, 직접 사용분이라 험값입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돼. 1년에 이자도 얼마 안돼.

정 영 학      예. 이자 내봐야..

김 만 배      왜냐면 600억은 갚고, 나머지 400억을 담보대출 받으면 싸거든. PF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지.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자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 만 배      떨어져서. 응. 그렇게..

정 영 학      화천의 신용도면 좀 싸게 많이 빌려도 상관없습니다. 빌릴 수 있어 보입니  
다.

) 김 만 배      그래. 그럼. 담보대출. PF가 아니라.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형이 섭섭하게 안할게. 오리역 같이 하자.

정 영 학      저는 형님.. 아니, 형님, 저는 일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입니다.

김 만 배      응. 그거 재미있어. 팬찮아.

정 영 학      그다음에, 돈 욕심은 솔직히 저 과분합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돈은 벌어. 재미있게. 취미로 벌어.  
                  그런데 형이 얘기할게. 저번에 얘기야.

정 영 학     과분합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돈 버는 게 뭘 나빠? 형이 돈을..

정 영 학     아니 저야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런데 취미로 벌어.  
                  자 그런데, 위험하지 않잖아.

정 영 학     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럼. 뭐가 위험해? 돈이 있는데. 그거를 하자니까.  
                  인허가는 형이 낼게. 고도 올리고.

정 영 학     에.. 그게 아마 은행들이 들어오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은행 이 부장  
                  은 이미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보통 위에서 해라, 하지마라 해도, 이번 건은 거의 승인을 낸 것 같더라고  
                  요.

                  그런데 우미에서 못해버렸습니다. 이유가요, 우미가 이걸 하게 되면 대기  
                  업 기업 집단에 포함이 돼 버린답니다.

김 만 배     으음..

정 영 학     공정거래법에 되고, 무조건 하지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미가 이번에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는 되지. 내년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년에도 안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사도..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다 임자가 있는 거야.

정 영 학 그런데 또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좀.

김 만 배 오리역 괜찮다.

정 영 학 네, 괜찮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볼 때는 오피스텔 지금 10층만 더 올려도 되는데.

정 영 학 네, 네. 일단 들어보면, 거기에 오피스텔 들어오면 주변에 상하수도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아마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풀어야죠.

김 만 배 응. 그럼.

정 영 학 워낙 판교라는 테크노밸리에 오피스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승부는 난다고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 만 배 그렇지. 전철로 왔다 갔다 해가며.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오피스텔로 해서,



정영학 좋습니다.

김만배 오피스텔 대박을 낼 수 있어.

정영학 좋습니다.

김만배 형이 섭섭지 않게 해줄게.

정영학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김만배 지금 미리 주둥이로 얘기하면 형이 지켜야 되니까, 힘드니까..

정영학 (웃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게.

정영학 인제는 형님이 일 하라고 하시면 평생 무보수라도 합니다. 열심히.

김만배 아니, 무보수가 아니야. 형은 그런 거 싫어.  
너하고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유효해. 동지적 관계.  
그리고 형, 아우지만 어수로.. 응?  
가슴은 형은 너한테 맨날 이 요청을 했는데, 니가 형의 요청을 안 받아들여서..

정영학 제가 맨날 한다고 했고요, 진짜 단 한 번도 재창이한테도 남양주를 제가 안한다고 빠진 거죠. 힘들다. 몸도 힘들고, 안한다고 빠진 거죠. 형님하고 안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김만배 아니 아니, 형은 사실 하자고 그래도 형은 안해.

정영학 아 그러니까요.

김 만 배 왜냐면 그거를 왜 또 10년을 하니.

정 영 학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김 만 배 안해.

정 영 학 저것 끝나면 10년이면 환갑인데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김 만 배 형은 환갑 훨씬 지났는데 해서 뭐하니.

정 영 학 그럼요, 형님.

김 만 배 그냥 재미있게 보내면서, 오리역..

정 영 학 예.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거죠.

김 만 배 편하게. 성남 사람들 다 아는데.

정 영 학 민원도 없고.

김 만 배 그럼.  
그러면 우리 오리역이나 하자.

정 영 학 네, 좋습니다.

김 만 배 응. 오리역이나 하고.

정 영 학 가끔 사업 나오면, 하자 하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래.

정영학 인제 막, 지방 공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그럼. 그럼. 나와.

정영학 좋은 데 만이요.

김만배 좋은 데. 화천..

정영학 예. 그런 데 나오면, 형님 말씀만 하시면..  
막 맨 바닥에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좀..

김만배 나는 남양주 황금이 나온다 그래도 안해. 10년이야.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해봤지만, 얼마나 힘드냐.

정영학 네.

김만배 오리역 좋아. 기가 막힌 거야.  
형이 고도만 풀면 되는 건데 뭘..

정영학 네.

김만배 응. 고도만.

정영학 그거는 양 전무도 좀 파악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된다고.

김만배 응. 양 전무는..

정영학 예. 된다 하던가요?

김만배 현재 상태로 지으면 이득은 뭐 얼마 안 나온대.  
그런데 고도를 조금 높일 수 있거든.



정영학 하여튼 뭐, 시키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그것 좋은 것 같애. 놀면서.

정영학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김만배 그리고 회사에 돈이 있잖아.

정영학 아니, 원래 이 부장도 우미가 핑크가 났습니다. 우미가 핑크가 나갔고, 지금 회장님 설득을 한번 해보자. 회장님 관심이 있으신데, 지금은 시기가 빠르다. 왜냐면 아직 자금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은 내년 돼야 이게 좀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지금이야..

) 김만배 그렇지. 니가 정확히 봤다.

) 정영학 자본 축적이 돼야 뭔가 싸워볼 텐데요. 이 부장도 계속 설득을 해보자고..

김만배 내년에는 하는 걸로 해.

정영학 우미가 빵구나는 거를 혹시 같이 좀 받쳐주면 안되냐. 그래갖고 하여튼 인제..

김만배 형은 B1을 팔았으면 올해도 해볼 만하지. 그런데,

정영학 예. 아까워요, 그거는.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전등기가 안되고 하면 설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초창기면 사실 투자다 하고 생각을 하고 보상재원으로 쓴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사용, 팔아버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팔아.

정 영 학 내년에 최대한 빨리 파시고,

김 만 배 올해 팔리면 팔고 또.

정 영 학 팔리면 팔고요. 예. 예스. 일단 팔리면 빨리 파시고.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혹시 굳이 무리하게 손해 보게까지는..

김 만 배 손해는 안보고, 그냥 매몰비용 다 받고 팔면 팔고, 아니면은..

) 정 영 학 좋습니다. 좋습니다.

) 김 만 배 그리고 저 인허가 안 나올 거야. 윤 과장이..

정 영 학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안 나온다고.

김 만 배 오늘 했어, 내가. 이성문이한테. '70% 이상 안 나온다. 형이 들은 얘기는. 왜냐면, 한번 확인 해봐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윤 과장이 국장 될려고 하는데 옆집은 안해주고 이쪽은 해주니, 임마?' 내가 그랬어. 응?

정 영 학 형님 파악하신 정보가 더..

김 만 배 아이, 그럼.  
그런데 나는 성문이가 누구 얘기 듣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김 상무 얘기 듣는 건지, 종길이 얘기 듣는 건지, 아니면 정일천 사장 얘기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필수 국장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해줬잖아.

그게 옛날 전통에 우리 멤버고 요번에 또 다시 국장 됐잖아. 단장으로.

응? 양 전무가 바뀌달라고 그래서.

우리 멤버 아니야?

정 영 학 저는 시쪽은 전혀 모릅니다.

↳ 최문진

김 만 배 응. 윤길이 아저씨랑 친하고, 다. 그 멤버들도.

형이 시청 일은 봤으니까.

그러니까 영학아, 오리역을 하자. 오리역.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오리사냥 하자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남양주 10년은..

민원도 없어. 오리역은.

정 영 학 아니 그러니까 형님, 저도 스티디는 좀 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 딱.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역으로 우미가 핑크가 나니까, 회장님은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좋은 것인 건 알고 있고. 형님.

진짜 승산이 있느냐. 오리역 그게.

하나은행에서 한 2,400억 정도를 받을 생각이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몇 군데 조달하고, 2,400억 정도를 본인이 대출하고, 한 두 세군데 묶으면, 우미가 400억만 내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김 만 배      응. 그리고 형이 여차하면 삼성 끌고 오면 되거든.  
                  재경이 형이 거기 총괄업무 사장이라고.

정 영 학      ↳ 최재경 인치리개랑  
                  이번에요?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삼성 거기 뭐 하나 넣으면 되니까.

정 영 학      아니 그래서,

김 만 배      만약에 오피스텔 안 된다면. 그런데 오피스텔이 되면 많이 받는다니까.

정 영 학      예. 많이 받아요.

김 만 배      응? 그리고 오피스텔 해줄거야. 영학아.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알았지?

정 영 학      아니 그러니까 하시죠.

김 만 배      해야 돼.

정 영 학      그러니까 여쭙봐 달라 했는데, 지금 돈이 없을 겁니다.

김 만 배      내년에 하자고. B1 내년엔 팔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내년엔 B1 안 팔리더라도 팔릴 거가 예상되면은,

정영학 바로 해야죠.

김만배 바로 해. 왜냐면 위기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잘못하면 B1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내가 걷어주는 거야. 돈을 못 쓰고.

정영학 내년엔 정 문제되면, 투자를 받을 데는 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여기 저기 받아와야죠. 인제 한번 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런 돈 갖다 쓰겠다 하면 투자는 있습니다.

김만배 그럼.  
가자~

정영학 네, 형님.  
수고하십시오.

김만배 들어가.

정영학 예, 형님.

김만배 차 조심하고 가.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미안해. 자꾸 불러내서.

정영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이 안 왔는데요.

김만배 잘 가. 응, 응.

정영학      해결해주셔서..

김만배      응, 잘 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로 가.

정영학      가시는 것 보고 갈게요.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정영학      예,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응, 응, 간다.

정영학      예.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응, 잘 가~

정영학      예.      (끝)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top left corner.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top right corner.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upper middle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middle left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middle right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lower middle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bottom left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bottom right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lower middl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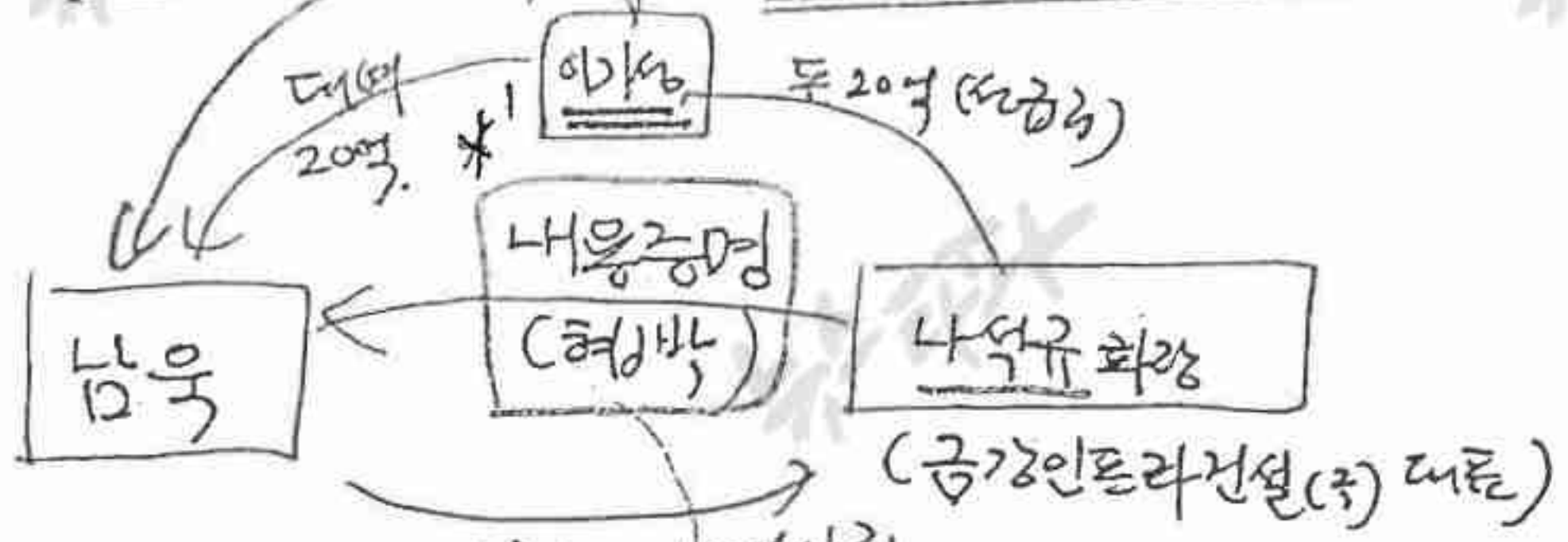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bottom left section.

Handwritten text, possibly a signature or name, located in the bottom right section.

내부공명 [6-38]

주우형 (현상) [6-6] 6차(모야) - 수정본

2020.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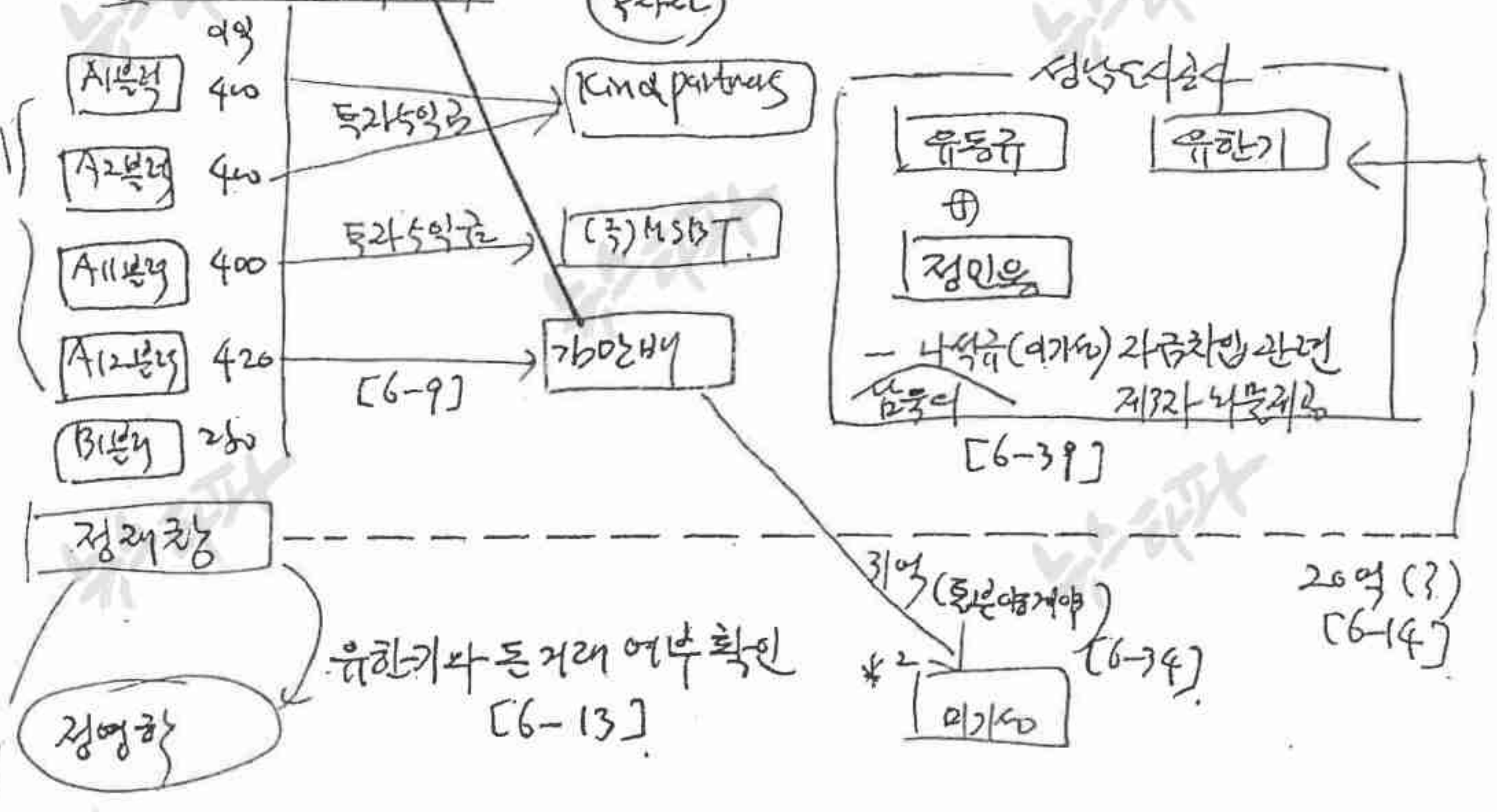
기원 [6-40] 100억 이상 [김민수가 천화동인호 가격금 제정안]

- ① 이가상을 통해 2019. 10월 26일 체결한 금 20억과 사비 500억 두 주주 권리 이익
- ② 주주 유동성 인자가 러비라
- ③ 정민호 (5422L) 제3자 내부거래 관련

이와 55억 관련 [6-12]

(주)리진

투라리



가보안비가 호반건설에 얘기하면  
 증인 것임, 독립 맞아 증인 것임  
 [6-27] (by 가보안비) \* 정민호에 돈 빌리면 가보안비 (by 가보안비) [6-19]  
 \* 터라면 "위험" 것부터 터진다, 50억 관련 (남우)  
 - 이가수, 이270과 22222에 관련이 있어 [6-27]



- 녹음일시 : 2020. 5. 7. 오후
- 녹음장소 : 판교도서관 앞 뚜레주르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33:14 대화중, 21:05~)

남욱이

김 만 배 그리고 천화동인1에 대해서 소유권 위장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 영 학 남욱이가 그러면서 그러던가요?

김 만 배 형이 남욱이 처음 할 때 알았으니까.

정 영 학 지꺼라고요?

김 만 배 응. 그런데 그 (..) 응?

정 영 학 그거를 지꺼라고 주장을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김 만 배 내가 들었어.

정 영 학 기업은행에 (..) 알았나요?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다고 될 것 같애?

정 영 학 아니요. 택도 없죠.

김 만 배 택도 없지.  
지금 그래서 욕이는 평생 골프 못 치는 놈이 되는거지 그러면.

정 영 학 아니 진짜 형님, 그걸..



- 김 만 배      아니, 나는 들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어.
- 정 영 학      은행에 아시는 분..
-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은행은.
- 정 영 학      (...)예요?
- 김 만 배      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 정 영 학      정민용이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김 만 배      그런데 인제, 내가 옥이 만나면 공식적으로 물을 거야.
- 정 영 학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 김 만 배      아니, 불가능한 얘기야.
- 정 영 학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 김 만 배      이재명이 (...) 왔을 때 (...)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 정 영 학      옥이가 언제 지가 그걸 주장을 합니까?
- 김 만 배      아니, 그때 얘기를..
- 정 영 학      저도 그런 의미로 들었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분쟁이 있냐' 그래서, '분쟁이 될만한 게 뭐 있냐'  
변호사 사무실..
- 김 만 배      주장하라고 그래.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주장하라고 했으니까.

정영학 모르는 거죠. 그걸로 가오잡이 하는 거죠 인제. 아유 뭐~

김만배 하든 말든. 먹힐 사람들도 (...)  
막말로,

정영학 그거는 아닙니다.

) 김만배 아니 아니, 남욱이가 형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니 내가 된 상태에서 (...) 응? 그러면 어쩔 건데.  
선거 전에 선거운동 7천이 아니고, 전부 11억하고 20 (...) 되는 거지.  
그다음에 2월인가 얼마까지 11억이었었어. 기억이 안날거야, 너는. 응?

정영학 형님, 그건 개인 간에 거래잖아요.

김만배 아니, 개인 간의 거래라 해도.

정영학 그게 무슨 문제예요?

) 김만배 무슨 문제야? 상관없어. 아이. 개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니네들이 형을 협박해.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형을 압박해서 고백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줄 사람이고, 나를  
넘을 수 있어?

(9)

정영학 아니, 그걸 떠나서요.

김만배 재창이가,

정영학 정재창이가 남양주 개발을 할 거라고 (..)

김만배 그런데?

정영학 재창이 안하면 나도 안하겠다.

김만배 애초에 조언을 받았는데, 지금 그 조언 받은 대로 할 거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조언을 받았는데 그쪽이 의견에서 헛갈린다 이거야.

정영학 우리 형님..

김만배 (..) 나서지 말라고.

정영학 안해요.

김만배 너는 형 말을 안 들어서 문제야. 지금까지.

정영학 형님, 저를 믿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아예 안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안 간다고. 아예. 아예 안 갔죠.

김만배 그래서 (..) 지금 그래. 조언을 받았는데, 조언을. 시를 위해서 조언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했다는 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더 커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접촉사고 났을 때 자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김 만 배      접촉사고를 속일라고 그러다가 (...), 또 입 막을라고 그러다가 폭행치사.  
 자수야,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참 쉽게 풀 수 있는 게 자수야. 형이 볼 때는 그렇게 (...) 증거인멸  
 (...) 같지만 자수하는 게 (...) 자수한다 (...)

정 영 학      걸고 싶은 사람이 (...)

김 만 배      그렇지.  
재창이가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게 동규 자수였나 봐. (...)

정 영 학      예. 내가 진짜,      유동규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답답해서.

김 만 배      아, 이것 비싼 건데.

정 영 학      아유, 괜찮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이것 받아.

정 영 학      괜찮습니다.

김 만 배      왜? 너, 형이 (...) 2만원인데 만7천원에 줄게.

정 영 학      하하하. 괜찮습니다. 크롬하츠인데요.

김 만 배      아니.

정 영 학      괜찮습니다.

김만배 (...) 비싸.

정영학 형님 쓰십시오. 저는..

김만배 형은 이런 거 똑같애.

정영학 저는 골프 치는데 걸려서.

김만배 아니, 이런 데가 (...) 고치라고. 알이 빠져서.

정영학 (...) 이야기는 알고 계셨네요?

김만배 형이 다 알고 있었어.

정영학 (...)

김만배 아니 아니, (...) 형은 저 이 뒤에. <sup>남북</sup>  
우형이한테 그랬어. 옥이가 세냐? 개 청개구리고 새끼야, 구뚝발로 밟으면  
배때지 터지면 세냐고 내가 물어봤어. 응?

**박영수** 그리고 어디 고검장님한테 이 씨팔놈아 기성이가 협박해서 돈 받아먹은 이  
런 얘기를 (...)해야지. 응? 응? 너 이 새끼 잡혀갔을 때도 도와주고. 이  
번 일로. (...) 새끼야. <sup>남북</sup>

물어볼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니꺼야?' 내가 물어볼라고 그래.

너 친화동인호.

정영학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형님한테 받을 게 많다. 상당히 많다.  
제가 그거를 이성문 대표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김만배 1호?

정영학 아니 아니요. 그 상의가 아니라.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솔직히 양 전무 손 떼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여듭니다.

그다음에, 회의 때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관리를 영 못하더라.

(..) 된 거가 정민용, 이몽주, 남옥, 정재창 (..)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장님한테 정재창이가 지난 이야기를 정재창이가 하더라,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형님 따라 (..)

김 만 배      형한테 행동으로?

정 영 학      제가 속으로.

김 만 배      응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 새끼는..

정 영 학      제가 속으로. 제 선에서, 제 선에서 충분히 방어도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형님이 굳이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 대표한테도 그냥 이 정도 저기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그거죠.

김 만 배      아니, 나는 너 오해 안해. 그냥 염려될 뿐이지.

정 영 학      이리저리 계속 제 걱정해서, 같이 움직이지 마라..

저도 지금 상황이 애들이 뭉쳐서 저런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김 만 배      그런데 재네들이 갈 수 있겠나? 지금.

정 영 학      그 일단,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일 자체가.

김 만 배      그리고, 난 모르지.



재창이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거야. 너를 끄집어내. 그걸.

정영학 예?

김만배 너를 만나긴 했어도 개인용무는 (...) 그래야지 만이 가져갈 수 있다.

정영학 저,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형님.

김만배 그런데, 그래서,

정영학 저렇게 협박해가지고. 이미 협박을 해버렸기 때문에.

김만배 그리고 이미 세상이 알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잘못 갔습니다.

김만배 잘못 갔다고?  
재창이가 너무 떠들고 다니고, 욕이가 나서서 (...) 때문에.  
그런데,

정영학 정민용이까지 돌아다니는 판에, 아유 저거는 다른.. 오히려 죽을 거 같습니다.

김만배 형 얘기야.

정영학 예. 그리고 남욱이는, 지가 남는 게 없다. 계속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김만배 남는 게 없는 건 지가 풀어야지.  
그리고 너는, 형이 이제 하나 묻겠는데,

정영학 예.

김 만 배 A11에 대한 불만이 왜 형이 있었냐면, 니가 모든 거를 형이 (..)

정 영 학 다시 한 번요?

김 만 배 A11에 대한 불만이,

정 영 학 제가 형님, 불만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불만이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남욱이가 있었던 거야.

정 영 학 그런가요? 아니, 저는 저는..

김 만 배 그런데 그거를 자꾸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런데 무슨, 그거를 내가 불만이 있는 양..

정 영 학 욱이한테 그렇게 안 들었어요.

김 만 배 아니야. 정반대로 니 얘기를 얘기해봐. 있으면 내가 빨게.  
그거를 그 새끼가 얘기한 거지. 응? 처음에.

정 영 학 욱이가 중간에 와가지고,

김 만 배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형은 그냥 PM 수수료 이런 거나 제대로 저거 하고,  
어차피 형은 A12 받아서 공동계획에 참여를 하고, 개는 A11에서 개 몫을  
한 거고, 너는 A1, A2인데. 그렇게 해서 우형이 것도 챙기고 뭐도 하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내라 이런 거지.  
그런데 개가 불만이었었거든.

개가 불만이 있어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무슨 이 새끼 내가 불만이 있다고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할래다가 참았어. 응?

정영학 (...) A11에.

김만배 응. 내가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영학 A11에 형 지분이 있는 걸 만배형이 알았다. 그래서

김만배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니한테. 너를 준건데.

정영학 형님이 그걸 한번..

김만배 아니 아니.

정영학 얘기로 A11이 형꺼라고 볼 수는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제, '그게 아니다. 잘못 들어왔다, 돈이' 욱이가 개지랄을 하더라고. 그거를 잘못해서..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그 새끼가, 그 새끼가 불만이 있는 거지. A11은. 자기는 A1을 먹을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먹게 했거든. 우형이랑. 그런데, 그래서 너를 두 번이나 (...) 니 지분이 없으면 안돼. 그거는 상관없다. 사실 내가 A11 가지고 (...)인데.

정영학 아니 그래서 저는 인제 그냥, 제가 욱이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11 돈 들어올 당시에 사실 여러 안 중에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온 거고, 결국은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도와달라 했더니,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김 만 배 아니, 개가 불만이 있었지. 왜냐하면 분명히 넣는 거 아는데. 자기는 처음에 A1에 대해서 (...) 안 먹었습니다. A1 수수료를. 응?

정 영 학 예. 결론적으로 A11에서는 먹은 거는 없습니다, 제가.

김 만 배 아니, 그건 나보고 그냥 알아서.

정 영 학 예. 진짜 먹은 건 없고, 대신 은행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먹어서..

김 만 배 끝난 건 아니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자 그러면 A1, A11도 처음에 내가, 내가 대기인 거야.

정 영 학 아니, 저는 그냥 은행들 좀..

김 만 배 많이 먹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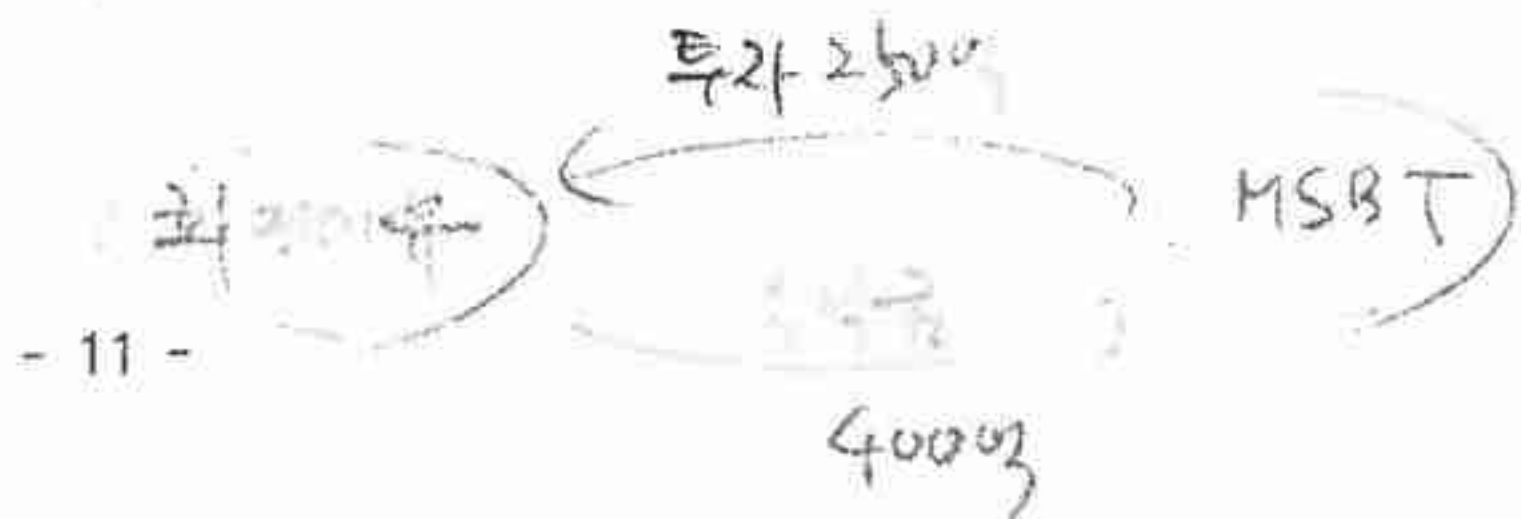
정 영 학 다행히 저쪽에서 양보를 해줘서.

김 만 배 나는 있지, 영학아, 여기서 잘 끝내서 다른 데..

정 영 학 아, 예.

김 만 배 왜냐면,

정 영 학 아시다시피 은행 기관들 250억 들어와서 400억 정도 먹었기 때문에 기관이 랑 먹을 것 먹었고, 조금 투자한 거나 결국 먹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 만 배     아니 뭐 (...)

정 영 학     그거를 제 꺼라고 계속 오해를 해서 하신다고요? 나중에 보면 아는데, 세상에 감춰집니까, 그게?

김 만 배     아니 아니 내가 그랬거든.

너는 A1, A2를 형이 준 거고, 영학이는 A11, 형은 A12 한 거 아니냐. 공동비 만들고.

너, 개는 나름대로 그 땅값을 도와주면서 먹었으면 먹는 거고 그런 거지. 니네는 먹지 말라는 걸 이미 먹었잖아.

그런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건 너희들이 킨앤에서 양아치들이지. 응?

왜 지금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시장이 된다.

(...)

) 정 영 학     예. 하여간에 그.. 거기서 먹으면 좀, (...)

) 김 만 배     아니, 상관없어.

정 영 학     손 안 댔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만 배     아니, 알았어. 그런 거는 서로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하지 마.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런데 아무튼 형은, 남양주 안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남양주 안할 것 같애. 그지?

정 영 학     아니, 이미 안할 마음인 거구요.

이미 재네들도 거기다 하도 제 욕을 많이 해놔서 할 수 없어요.

김 만 배     내가 볼 때,

정영학 아주 나쁜 놈 만들어 놔서.

김만배 (...)

정영학 네.

김만배 오늘 여기서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협박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앞으로 저한테는 연락도 하시지 말라. 어떠한 경우든지 연락하시지 말라'

최근에 연락 안 하다가요, 갑자기 협박하니까 그때사 연락을 했더라고.

김만배 아니, 너는 조언해준 건데.

그런데 재창이는, 아니 그러면 재창이한테 그래. '녹음 다 해냈습니다. 자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잖아.

정영학 예. 자수한다고.

김만배 자수한다고. 나는 그거를..

정영학 직접 이야기를 안하고 돌려서 하나 봅니다.

김만배 나는 조언을 받았는데.

정영학 그러니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를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만배 그리고 재창이는 너랑 유한기랑 돈 거래 있는가를 쫓라고 형한테 계속 확인하더라고.

정영학 없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그래서 (...) 줬다는 등, 누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지분을 달라는 등 무슨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정 영 학 유한기.. 물론 옛날에 초창기에 필지 하나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달라. 그런데 양전무하고 이성문 대표도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딱지 사서 하십시오. 딱지. 30명씩, 3백만원짜리 30명 것 사면 1억이면 됩니다. 나온 이야기가 그 1억입니다. 1억만 가지면 그 딱지 사 모을 수 있는데, 하십시오. 그 상황이죠.

그다음에, 재창이 지는 10억 줬다고 떠들고 다녔겠죠.

저는 한 번도 떠들고 다닌 적은 없어요. 준적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 만 배 그런 얘기하지 마. 너는 그 사람한테 아니면 재창이한테 오히려 자수하겠다. 나는 조언을 받은 거지. (...)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 한 적이 없는데. (...)

재창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돈도 많이 주고, 돈을 20억을 썼대. 유한기하고 그 사람한테.

정 영 학 말이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리고 아들도 데리고 있고. 응?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서 이.. 그러면은 너나 재창이가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게 나오면 죽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이.. 이상한 (...)  
그런데 믿으면 안돼.

정 영 학 지금 현재로는 그냥 아예 이거,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외에는, 아예 저하고..

김 만 배 그래서, 아니 형이 하나 얘기할게. 블록을 넘길 거야. 공사와 네명이 공사가 하자. 계약을. 이 블록은.. 이 블록은 이거는 건설사, 건설경기 활성화 (...) 건설사 위험하니까.

정영학 뭐 저는 그거..

김만배 아니, 아무튼 기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 (종업원에게) 끝났나요?

종업원 아니요. 10시 반까지예요.

정영학 그거를 그렇게 헐박을 하고 다니고..

김만배 그냥 형은 가까운데 있는 사람한테 천화동인 1호를 맡기고, 형은 신경도 안 써. 알았지?

정영학 형님,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아니 아니, 걱정 안해. 걱정 안해.

정영학 진짜. 이 대표도 화내느라고..

김만배 알지.

정영학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한테 계속 조심해 달라 해서 진작에 말했죠. 저 충분히 잘 압니다. (...)

김만배 너도 이런 얘기를, 너도 이미 (...)

정영학 최근에 저 심적으로 엄청난 회의를.. 쪽 한번 봅시다..

김 만 배

그리고 <sup>정영학</sup> 너를 공격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런데 니가 마무리 지으면 너는 죽는 거야.

정 영 학

오해를 안 받으려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원에서 운동을 하고. (...) 박연주 이사랑 운동하고 잠시 끝나면서 스치  
면서 봤는데요.  
정재창이가 제가 온 걸 알고 잠시 그냥 스치면서.. 얘기하기 싫다 했는  
데, 하여튼 두 가지.. 두 가지 이야기를. 형님하고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sup>정영학</sup> 형님하고 했는데, 제가 고발을 하면 자기도 가만히 안 있겠다.

김 만 배

무슨 고발?

↓  
정재창

정 영 학

제가 고발을 하면.

김 만 배

니가?

정 영 학

예. 자수를 하면.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본인도 가만히 안 있겠다. (...) 붙이고.  
내가, 본인이 준비를 해야 하느냐.

김 만 배

<sup>정재창</sup> 응, 응.

정 영 학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왔습니다.

김 만 배

재창이가 거기는 어떻게..?



정영학 재창이가 기다렸다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왔어요.

김만배 그건 재창이 평생 끌고 갈 수야 없지.

정영학 왜 그러냐면, 이.. 저기에는 오해하지 마라. (형님 관련 사형본)  
김만배 (...)?  
모두 김만배가 시킨 것이다.  
라고 하면...  
예.

김만배 왜냐면 (...) 너는 형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겠는지를 기다려봐.

정영학 저는 제 것 다 잃어도 그냥 형님 때문에 잃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재들 때문에 잃으면 재들은 답이 없는 애들이라서, 저는 뭐 어떤 저거든지  
간에 형님 쪽인 것 같아요. 제 심정적으로.

김만배 나는.. 아니 영학아, 나는 애들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애들이 만족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꾸 아닌 걸 싸우면 버거운 거야. 너하고 형하고.

정영학 그런데 형님, 많이 먹었잖습니까. 재들이.

김만배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자꾸.. 나는 (...) 둘이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해.  
나는 니네들 돈을 뺏어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나는 공정하게 간다고.  
그런데 이 자꾸 니것도 뺏고 형것도 더 뺏고 이러고 싶은데, 아니 뺏기냐  
고? 응? 그리고 뺏기면 바보인데. 그러면 그냥 뺏기고 마는거고 그러지.  
다 날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놈한테 치욕을 당하면 안되지. 응? 형은 다른  
방법을 쓰지. 그걸 개네들은 모르는 거지.  
동생일 때니까 방법을 안 쓰는 거지, 동생이 아니라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형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지? 개네들이 힘이 있어? 없잖아? 응?

남욱이가 힘썼다고 (...) 형님이었고 동생이었으니까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의미였지. 응?

정영학 일단 저부터 공격한다 하길래.  
그 세무사한테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25억 빌려온 거 있다면서요.

김만배 25억?

정영학 25억. 옛날에 그 (...)한 거.

김만배 응, 응.

정영학 25억 빌려온 것 중에, 12억9천은 저한테 보냈다. 이거 돌려받겠다.  
내가 변호사한테 가만히 안 있겠다.

김만배 남욱이가 얘기해? 옛날에 걸?

정영학 예, 예. 그래서, 아니 그걸 갖고 가만히 놔둘려다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요,

김만배 개가 니가 다 썼다고 하더라고.

정영학 4억7천은 다시 남욱이한테 송금해 줬어요.  
3억은 남욱이한테 송금. 1억7천은 대장 PFV에 송금.  
송금일자, 날짜 다 확인했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2번. 4억5천은 이상락 위원장이 명인 소송에서 진 걸 여기서 내줬어요.  
PFV에 내줘야 되는데.

김만배 남욱이가 내달래서 그런 거야?

정영학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억.  
오히려 도시개발 DNP라는 데서 이걸 건드린 것 같아요.  
도시개발 DNP입니다. 이게 이름이.  
12억9천이 도시개발 DNP인데, 도시개발 DNP에서 5억을 옛날에 대장 PFV에  
한 1년 전에 빌려준 게 있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남욱이 PFV 대표이사기 때문에 대신 갚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3억, 4억 남았지 않습니까.  
4억 중에, 태광 회원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회원을 누구누구 등재를 했  
냐면 남욱, 정재창을 등재했어요.

김만배 법인회원권?

정영학 법인회원권 사가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거기서 인건비 좀 나간 게 있고.  
결국은 1억 남는데요. 그런데 그건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거고.  
그다음에, 5억은 제가 못 받았어요.  
그냥 건드려본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건들기 시작하면 저도 옛날 것 방  
어는 해야죠.

김만배 그래도 자료는 해놔.

정영학 준비는.. 예. 아니 그냥 애가 뭐라 하는 건 다 떠들어보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만배 옛날에? 요즘 얘기는 아니고?



정영학 예. 이걸 제가 지난주에, 4월 말인가 했을 겁니다.

김만배 이거는 형은 언제 들었냐면, 아주 옛날에 들었어.  
영학이 형이 까블면 이걸로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정영학 이거 12억9천?

김만배 응.

정영학 12억9천 중에 4억7천은 지한테 반납해준 거, 지가 몰라요.  
송금증이 다 있어요.

김만배 아,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그 새끼는 자기가 옛날에 그랬어.

정영학 그다음에 4억5천 들어온 거, 이성락 위원장하고 저기 다 갚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DNP에서 5억을 보낸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받아야 될 돈이고요. 송금한 게 있습니다, 다.  
이자 낼 게 없어갖고 보내준 게 있어요.

김만배 자료는 해놨어.

정영학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 일단 방어는 할 텐데요.

김만배 옛날에도 너 그걸로 가만 안두겠다고. 까블면. 그런데,

정영학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도시개발DNP를 일단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 용도를 지가 다 알아요, 형

님. 왜냐면요, 지가 4억7천 받아간 것도 지가 알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4억5천 이상락 위원장 위해서 쓴 것도 지가 알아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도시개발DNP를 들먹이는 이유가 좀 있어요.

김 만 배      거기서 형한테 준 돈이 있냐?

정 영 학      주식이 있어요.

김 만 배      주식?

정 영 학      예.

김 만 배      15%?

정 영 학      예.

) 김 만 배      아니, 상관없어. 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준 건데.

) 정 영 학      예. (...) 그런 것 같아요.

) 김 만 배      그럼. 잠시 말아달라고 그래서 말아줬다 그러면 되지.

정 영 학      기존 사업장.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기존 사업장,

김 만 배      응. 왜냐면, 돈도 남욱이 마누라가 해왔던 건데. 그 돈으로 잠시 말아달

라고 그래서 말아줬을 따름이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정영학 그러니까 이걸 12억9천은 문제는 전혀 없는데, 계속 DNP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김만배 아니, 형은 짐작했어. 그런데 아유, 형 논리에는..

정영학 12억9천에 대해서는 쓴 게 명확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안쓴 거 알고 있고, 써봐야 뭐 뭐..

김만배 재창이는 한번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이거 사업하긴 했는데, 자기 주식이 형님한테 갔냐고.

정영학 저기가 돼 있어요.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아니 15%가 왔었지. 그런데 형이 불법을 행사한 적 있니.

정영학 그게 12억9천 들어온 회사입니다. 12억9천 용도는 지네들이 다 썼기 때문에. 이자는 안 냈지만.

김만배 근데 옛날에 뭐 얘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논리는, 잠시 말아 달래서 말아준 거지.

정영학 몇 번 넣은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이라 했죠. 명의신탁.

김만배 명의신탁이고.

정영학 명의신탁이면 벌금 백만원 내고 끝납니다. 하여튼,

김만배 그런데 그걸 줬다는데 뭐 무슨 문제가 되나?



정영학 기존 사업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김만배 아니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 정영학 이런 거 아니면 12억9천을 건드릴 이유는 없죠.

)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기존 사업자 상관없어.

) 정영학 제가..

김만배 그거보다, 공무원한테 뇌물 준 게 아니고, 횡령 아니고, 세금포탈 아니면 되지.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 나 징역 갈게. 집행유예..

정영학 12억9천을 이야기하길래 자료 준비는 해놨습니다.

김만배 그래. 나는 문제 있어? 아~씨. 재창이가 있는데.  
아 그런데 이것 뭐 주식이 뭔 소용이 있어? 뇌물로 줬어? 기자한테 뭐..  
남옥이 마누라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내가 거기에서 횡령을  
했어?

정영학 형님 돈도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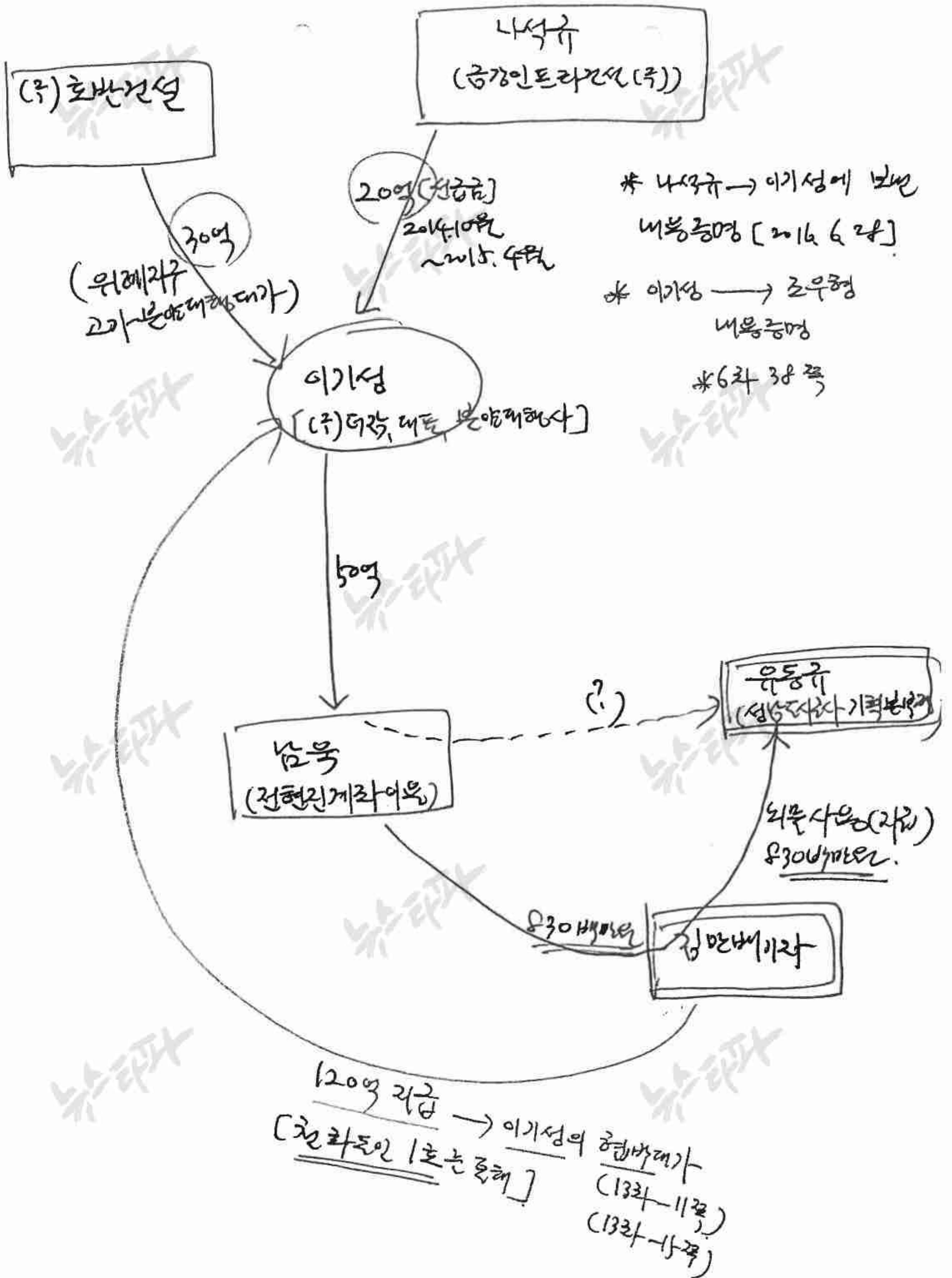
김만배 내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뭐하러 해? 이미 끝난 회사를.

정영학 그렇죠. 끝나고, 괜히 (..)

김만배 그럼.

정영학 형님 통장에 돈 안 나왔어요?

김만배 아니, 재창이 꺼였었는데. 15%.



정영학 그거를 계속 들먹이길래, 12억9천은 쓴 용도가 명확하다.  
 4억7천은 송금해줬고, 4억5천은 이상락 위원장님 줬고.  
 어차피 PFV 대표이사가 준 돈이니까, 왜 사업을 위해서 쓴 (...)라서.  
 요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1억7천은 니네 둘이 회원 등재했다. 그게 다 있어요. 회원권은.  
 그러면 기껏 남아봐야 뭐 몇천인데요.  
 옛날에 5억 빌려준 거 모자란다.

김만배 터지면 위례 것부터 터질 거야. (...)

정영학 예, 예. \* 13차 7쪽 이기성 관련.  
 ↳ 이기성 [ (주)더감, 더튼 ]

김만배 기성이가 꼼꼼하게 계좌를 만들어놨어. 나중에.

정영학 처벌 받을까 봐요? 그러면 (...)한테 받아간 남옥이가 문제네요.

김만배 남옥이가 문제지. 그 50억 때문에.  
 형이 얘기하잖아. (...)  
 그런데 내가 경비 줬다는 얘기는 안했어. 내가 썼다고.

정영학 당연히 형님이 쓰신 거죠.

김만배 그럼. 그런데 나는, 이러더라고. 애가 도와달라고 해서 (...) 응?  
 뭘 도와줘? 지가 (...)인데.  
 ↳ 남옥

정영학 좀 걱정은 안 되는가 봐요.

김만배 나는 걱정 안해.

정영학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부를 때,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영학아, 재네들은 사람을 찢러보는 부분은 (...)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형은 찢러보기만 하는 거지. 찢러보면 뭐가 징역을 간다, 검사들 (...) 죽  
여본 적이 있는지. 애네들은 죽여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형은 징역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재네들은 두려움이 많은 애들이야. 뺏기고.  
그런데 형은 (...)에서 뺏길만한 서류가..

정 영 학     없습니다.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나올 게 있나요.

김 만 배     응. 그럼.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나 만나면 너 위협하는 얘기하고, 너 만나면 형  
욕하는 얘기 할 수 있어. 응? 서로 겁주느라고.

정 영 학     아니, 이번에도 4월 말일날 세무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  
저 안 갔습니다. 박연주 이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 안 갔습니다.  
본인 일은 본인이 해결해야죠.

김 만 배     이재명이 1심 무죄 나왔을 때, 우리 회사 칠라고 그랬어. (...)  
그지? (...)

정영학 저는 (...)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

김만배 그래.

→ 남쪽 + 정영학

정영학 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애들이 (...) 일단 제일 문제는, 한 이 정도면 되게 만족할 만한 성과 아닌가요?

김만배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벌어?

정영학 어디 가서 이렇게 벌어요?

김만배 그럼. 시행하는 사람이 200억 벌면 많이 버는데.

정영학 예, 예. 아니 그 다음에 육이도 1,250억 아닙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그 정도면 배 터지죠. 물론 공통비 많이 내봐야 뭐..

김만배 아니, 정보다 더 널라고. 기자들 조용하고 수사기관 조용한 거, 본인들이 (...)한 거 아니잖아. 응?

정영학 저는 일단 공통비, 저는 처음에.. 아니, 보편은 얘기할 텐데요.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 인건비만 갖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김만배 A11 내가 얘기했어. A..

정영학 그건 형님, 그건.. 예.

김만배 내가 그랬어. 400억 남으니까 저기다. 그러니까 60억씩만 넣으면 된다. 응? 50억 대출 받은 거 빼고. 그랬더니,

정영학 형님이 떠안으신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기한 거구요.

김만배 아니, 형이 털 냈다면 더 내고.  
그리고 재창이 만나봤자..

정영학 그날 그런 거 확실히 그냥 뭐 준비하고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다음에, 남옥이는 고발 안할 텐데.  
돈 준 사람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제발 고발을 할 거면 이야기해라. 형님하고.. 고발을 할 거면.

김만배 누가? 무슨 고발?

정영학 고발을 할 거면. 돈. 돈.

김만배 동규?

정영학 아니요. 정재창이가 정보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돈을 준 거. → 신권은

김만배 응, 응.

정재창의 현금  
공감에 따라

정영학 예. 씩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김만배 형이 호반한테 얘기하면 호반이 끊어 죽일 거야.

정영학 그게 제일 낫겠네요.

김만배 응?

정영학 그게 제일 낫겠네요.

김만배 재 죽이지는 않아도 독침 맞아 죽을 거야.

↓  
정재창



근데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야. 형은 니네들, 재창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들 싸우길 원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싸우면 좋겠어. 그런데 개네들이 멈추지 않을 거야.

니 남쪽+정계로감

정영학 아니 형님, 저는 뭐 제가 공격을 하나요.

김만배 응. 그래서 형은 이런 생각이야. 그놈들이 마음 (...) 먹어서 가는 동안에 (...) 처음부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아니 세명이든 두명이든 사이 좋게 손잡고 먹어야지, 빼놓고 뭐할라고 그러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아냐. 아니, 너랑 둘이 했으면 잘 해서 하면은 아무 일이 없지. 나는 욕심도 없어.

정영학 저도..

김만배 응.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욕심들이 생기니까 이 사단이 생기는 거야.

재창이는 잘못했다면서 저기야. 지난번에 문자로 잘못했다고 문자 왔어. 그리고 1안은 형은 거의 없어. 자존심 조금씩 상해도 그게 최선이야.

정영학 예.

김만배 형이 이 재창이 문제는 상의를 했지. 그런데 (...) 물어봤는데, 진짜 가지고 와서 다 받은 거냐. 형은 사법적으로 되는 것도 다 미리 손을 써놔서 최소화했지. (...)

정영학 논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구요. 형님이. 제가 들어도.

김만배 그래.

정영학 아니, 급박한데 인간이면 솔직히 (...)하겠냐.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줬다. 달라 해서.

김 만 배 그런데 왜 직접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게 했냐.  
범죄라 그런 우회로를 택한 거다.

정 영 학 예, 예. 저희야 그냥 돈 벌었으니까.

김 만 배 준거다. 벌었으니까.

정 영 학 완전히 본인이 정재창이가 그냥 손을 쓴 것 같구요.

김 만 배 호반은 저거 안해.  
나는 영학아, (...) 이런 것 (...)보다도, 형이 남욱이 들은 얘기가 많아서  
너는 안했으면 좋겠다.

정 영 학 저는 진짜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안합니다.  
심지어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 접수되는 것, 알아서 하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김 만 배 형이 염려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했잖아.

정 영 학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혹시 화천은 관심이 없으시냐고.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성문이한테 그런 거야. 제발 니가 설득 좀 시키라고.  
개네들하고 못 어울리게.

정 영 학 형님, 진짜 안한 지 오래 됐습니다.

김 만 배 그 얘기 때문에 고단할 거야.

정영학      진짜로 안했습니다.

김만배      형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 형은 이미 젊은 날에 군대 끌려가서 죽을 뻔 했는데 뭘 걱정을 해.

정영학      (...)하다가, 처음에 이성문 대표하고 정재창이. 저희 잡고 가겠다 하는 거를 이거 해주고, 좀 풀려서 좋게 지내다가, 조금 섭섭한 게 있다고 바로 돌아서서 칼질하고 (...)

사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삼목+정재창

김만배      그리고 니가 생각해봐. 아니 개네들이 형을 무슨 논리로 이길 거야. 이 정도 참여로 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이겨?

정영학      아무튼 좀..

김만배      (...) 어떻게 이겨? 그거를. 응? 그지?

정영학      (...)였나요?

김만배      어떤 거?

정영학      (...)

김만배      차가?

정영학      예.

김만배      몰라. (...)  
우리 회사에 대주주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빌려간 건가? 대여금.

정영학      예.



천화동인호트

김 만 배 대여금 관련된 게, 공무원이 연관된 거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꺼라 하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공무원과 연관된 거다. 그래서 천화동인1에 대해서 소송을 할 생각이다.  
아니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빌린 돈 많아.  
빌린 돈인데, 그거 뭐 내가 알아서 쓴 거지 뭐.

정 영 학 아니 형님, 형님 (...) 되잖아요.

김 만 배 그럼~ 되지. 그건 되지.

정 영 학 그다음에, 다 보증서시잖아요.

김 만 배 그럼. 보증서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근데 애들이 싸움도 아닌 걸 싸움을 걸어서. 근데 나는 싸움은 싫어.  
근데 발톱 내놓으면 형은 동생이라고 생각 안해. 남옥이든 재창이든.  
영학이가 그러면 열 번도 물어볼 거야. 영학아 니 진심..

정 영 학 형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형님 좋아하고.

김 만 배 내가 그러니까 남들은 한번만 확인해서 죽일 건데, 너는 열 번.  
맞습니다 그래도 또 열 번.

정 영 학 형님, 저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김 만 배 아니, 너한테.

정 영 학 발톱 얘기를 직접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에요.

김 만 배 열 번 물어볼게. 열 번.

정 영 학 저는, 저는..

김 만 배 나는 영학아, 확실히 너 좋아해서..  
형의 실책이 이거야. 뭐냐면, 너 좋아해서 남옥이도 짜르고 다 짜르고 갔어야 되는데, 너만 데리고. 그리고 아니면 처음에 너도 빼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갔어야 되는데, 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결론은.

정 영 학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구성원들이 되게 좋아요.

김 만 배 400억만 달라고 그래서 400억 주기로 했던 거야.

정 영 학 형님 좋고, 이성문 대표 좋고, 양 전무 좋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박현덕 이사 착하고, 현성이 형님 좋고.

김 만 배 야. 400억만 해주기로 하고 끝을 내겠는데, 형이 너 좋아서 그걸 안하고 너도.. 너하고 하겠다고 해서 한 거야.

정 영 학 저는, 저는 섭섭한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섭섭하면 형한테 얘기해. 형이 (...)

정 영 학 그리고 (...) 저는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 회사 잘 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거라도 (...)

김 만 배 야,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인제 이번에.

정영학 예.

김만배 민주당은 은수미가 아웃될 걸 대비해서 보궐선거는 안한다. 그러면 지자체선거 전에 결정나게 해서 정상적으로 (...) 생각을 가지고 할거야. 응?

형의 소스가 누구냐. 1번 김용, 2번 최윤길, 3번 조우식, 이 셋이야. 형이 얘기해줄게.

정영학 여기는 요즘 저기, 좀..

김만배 여기도 (...)

정영학 (...)

김만배 (...) 있잖아.

정영학 여기가 최고네요.

김만배 여기가 최고지. 응.

정영학 (...) 되게 높았고.

김만배 그러니까. 야, 저거 일도 아니지. (...) 영학이랑..

정영학 아니 그러니까 형님, 저는 일을 떠나서.

김만배 아니 아니,

정영학 저는 여기까지라도 만족하기 때문에.

김만배 그래. 난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형은 이거야. 개네들이랑은 일 안해. 그런데 너는 개네들이랑 손잡을까봐



정영학

형님, 절대..  
작년에..

김만배

응. 내가 성문이한테 좀 부탁했잖아. 제발 좀 안하게..

정영학

제가요 작년에, 진짜 그렇게..

김만배

A11도 남욱이 논리인데. 그래서 이 새끼가 지 논리인데 막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니가 시작한 거잖아' 내가 가만히 있었어.

정영학

아니 그런데 저는 형님, 저는 정말 저쪽하고 일을 할 마음이 없고.  
이번에 여러 날 협박하는 거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짜 여기저기.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 협박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한테 은혜 베풀었  
던 형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지 들어갈 때 25% 챙겨준 거는 정확하게 누가 챙겨준 건데요.

김만배

그래.

정영학

그런데 그 25%에 기껏 해봐야 2,3% 공통비 내는 건데요. 그걸 그렇게 억  
울해하면..

그다음에, 거짓말대로그 아니라 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 이기성

47차 14

김만배

그래. 기성이 것도 그래. 형이 31억 줬어. 통분양 계약.

정영학

그거 형님이 왜 떠안습니까? 지들이 사고 친 건데.

김만배

그래. 아니, 왜냐면 고소한다니까.

정영학

그게 그러니까 형님이 되게 착하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김만배

그것 주고, 18억을 기성아 더 줄게. 그랬는데, 기성이는 욕이가 꽤 씬하니

박영수

↑  
 까 옥이를 협박하고 있어.  
 옥이는.. 기성이 생각은 이거야. 고점장님한테 막 '이기성이가 협박해서 못 만납니다' 이렇게 했다. <sup>남옥이</sup>  
 그러니까 기성이 생각은 협박해줄게야 지금. 남옥이한테.  
 '너, 영수형한테 내가 형 시킨다고 그랬지? 협박해줄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기성이가 변했어.  
어제 우형이가 그냥 덜덜덜덜 떨잖아.  
 거기서 막 니 얘기 꺼내고. 남옥이가 너 욕한 얘기, 죽여버리겠다 얘기. 거기다가 (...)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남옥이가 힘 있냐?' 그러니까, '힘없죠. 말로만 그러는 거죠. 영학이 형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영학이 형이 처음부터 구렁텅이에 빠뜨릴라고 했겠어요? 지가 한거지'  
 물론 이 새끼 말도 믿으면 안돼. 우형이도. 난 직접 안한다니까. 정 대표는 (...)

정영학 오늘 아침에 박연주 이사가 하다가.. 일단 형님 말씀대로 해야죠.

김만배 내가 인제 (...)하겠다고 그러잖아. 응?

정영학 지금 혹시 단들이 하면 정재창이가 (...)잖아요.

김만배 아니면 잠시 형한테 (...) 형이 절대로 완범이한테 (...)

정영학 하하. 편할대로 하십시오.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왜냐면, 이게 바꾸라는 신호야. 응? 이놈이 형 보호해달라 이거지. 이 새끼 좋지 뭐. (...) 알아서 해. (...) 받아줄게.



정영학 알겠습니다. 제가 수습되고 말씀드리고, 교통사고 처리되면.

김만배 무서워서 못 타겠다.

정영학 제가 형님 말씀드리잖아요. (...) 다쳐가지고.

김만배 부러졌어?

정영학 예. (...)한 겁니다.

김만배 (...)?

정영학 예.

김만배 세계 다쳤네.

정영학 차병원으로 실려가고, 저는 인제 딱 나왔는데 괜찮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차는 엉망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동기들하고 골프를 치러 약속이 돼 있어갖고요. 차에서 (...) 췌매야 된다고. 췌매는 순간 이게 피가 나더라고요. 쪽 흐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어떻게 골프 치러 가냐고 하더니, 목 가드 해갖고 바로 119에 실어갖고, 어디로 가실래요.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있습니다. 저 차병원은 저분이 가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서 싸웁니다. 제생병원 가실래요? 하더라고요. 제생병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갈게요. 바로 신고 가버리더라고요. 골프 못 갔어요.

김만배 형은 1차선에서 우회전 할라고. 그런데 이게 신호가 걸렸어. 그래서 깜빡깜빡 하면서 서있는데, 와가지고 차가 그냥 박아가지고..

정영학 언제요?



김 만 배 한달 됐어. 그래서 범퍼가 다 날라갔는데, 형 차가 얼마나 좋으냐면, 아유 어디서 큰 사고 난 것 같이 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디서 났나 했더니, 내 차야. 저 차 안 좋아. 안 좋지.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

정 영 학 새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GLS 마이바흐.

김 만 배 응. 그거 최고야.

정 영 학 형님 그거 타시죠 그럼.

김 만 배 나 그거 탈거야. 나중에.

정 영 학 나중에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마이바흐.

김 만 배 그리고 영학아, 형은 이런 생각을 해.  
다툼은 있지만 그냥 놓아. 그게 서로를 위해서 (...)  
재창이랑 남옥이, (너) 죽이겠냐. 형이. 그지? (...) 도와줄거야

정 영 학 예. 형님이 잘 한번..

김 만 배 형이 그렇게 할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정도 갈등은 있겠지만, 그래도 너는 어떤 발언을 하지 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남옥이를 두 번 만났어. 왜냐면 기성이가 (...)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나갔거든.  
남옥이한테 2억을 줄 게 있거든. (...) 줬대. 미국에 있을 때.

(주) 호반건설

나사규  
(금강인프라(주))

20억 (선금금)  
2014.10월 ~ 2015.4월

\* 나사규 → 이기성에 보낸  
비통증명 [2016.6.28]  
이기성 → 증빙자료  
비통증명  
6회 38쪽

30억  
(위계각주  
과거분할대금대가)

이기성  
[(주)대우, 대우, 분할대금대사]

\* 계약서 「정민통」이 관속함.  
↳ 성남대사과 전각사업팀과

50억

남북  
(정민통계좌이체)

(?)

유동규  
(성남대사과 기획팀장)

외통사은(2월)  
830만만원.

김민배이사

830만만원

120억 지급 → 이기성의 증빙서류가  
[정민통인 | 호는 동해] (13차-11쪽)  
(13차-15쪽)

그런데 기성이 모임에서 대장동 얘기가 나왔대. 남욱 변호사가 2대주주라  
는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했는데 (...)

그런데 역으로 엄청나게 계산을 잘 했더라고. 현금에다가, 뭐 조우형이한  
테 온 거.

내가 보여줄게. 내용증명. 응? 봐야지.

정영학 아, 예.

김만배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쓴 거야.

정영학 네.

(밖으로 나옴)

정영학 아, 우형이한테 보냈네요.

김만배 응. 너 조우형.

(내용증명 서류 읽는 중)

정영학 이걸 그러네요.  
엄청 많이 줬습니다.

김만배 50억 가까이 줬대.  
우형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 47억 정도 줬대.  
돈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자기도 좀 쓰고, 우형이 지가 많이 썼다고.  
응?

정영학 와아- 이거 보면은 진짜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이거는 3자 뇌물..

김만배

응?

정영학

3자 뇌물로 정민용이 나와서 (...)

(내용증명 서류 넘기는 소리)

남욱  
↑

김만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응? 그 새끼 미친 새끼지. 응?

정영학

전부 전현진 계좌로 보냈네요.

김만배

응, 응. 전현진. 또 현찰로도 많고.

우형이 얘기는 기성이가 홍콩 달러로 빌리고 수표 주면은 지가 뭐 상품권  
으로 바꾸고 뭐 해도 15%에서 30% 와리깡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든. 응?

(내용증명 서류 넘기는 소리)

김만배

옥이는 (...) 이기성 접이 많거든.

정영학

예?

김만배

형이 옥이 사건을 처리해봐 줘서 알잖아. 너보다 접이 더 많아. 응?

남욱  
↙

정영학

개는 방어막이 별로 없습니다.

김만배

개는 법이..

정영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잘못된 게 있고. 싸우면 지는 바로  
죽습니다. 저쪽에서 안 싸워도, 형님이 안 싸워서 그렇죠.

남욱  
↓

김만배 그리고 A11은 개가 불만이 있었던 거야. 개 얘기야.  
개 얘기를 형은 받아서 전달만 했을 뿐이야. 왜 나한테 그래.  
그 새끼가 지가 그러고.

정영학 저는 형님, 제가 '거기서 돈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한 거 한번.  
그다음에,

김만배 개가 만약에 너랑 둘이 싸우러 왔을 때 개가 A11 가지고 얘기했을 때  
'새끼야, 왜 형한테 그래. 니가 시작하고' 이럴라고 그랬어. 응?  
그러니까 개가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지 얘기라.  
우종이는 어디 갔어? 응? 우종이.

(내용증명 서류 넘기는 소리)

김만배 되게 심각한 내용이야. 그지? 응? 간단하지 않아.

정영학 앞에 내용 갖고도 <sup>남북</sup>육이는 그냥 죽겠는데요.

김만배 죽어. 그냥 골로, 골로 가.

정영학 정민용이 데리고 나와서 애도.   
→ 이기성을 통해 남북에게 돈 20억 원은 빌려준 사람

김만배 정민용이도 죽고.

정영학 네, 네.   
→ 나석규 [금강인프라건설(주), 대원이사]   
기성

김만배 그런데 기성이 얘기는, 나 회장한테도 똑같이 정민용이를 데리고 갔었나  
봐. 그래서 나 회장이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나 회장한테 기권을 했다.  
울면서 막 '씨팔 다 죽어' 이러면서 육이가 전화하고 그랬대.  
알고 있으라고.

04  
2020-8-7.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공격하면은 방어막 써.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이 어디 갔어?  
내가 슬쩍 얘기해야지. 너 이제 인연이 다 했나보다. 형한테 와야 되는 데, 새끼야. 응? 그래서 명분이 좋아.

정영학 ■ 씨, 이리 오세요. 뚜레주르.  
어디? 아. 10번가?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세요. 예, 예.

김만배 밤에 낚시 다니고 그러면 운전수 하면 안돼. 위험해.

정영학 옛날에 민철홍 평가사를 처음에 (...)했더니 엉망진창이 돼 버리더라고요.  
민철홍 평가사가 와서..

김만배 제네시스?

정영학 예, 빌렸습니다. 한달.

김만배 (...) 하하하

정영학 남옥이 죽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형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문제가 돼?  
개한테 뭐 요구한 게 없었잖아요.

김만배 아예 없었어.

정영학 정민용이 데리고 돌아다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정민용이 철없는 (..)  
야, ■■■아, 사고 났어? 응? 너 정신을 차려야지, 이 짜샤. 사고를 나면 어떻게 해. 몸은 안 다쳤어? 어디 뭐 아픈 데는 없고?

남 자 예. 좀 놀란 것 같아요.

김 만 배 큰일날뻔 했어. 몸 안 다치길 다행이야. 그리고 (..) 차도 안 다치고.

정 영 학 액땀했다고 생각해.

김 만 배 액땀했다 해. 잘못하면 교차로에서 큰일나는 거야.  
하여간 잘 가.

남 자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다행이야, 진짜. 안 다쳐서. 응?  
가.

정 영 학 예,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이 잘 가.

남 자 예.

정 영 학 이걸로 바꾸십시오.

김 만 배 이걸로 바꿔야 돼. 이거 엄청나.

정 영 학 GLS요.

김 만 배 내가 얘기해줄게. 여기는 먹었어. ■■■아, 이리 와봐.  
우측으로 갈라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차가 여기 와서 그냥 박았어.

그래서 나는 저 안에서 아, 어디 이렇게 큰사고 나나, 이렇게 봤더니, 내 차야.

정영학 하하하. 그 정도인가요?

김만배 그래서 이거 바꾼 거야. 범퍼. 이게 트럭이 받아도 괜찮대. 영화 찍을 때 이거 가지고 찍잖아.

정영학 좀 있으면 (...) 마이바흐 안 나오니까?

김만배 나온대.

정영학 그걸로 바꾸십시오.

김만배 응, 응. 아직 이거 3년이 안 돼서. 엄청나게 튼튼해.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이게 다 나갔어. 이게. 이게 다 나간거야. 그래서 (...)

정영학 형님도 혼자 운전하시기 좀 그런데 누구 좀.. 하하.

김만배 너 형한테 올래?

정영학 하하하.

김만배 응? 응? 왜? 싫어? 이 새끼 되게 기분 나쁘네.

정영학 들어가십시오, 형님.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어때? 오고 싶으면 얘기해.

정영학 하하하. 형님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응.

남    자      안녕히 가십시오.

김 만 배      (...)

남    자      예.

정 영 학      얼마 안 됐나보네. 조심하십시오. 예.  
형님 스톱. 아, 예.

김 만 배      천하무적이야. 나 저기서 돌려서 갈게.

정 영 학      네.      (끝)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7차(보안) - 수정본

2020. 6. 17.

성남시청  
 (주)원주

- 인사재무, 승진 등 [7-20] (by 김민배)
- 인력관리, 방아다 만나고 (주)방아다 (주) (by 김민배) [7-34] 김민배에게

「지금까지는 기층직, 예비  
 정도 뿐이다 [7-39]」

「최저임, 김기동 등  
 승진 고령직이  
 김민배 (최천대유)  
 고령직 중심」  
 [7-36]

오리역 내부의  
 지방자치  
 수익 3,000억

하남시청  
 이보식 부장

김민배  
 \* 약속이래서 큰비영준 수령액

(주)최천대유

[7-14]  
 3억

이기성  
 (주)대강

돈사원러 무비대가 (최천대유)

약속그룹

- [우동진] (최천대유) 1,000억
- [윤창호] (사회) 150억
- [기하나] (사회) 50억
- [최수원] (최천대유) 50억
- [곽상도] (최천대유) 50억
- [박영수] (특별 고령직) 50억
- [최기영] (지정고령) 500억
- [김수남] (정규고령) 500억
- [홍신근] (비내국제이) 500억

김기동 등  
 [7-5]

대주주 (100%) 김민배

김기동 등  
 내려 압력해다  
 [7-28]

30-500억  
 [7-2]

700억

김일권  
 (최천대유)

[김민배가 300억  
 + 400억]

7화 (구정)

- 녹음일시 : 2020. 6. 17.(수) 21:00경
- 녹음장소 : 판교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13:37 대화중, 12:41~)

김 만 배 정일천이가 옛날에 LH공사 직원 혹 발랐어?

정 영 학 잘 모릅니다, 저는.

김 만 배 그랬다고 그러데.

정 영 학 예.. 태어나서 단 한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 만 배 나는 봤어. 골프장에서. 멀리서.  
그 저기 뭐야, 완범이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영학아, 형이랑 오리역(LH사옥부지)이나 하자.

정 영 학 아 예, 뭐 저..

김 만 배 형이 (...) 줄게.

정 영 학 아니, 안 주셔도 되구요. 그냥 뭐..

김 만 배 많이 줄게.

정 영 학 아니, 팬찮습니다. 형님, 저 욕심 없습니다.



김 만 배 이 부장도 주고.  
이 부장은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한다면 형이 30억에서 50억 줄라고.  
상관없잖아.

정 영 학 그냥 뭐 법인, 형님이 주주 하시면 되죠.

김 만 배 그러다 나중에 주면 되지.

정 영 학 아니 아니, 주주만.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렇게.

정 영 학 그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김 만 배 뭐가?

정 영 학 자사운용사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다 끊겼습니다.

김 만 배 왜?

정 영 학 요즘 하도 사고가 많이 터져서, 이제 많이 좀 생각이..

김 만 배 그런데 은행에서 나올건지 안 나올건지는 내년까지는 결정해야 돼.

정 영 학 내년 말까지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특수분야라서 다른 데보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만 배 그게 일종에 시공사로 치면 건설팀장 같은 자리 아니야?

정 영 학 아, 맞습니다. 예.

김 만 배 아무한테나 내줄 수도 없는 거야.

정영학 네, 맞습니다. 사고 나니까.

김만배 그렇지. 잘못하면 은행에 몇 조 손실을.. 응?

정영학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인천 쪽도 대박 났지 않습니까. 모텔하우스 방문자가 100만 명이  
랍니다.

김만배 인천?

정영학 예. 하나은행이 돈 쓴 데. 2천명 하는데 청약 8만명 들어왔고.  
사업분석을 되게 잘..

김만배 차라리 너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오는 건 어때?

정영학 아유, 형님, 저는..

김만배 응?

정영학 전혀 아닙니다.

김만배 형이 회장이니까.

정영학 아유, 형님, 아닙니다.

김만배 니가 씨발 같이 회장이면 안 되고. 좃또.

정영학 진짜 아닙니다.

김만배 부회장은 어때? 아니, 월급 받아가고. 영학아. 응? 그 지분 받아가고.

정영학 저는 스무 명 직원이 있습니다.

김만배 아, 그거 재미없잖아.

정영학 다 보니까요 요즘 밑에 애들이 제가 안 가니까요, 다 밑에도 영망이고, 작년엔 매출이 38억이었었거든요. (...)가.

김만배 응.

정영학 올해 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물어보니까, 별로 일도 안하고, 서울 재건축도 확 줄어들고.

김만배 오리역이나 하자. 형이 한 20 몇층 올릴 수 있거든.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러면 너 수익이 3천억이 넘어.

정영학 저는..

김만배 아니, 생각을 해봐.

정영학 진짜 형님, 뭐 하라면 하고, 너 다른 것 하라 하면 다른 것 하고.

김만배 아니, 우리 불법으로 하지 말고 취미생활로 하자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어때?

정영학 아 예, 형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김 만 배 아이, 왜 안줘. 형은 약속 절대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형은 약속한 것 다 지키고 있어.

정 영 학 맞습니다.

김 만 배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떼고 현찰로 달래. 그래서 문제야. 금하고.  
음? 금피하고 현찰로 달래. 그래서 내가, 응? 큰일났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세금은 떼고 하겠다고 그랬어. (...) 금피 (...)

정 영 학 이번에 양 전무 한 데는 막판에 깨진 건가요?

김 만 배 아니, 형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문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 영 학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김 만 배 그래서 양 전무한테 내가 사정사정했어. 미안하다고.

정 영 학 형님이 엄청 난처하셨을 것 같애. 하아~ 진짜..

김 만 배 성문이가 얼마나 하고 싶어 했는지..  
양 전무랑 영원히 멀어질 것 같아서. 형이.

정 영 학 예.. 두 사람 다 형님 진짜 써야 될 사람들이라, 형님이 진짜.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양 전무한테 새벽에 전화했어. 미안하다.

정 영 학 양해 구하시면 좋죠.  
그런 걸 형님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 같으면 야 하라면 하지 왜  
말 안 듣냐 하실 텐데, 양해도 구하시고.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네들 데리고 씨팔..

정영학 아유, 골치 아프시겠더라고요.

김만배 니네들 데리고 내가 오리역 하니? 정영학하고 할 때는 씨팔 그냥 뛰다다 다닥 해결나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캠퍼가 차이 난다. 내가 그랬어. 성문이라고 양완범이 대놓고 그랬어.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지네들보고 하는 줄 모르고, 반대편 누구 하는지 알 거야.

정영학 예.. (...) 형님이 계획 세워주시는 테두리 내에서 했죠.

김만배 <sup>↳ 김만배</sup> 남양주는 너랑 나랑 힘 안 합치면 남옥이랑 재창이랑 못 먹어.

정영학 아니, 저야 뭐 형님..

김만배 아니 아니. 형이 시행사 회장들 거의 다 만나봤어. 내가 하는 줄 알고..

정영학 (웃음) 아니, 진짜 소문이 나 있어요.

김만배 아니, 화천대유 회장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화천대유 회장이 변호사로 났으니깐요.

김만배 응. 남옥이.

정영학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김만배 아니, 이 대표는 HMG에서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 처음에.

정영학 그래갖고 또 물어봤어요. '왜 HMG랑 돌아다녔냐.'  
그랬더니 이 대표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아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아예 상관 없다는데요.  
'HMG 딸이 회계사님 사무실에 근무해요?'  
'아니라' 고. '똑같은 거라' 고.

김 만 배      그거는 재창이가 알고 있어.

정 영 학      예. 알고 있어요.  
                  근무 안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자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꺼 아닌데 뭐.

정 영 학      예. 그래서 이 대표한테 '미리미리 항변을 하시지, 왜 그렇게 소문나도  
                  특 났냐' 저한테 전화해갖고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전혀 가치도 없  
                  는 걸 뭐 하러 답변하냐.' 그랬더니, 저도 그래요.

김 만 배      소문이, 내가 볼 때 인제, 우리 쪽에나 재창이 쪽에서 너를 견제할라고  
                  처음에는 그랬거든.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그런데 그 소문 이 소문 합해져서..

정 영 학      네. 형님이 뒤에 있는 거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형님도 뒤에 있는 거고.

김 만 배      맞지.

정 영 학      여차하면 형님이 이제 저 시켜서..



김 만 배      내가, 정보과 형사가 형 찾아온 얘기했지?

정 영 학      예..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저기 형사가 찾아와서.. 얘기 안했냐?

정 영 학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김 만 배      (...) 정도에.

정 영 학      예. 형님이 하시냐..

김 만 배      아유 그래서 내가 뭐,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도 안 넣을 거라고.  
우리가 하면 멍길까봐 일부러 개네들이 만나자 해가지고.. 응?  
그런데 우리는 안해요.

정 영 학      이번에도 언론플레이는 호반이..

김 만 배      호반이 한 거지. 형이 다 확인했어.

정 영 학      좀.. 옛날에도 저희가 했을 때도, 여기서 할라다가 스톱을 했다고 그러  
더라고요.

김 만 배      그때도 했는거야.

정 영 학      형님이 하시면..

김 만 배      만만치 않아.

정 영 학      설령 이쪽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가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영학 형님 정도 아니면 방어 못합니다.

김만배 아니 인제, 지금은 나도 힘들어. 나랑 친한 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동생들한테..

여기는 성남지청에는 우리 최측근으로 지청장으로 오고 나서 쓰고 있는 거고. 주영환이. 개는 대검 중수부.

정영학 네..  
이번에 삼성 쪽은 되게 잘 방어를 하신 거죠?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예. 언론도 좋게 나오고. 아예 큰 밀그림이 최(..) 쪽으로 나 있고.

김만배 그러니까 너는 형이랑.. 아니, 너는 안 뻔 테니까.

정영학 저야 뭐 형님이 하지 말라면 안한다니까요. 괜히..

김만배 삼성물산이랑 나중에..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따뜻한 것 하나 먹어. 이것.

정영학 아 예, 제가 치우겠습니다.

김만배 응. 따뜻한 거. 요거는 내가 살게.

정영학 아.

김만배 (...) 나왔네.

정영학 이번에 방어를 잘 하셔서.. 삼성하고.

김만배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 하는데 도움이 돼.

정영학 네. 결국은 보니까 상당히 삼성이..

김만배 응.

정영학 예.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제..

김만배 응. 그렇지.

정영학 예.

김만배 신라호텔 처음 가봤네. (...) 중심지.

정영학 예. 거기서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김만배 응,응. 너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지내냐고.

정영학 조용히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김만배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정영학 (웃음) 감사하죠. 저야 뭐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평생.

김만배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재정이 형 내려주고.

정영학 감사합니다.  
많이 혼넜다 하시죠.

↳ 최재정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많이 혼냈다 하시죠.

김 만 배      아이, 그러면 되나. 내가 사람 혼내는 거 (...) 오리역은?

정 영 학      특별히 뭐.. 하여튼 뭐 하라고 하시면 하고. 다른 건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 만 배      (...)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했냐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늦었어. 손 대기에는.

정 영 학      예.. 호반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다닌답니다.

김 만 배      하나은행에 갔었대.

정 영 학      예. 거기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회장한테. 피곤하게 됐습니다.

김 만 배      하면은 김만배 뿐이 없네. 적수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 응?

정영학 예. 그런데 뭐 저기도 뭐, 이 부장도 그냥 뭐 하라는 데 해야죠 뭐. 옛날처럼 안 됩니다 할 명분도 없고, 확실히 어디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김만배 그럼.

정영학 실제로. 옛날에는..

김만배 형은 백현동도 가능성이 있어. (...)  
그런데 개들은 건설사하고 같이 연결하면.  
개네는 건설을 못(...) 주택을 넣으면 되니까.

정영학 삼성이..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삼성.

김만배 아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재네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꼭 재창이하고 영학이한테.. 아니, 남욱이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정영학 아니 뭐, 저야 뭐..

김만배 근데 결국은 찾아오겠지. 놔둬도.

정영학 아이, 이렇게까지 이번에 했는데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하고 협박하고 했는데.

김 만 배 이거는 만약에 하면 3천억 벌어.

정 영 학 네.. 옥이랑은 좀 잘..

김 만 배 옥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연락도 안해. 그 씨팔새끼.  
야, 솔직히 그냥 형이 그만큼 내면은, 15억만 내면 되는데.  
우형이는 한푼도 안 냈어. 형이 빌려줬어.

정 영 학 그걸 떠나서, 형님이 진짜 25% 챙겨주고 30% 챙겨주고, 많이 챙겨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전체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김 만 배 <sup>남육만</sup> 그런데 뺏겼다고 소문내고 다닌다잖아.

정 영 학 비용 낸 거죠.

김 만 배 그리고 나가면, 지가 만배형 욕하면 세상에 우군이 생기나? 더 없어지지.

정 영 학 그렇죠. 진짜.

김 만 배 기성이도 나쁜 놈이야.

정 영 학 예.. ↳이기성[(죽)더럽, 더러운]

김 만 배 그거 받은 다음에도 또 남육이 만나서..  
들이 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기성이가 그러는데.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만나서, 남욱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또 그랬대. 그러니까 남욱이가 정당히 까보자고. 돈 쓴 거. 그랬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성이야.

기성이

그래서 내가, '너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해. 요번에 하면은 진짜로 니네 형 변호사 회장 나올 때서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남욱이가 돈이 어디 있었어.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 니가 준 돈이 그렇게 왔지. 응? 병신아. 그러니까 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 새끼야. 응?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 이 새끼야 다 죽는다.'

박영숙

기성이

제주도 골프장에 내가 31억 해줬지. (...) → 634 34.  
성남을 떠나지 말자고.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두 사람에게 안 좋게 한 적은 없는데, 하도 안 좋게 하니깐 그냥 저도..

김 만 배 이제 이번 기회에 갈라졌어. 서로.

정 영 학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대표한테 하도 욕먹어갖고. 제가.  
'만날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사람을 봐서..'  
'내가 그때 일하느라.. 이번에 정리됐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다시는..'  
주변관계가 망가져서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특별히 뭐..

김 만 배 너는 남양주 했었으면 너는 죽었다.

정 영 학 형님 말씀 듣기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저걸 까, 말어..

김 만 배 재네들이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 이..

정 영 학 아, 형님 말씀도 안 듣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김 만 배 그래. 돈이 돼야 돼.

정 영 학 예. 오로지 돈인데. 명분도 없고, 오로지 돈 아닙니까. 사실은.

김 만 배 챙피한 것도 모르지.

정 영 학 천억 벌게 해줬는데 30억 안 내면 (...)

김 만 배 15억만 내놓으면 되는 건데.

정 영 학 예. 저한테.. 제가.. 세금 그 110억 냈습니다. 제가 60 몇억 냈구요. 수입액 비례 해 정확한 비율입니다.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법인세 200억 더 냈다면서요?

김 만 배 음,음. 너도 60억도 그 새끼가 만약에 못 낸다고 그러면 영학아, 그냥 저 이 배당 해놓고.. 알았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낼 거야. 응? 너한테 (...)

정 영 학 아이, 저는 뭐..

김 만 배 회사도 놀러오고 그래.

정 영 학 아, 저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이 대표가 하도 옛날에 자기 통해서 이야기.. 자기 통하지 않고는 직원



들 만나지 마세요. 딱.. 아니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김 만 배 저번에 성문이 혼냈어.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지금까지 B1, 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이 씨팔놈아, 너 계약금 넣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할려면 회사 안에서 해야지, 왜 가지고 나가서 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시키고. 니 조직이지. 음?'

정 영 학 B1은 봉합을 잘 하셔야 조직이 좀..

김 만 배 응. 아니 그래서, '죽으나 사나 니네들 회의해서 해. 직원들 똑같이 같이. 그리고 밀져도 괜찮아. 내가 아무 말 안할게. 대신에 좋은 기보만 만들어' '이득을 남기겠습니다.' '이득 필요없어. 더 달라면 내가 100% 다 줄게. 그런데 기보를 잘 만들어'

정 영 학 예. 구설수 안 오르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구설수 안 오르게 잘..

김 만 배 응. '기보를 만들어라. 돈 안 벌어도 좋다' 캐시 비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응? 그지?

정 영 학 네. 개인적으로 평형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짹짹합니다.

김 만 배 에이, 안돼. 부시장이 절대 안 된대잖아.

정 영 학 법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게..

김 만 배 아이, 특혜시비를..

정 영 학 땅에서도 벌었고 아파트에서도 벌었는데 이것 갖고서 또 벌면 무슨 관계



나 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김 만 배      그래. 형님이 2천억 벌었대. 나보고. 주택에서. 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내가.

정 영 학      그렇게 소문났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변명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알았다.  
택지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벌고, 2천세대 분양해서 벌고. 음? (..)

정 영 학      아니, 백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B1 하지 말자고 하신 말씀 충분히..  
그런데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 하셔서..

김 만 배      그리고 그거는 또 원래 다 안 줄 거야.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돈 많이 남기면 남옥이가 나중에 안하겠냐? 응? 얘기를. 그지?  
계룡건설 돌아다니면서 지꺼라고.. 음?  
그래서 이득 남겨도 내가 가져가서도 안 되고 직원들 주는 게 맞고,  
특혜시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요새 배는 왜 다시 나오고 있어?

정 영 학      (웃음) 많이 먹어서요. 아니, 거리가 줄어들어갔고.

김 만 배 왜 줄어? 그날 보니까 200 한 50미터 나간다고 캐디가 그러던데.

정 영 학 아닙니다. 230. 잘 맞을 때요.

김 만 배 아니야. 어유, 정영학 회원님 250 정도 나갑니다, 이러더라고.

정 영 학 어유, 아닙니다.

김 만 배 그래서 거리가 무지 나간다고. (중략)  
아, 이 새끼들 내가 요번에 보니까..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 내가 아주 가운데서 내가 죽는 거야.

정 영 학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죽는 거야.  
성문이는 안 되는 조건을 계속 걸고. (...) 음?  
완범이는 자존심 땀에.. 음? 내가 죽는 거지.

정 영 학 잘 하셨습니다.

김 만 배 양 전무 (...)

정 영 학 예.. 또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푸나..

김 만 배 성문이가 입력값을 어디서 잘못 들어오더라고.

주변 값에 할 수 있다고 입력값을 그러고. 그런 게..

정영학 저는 그거는 저도 명확히 아닌 거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김만배 3천만원 넘길 수 있다는 그것 하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시세가 3천이면, 3천에 사냐? 3백만원 싸도 안 사지.  
30평형대 해봤자 1억뿐이 시세 차이가 안 나는데.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응? 최소한 3억은 올려야지 분양은.. 그냥 3억은 차이 나야 돼. 분양 받으려면.

정영학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조사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시장조사를 시켜봐서, 그냥 진짜 머리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형님이 이제 '해라' 라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총력전을 해야죠.

김만배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선 각각이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다 얹어 놓고 안 되는 거는 걷어내. 내가 그랬어. 되는 거는 올려놔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분양가를 HUG를 통과할 수 있다고.  
형은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 성문이가 얘기하는 거.  
계속 뭐 3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될거라고 봐. 그리고 7층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안 되는 거거든. 그 평형수도 안되고.



정영학 일단 동 간격 문제는, 하~ 그게 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스테디 해보시죠, 형님.

김만배 아니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 나는 일체 회의도 안 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내가 그랬어. 니네들이 한번 씨발 죽이 되든 말든..  
그런데 니네들하고 내가 오리역은 못 간다. 이 전력으로. 응?

정영학 하~ 초창기에는 그래도.. 예.

김만배 아니야. 너가 있어서 개네들이 (...). 내가 그걸 느꼈어.

정영학 아닙니다.

김만배 왜냐면, 니가 없으니까 재네들이.. 응?  
야, 나 같으면 다 하겠다. 뒤에 공무원 인사해줘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해줘.. 응? 뭐 힘들어? 그냥.

정영학 예. 방향 다 잡아주시잖아요.

김만배 그래.

정영학 요것도 하지 말라면 안하고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김만배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진급시켜줘, 뭐 해줘. 다 해줬는데.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영학이가 있어서 솔직히 되는 거야.

정영학 아유, 저는..

김만배 개네들이. 아니. 영학이 노력으로.

정영학 일단 뭐, 저는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형님이 보호도 잘 해주셨고, 다 도와주셨고, 운도 좋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운이 좋았다.

김만배 운이 좋았어.

정영학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다 운도 사실 좀 이렇게 힘이..

김만배 재창이는..

정영학 예. 지킬 힘도 있어야..

김만배 그럼.

정영학 예.

김만배 재창이는 욕심을 너무 낸다.  
죽으나 사나 너하고 시작했으면 너하고 끝났어야 돼. 나중에도.  
그래야지 잡음이 없어.

정영학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지가 하고 제가 도와준 겁니다.

김만배 도와준 거지.

정영학 하다보니까 지는 빠지고, 저만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김만배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

정영학 저는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준 거고.  
대장동 그때 막 억울하다 하니까 도와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보니까 뒤집어쓰는 형국이어서, 아유..

김만배 너 죽는 거야.

정영학 네.

김만배 그리고 안 나갈라고 버티면 남욱이 식구들이 죽일라 했다고.

정영학 네,네.. 아유, 이번에 저는..

김만배 오리역이나 백현동. 백현동도 나오면 삼성이랑 손잡고 하고. 오리역에 대해서.

정영학 네.. 저는 형님이 방향 결정하시는 대로..

김만배 내가 보니까, 내년엔 인제 배당 받고서 분양해서 뭐 한 천개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싹 해버리면..

정영학 가급적이면 형님 돈 적게 내셔야죠.

김만배 내가 최소한 한 천5백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낼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구도를 잘 짜보자고. 지연구도.

정영학 네. 리스크 많이 안 지시는 구도로 짜야죠.



김 만 배 그래서 균등하게 하라고. 트럭..

정 영 학 저는, 저야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하면은 직원들한테 설명해.  
트럭 위에다가 돈 가득 싣고 집에 보내주겠다고 그래.

정 영 학 (웃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데요.  
초한지의 유방이지 않습니까. 탁 잘 나눠주고, 땅을 잘 떼어주고 막.  
그런데 너무 많이 나눠주시면 또 안된다는데. 나중에.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내가 스님한테 그랬어. 얼마 전에 봤는데.  
스님, 통장에 화천대유 통장에 있으나 내 통장에 있으나 성혈사 절에 있으  
면 다 내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천하가 내건데.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 통장에 있으면 내건데.  
그러니까 의미 없대. 스님이 보니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형이 여자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응?

정 영 학 예. 저도 그렇게 쓸 일 없습니다.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이번에 잘해보자고. (...)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형님이 지시하시면 저는..

김 만 배 애들이 전력이 영학이 없으니까 도토리 키 재기야.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형님.

김 만 배 나는 두 놈이 B1을 가지고 그렇게 대립할 줄 몰랐어. 응?

난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정영학

옛날처럼 형님이 좀.. 이걸 좀 방치해 놓으신 게 있고요.

옛날에는 형님이 '해'

그다음에 굉장히 그때는 조직이 바짝 긴장했을 때고요.

옛날에는 어차피 형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얘기해' 이게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상태고.

김만배

응.

정영학

이번에는 결정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골치 아프신 거고.

김만배

응.

정영학

과하게 민주주의 됐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지 마'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요.

김만배

그런데 이제 한번,

정영학

한번 보시죠.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오는지.

김만배

연습으로. 연습하게.

정영학

예. 그다음에 형님, 이 B1 정도 못 만들어내면 개인적으로도 머리 박고..

제가 좀 뭐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만배

내가 그 얘기야. 니네 이 실력으로 무슨 오리역을 하겠니..

정영학

그러니까 형님, 형님은 맨땅에도 이렇게까지 버셨는데.

김만배

그래. 아니, 저거를 못하면 오리역을 재네들이 무슨 실력으로.. 응?

11사  
2020-6-17

- 정영학 그러니까요 형님, 풀어오라 하십시오.  
형님은 아무 것도 없이도 그냥 뭐..
- 김만배 아니 뭐, 그렇지 뭐. 너나 나나..
- 정영학 이것도 풀었는데요, B1 못 풀어오면 죽어야죠. 나중에.  
농담입니다. 농담.
-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사실인데. 농담은 무슨.. 사실인데.
- 정영학 그 되게 집요한 노력이거든요. 끝까지 고민을 그냥..  
고민의 끝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조달을 할 거냐 부터 해갖  
고.
- 김만배 그리고 우리는 10년을,
- 정영학 예. 또 고민만 했고.
- 김만배 고민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길이 열렸던 거고.
- 정영학 네, 네. 형님도 자나 깨나 그것만. 모두가 다.
- 김만배 그럼.
- 정영학 그렇게 간절해서 풀린 거고요.  
좀 더 고민해 보라고 하십시오.
- 김만배 우형이가 재수 좋게 어디서 좋은 걸 물어왔지. 그지?
- 정영학 예. 전부다 진짜 운 좋게.
- 김만배 아이, 그럼. 그래서 행복하게 끝냈어야 돼.



정영학 네.

김만배 형은 그렇게 할라고 했어.  
근데 저거 한번 연습을 해보자. B1은 연습을 해서 적극 기보를 만들어서  
(..)

정영학 네. 한번 보시죠.

김만배 조율 잘 하고. 유리하게.

정영학 일단 저도 형님 생각대로, 평수 늘리는 거는 특혜시비 있다고 생각은 되고  
요.

김만배 은 시장이 절대 못 늘려.

정영학 그 안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김만배 은 시장이 딱 내놓고 얘기해. 불법은 피해갈 수 있는데, 편법을 어떻게  
피해 갈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조건을 만들면 되는데, 편법은 보이는 건  
데 어떻게.. 이 특혜시비를 뭘로..

정영학 일단 땅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땅값에서. 애는 천만원, 애는 천3백만원 풀  
어주면.

김만배 풀어주면.

정영학 예. 아마 감사원에서 세계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아이~ 버티지를 못할 거야.

정영학 그다음에, 금액이 몇백억인데.

김 만 배 그러면 감사원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정 영 학 그 해준 공무원들이 다치잖아요.

김 만 배 다쳐.

정 영 학 그거는 좀 못하게 아예 못을 박고, 그 내에서 한번 해결을 해봐라.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 내에서 해결을 해봐라. 다시는 인제..

김 만 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 영 학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 만 배 평형수 늘리면 죽어. 우리는. 우리는 절로 수사 들어와.

정 영 학 예. 그..

김 만 배 너, 수사 들어오면 막을 자신 있냐?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저도 평형 바꾸는 거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평형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정 영 학 형님, 직접 사용분은 이하분만 하겠다 라고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이보다 유리하게 바꿔주는 거는 시비가 있습니다.

김 만 배 아이, 그래. 특혜야. 특혜.

정영학 물론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이걸 분양 받아간 사람은 민원 넣어서 바꿔달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선정을 한 민간사업자라 시비가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걸 내놔야 되거든요. 평형수를 늘리면 그 평가치를 한 만큼 내놓으면 되는데요, 그거 할 바에야 사업을 왜 합니까. 그 정도도 안 남는데.

인제는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니까, 한번 가지죠.

김만배 아니, 밀쳐도 해야 돼. 그냥 하던 대로 할라고. 밀쳐도.

소원이라니까, 응? 해봐. 응?

아, 형은 씨발, 올 여름이나 가을에 오리역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참..

이럴 때 인수해야 되거든. 국회 상임위 막 만들어질 때 불러서 업무보고 받을 때 (...)

정영학 예..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는데.  
건교부 통해서 LH 사장 조지고, 응?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러면서..  
저것 겁나서 못 사, 사람들.

정영학 물릴까요?

김만배 물릴까봐.



정영학 예. 형님한테 말씀드렸다 하더라고요. 이 부장도.  
오피스로 해도 수익성이 있습니다. 구조가 나옵니다. 하셔도 됩니다.

김만배 오피스로 할 바에는..

정영학 네, 네. 최악의 경우에.

김만배 최악이고. 삼성을 데려오면..

정영학 네, 네. 최악의 경우에도 되니까.

김만배 그런데 뭐하러 오피스를 해? 오피스텔로 14층을 올릴 수 있는데.  
(..) 그 뭐냐, 하나로마트를 30층까지 올릴려고 했었는데. 용역은 받았는데.

정영학 네..

김만배 응? 그게 있었잖아. 그런데 그런 용역 결과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정영학 하~ 근데 인제.. 하여튼 뭐 한번 두고 보시죠 뭐.  
저걸 빨리 좀, 빨리 마무리 하라고 하십시오.

김만배 B1?

정영학 예.

김만배 내비 뒤. 주장이 너무 틀려.  
성문이는 중대형 평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러고. 7층을 넣겠다고 고집..  
고집이 세더라고. 내가 요번에 느꼈는데. 예,하고 안 바꿔. 예,해도. 응?  
그리고 완범이도 보통 고집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자존심도 세고. 응?  
현덕이한테 내가 물어봤어. '뭐가 문제냐? 둘이'

정영학 (웃음)

김만배 '숫놈들 대결이에요'

정영학 예?

김만배 숫놈들. 그래서 '그러면 내버려 뒀' 그랬다.

정영학 냅두십시오, 형님.

김만배 응.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내가 그랬어, 현덕이한테. '왜 그래? 저새끼들' 그랬더니, 숫놈들 대결이  
래. 그냥 내버려 뒀야 되겠다고. 우열이 결정될 때까지.  
저거, 중대형 평수를 넣으면 영학아, 감사원에서 우리 조져버린다.

정영학 그건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형도 못 막아, 그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감사원에서 조져버리면..

정영학 아니,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만배 아니, 좃만큼 벌을려고 왜 사활을 걸어?

정영학 형님, 이미 이게 있는데. 요게 요건데요, 굳이 그냥.. 아니 그냥 저도..

김만배 그리고 내가 정일천 것도 다 해결해줬고.

정영학 왜 굳이 이거를..

김만배 그래서 여기에 HMG 다 준 것 알지?

정영학 아, 그건.. 예.

김만배 다 줬어. 그리고 30 몇억은 정일천이 용역비로 주고, 40 몇억은 형이 회사에서 빌려서 성문이 주고.

정영학 그럼 그것도 해결이 다 됐는데.  
그런데 이걸 큰 평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반대.  
그다음에,

김만배 이득을 나는 15% 줬거든, 형이. 성문이 15, 완범이 15.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진양의 10, 심종진 10 해결해. 나머지는 내가 50%로 직원들 해결할게. 응? 그래야지 욕심 못 내게. 어떤 놈도. 응?

정영학 대신 단서는, 큰 평형 하지 말자.

김만배 응. 아니 그렇지.

정영학 그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김만배 7층 할 수 있으면 고맙지. 응? 그런데 그건 안돼.  
공무원이 누가 목을 걸고 해.  
내가 그랬어. 남옥이랑 씨팔 정영학이가 알면 좋아하겠다. 이거 우리가 하나까. 다른 거 절대로 손 못 대니까. 응? 하여튼 니 얘기도 했어.

정영학 아, 왜요.

김만배 아니 아니, 이거 하면 우리가 일체 다른 걸 손 못대니까.



정영학 예.. 정재창이랑.. 예.

김만배 재창이는 남욱이하고 어떻게 남욱이하고 가니. 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응?

정영학 일단 제가 듣기로는 기업은행이 거기서 발을 뺀 것 같은..

김만배 위험하니까 그러겠지.

정영학 예. 그 (...)하고 이 대표가 밥도 안 먹고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바로도 식사도 안하고..

김만배 그 호반이랑 MDMD은 아니야.

정영학 그런데 보통 은행은, 이런 사람들을 할려면 이야기 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팔로업, 그 다음에 대한 사후처리, 그다음에 또 그 이후 변동사항들  
꾸준히 팔로업 해주고, 보고해주고, 이렇게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요.  
얘기했다가 안 되면 연락 툇 끊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았을까..

김만배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되게 많이 만난 게 아닌가 싶어. 남욱이가.

정영학 아, 욱이가요? 아..  
저도 아예 그쪽으로 안가니까요.

김만배 형이 지점장 뭐, 무지 많이 모아서.. 자신감이 붙었을 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거기서 애들이 간다고 (...)

정영학 예..

김 만 배 응? 이게 이게 (...)

정 영 학 저는 그 지난번 사업자가 팩스로 한번 선정이 된 적 있습니다.  
개들이 바로 소송을 넣을 걸로 보입니다.  
옛날에 선정 취소시킨 게 그게 무효다 라고 시작을 하면 오래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김 만 배 그거 재창이 작품이잖아.

정 영 학 아, 옛날에 팩스.

김 만 배 무효 시킨 것. 현재 남육이는 본부장하고..  
개네랑 육이랑 (...) 호반이랑.

정 영 학 대우, GS, 롯데. 큰 데들이거든요. 산업은행.

김 만 배 세네.

정 영 학 팩스, 산업은행, GS, 대우. 좀 쎈 데들이라. 롯데건설까지.  
좀 쎈 데들이라서요. 거기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김 만 배 재창이는 그걸 무슨 수로 이길려고?

정 영 학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길 생각도 없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한테..

김 만 배 아니, 글썄 내가 형이 나중에 (...)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형이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정영학 예..

김만배 성남시.

정영학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만배 아니, 지금도 만나.

정영학 예..

김만배 만나지 않고 완범이나 성문이가 쉽게 다니면서 이러구나 저러구나..  
다 뒤에서 밤에 길을 청소해주고. 응?

정영학 (웃음) 그렇죠.

김만배 길을 가게.

정영학 예.

김만배 장애물을 밤에 제거 다 하잖아.  
장애물 제거를 아주..

정영학 네. 그것도 모르고 다들..

김만배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남양주는 형이 아는 사람이 없어. 도시계획국장은 아는데. 응?  
개네들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영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역량이 안돼. 그리고 너무 비밀이 새 나가.  
민주당 애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최재성이서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하여간 따지는 새끼들 다 있어.

정 영 학 예.. 그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아니, 많이 벌면 좋은데.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만족합니다.

김 만 배 (...) 노력은 확실히 먹을 수 있을 때 (...)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삼성이 있잖아. 삼성물산이 이미 시작을 했잖아.

정 영 학 어마어마한, 옛날에 그 옛날에 범무실장 이상..

김 만 배 그럼. 이재용이 보증이잖아. 삼성전자 보증인데.

정 영 학 뿐만 아니라,

김 만 배 삼성의 모든 걸 제공 받는데. → 최재경 (전, 인천지정장)

정 영 학 네, 네. 인제는.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일단 잘 막으신 것 같습니다.

상임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다 형님..

김 만 배 응. 우리 고문들이잖아.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김 만 배 김기동. 김기동, (...) 다 우리 고문.

정 영 학 예. 아 그래서, 형님 쪽이신가. 같이 고민하신 건가.

김 만 배 같이. 우리도 같이.

정 영 학 그 라인, 형님 라인이지더라고요. 우와~ 드디어.  
사실 뭐, 형님이 사실 뭐 이 정도 일하실 정도는 아니신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게 계획이 있으신 건데.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영학아, 우리가 큰 걸 물어야 돼.

정 영 학 저는 그렇게 배꼬래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렇지.

정 영 학 아니 저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쪽으로 해야지.

정 영 학 형님이 다 참 대단하시다.

김 만 배 형이 영학이랑 같이,

정 영 학 감사합니다. 저야..

김 만 배

백현동 나오면.

정 영 학

네, 네. 삼성. 삼성 쪽도 주택사업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삼성 관련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 니네 회계법인도.

정 영 학

네, 네. 저희는 주택사업 쪽인데요, 한참 밑에입니다. 한참 밑에. 삼성하고 관계는 되게 좋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가자.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하여튼 간에 그 얘기는 전달해.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잘 먹고 갑니다~

종 업 원

감사합니다.

김 만 배

차 어디 있어?

정 영 학

옆에 있습니다.

↳ 산문동 아펜시움 1017동

김 만 배

입주는 안해도 왔다갔다 한다. 영빈관으로.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입주하면 나중에 (...) 영빈관으로.

입주라는 거는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영학 네. 회사 재산이랑 그냥 좀..

김만배 왔다갔다.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건 상관없잖아?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주민등록만 안돼있지.

정영학 주민등록 그냥, 업무. 형님 업무시설로. 거기서 회의도 좀 하시고.

김만배 그럼.

정영학 어차피 차입해서 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만배 응. 고마워.

정영학 연락드려야 되는데..

김만배 아니, 가.

정영학 하도 바쁘신 것 같아서.

김만배 아, 아니야. 아니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고민 한번 해봐.

117  
2020-6-17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이까짓 거. 야, 우리 이거는 여비 번거야. 기름값.

정영학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김만배 기름값.

정영학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형님.

김만배 기름값.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김만배 기름값 정도 가지고 그러면 되나.

정영학 아유, 아니 저는..

김만배 아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가~

정영학 예. 안녕히 가십시오. (끝)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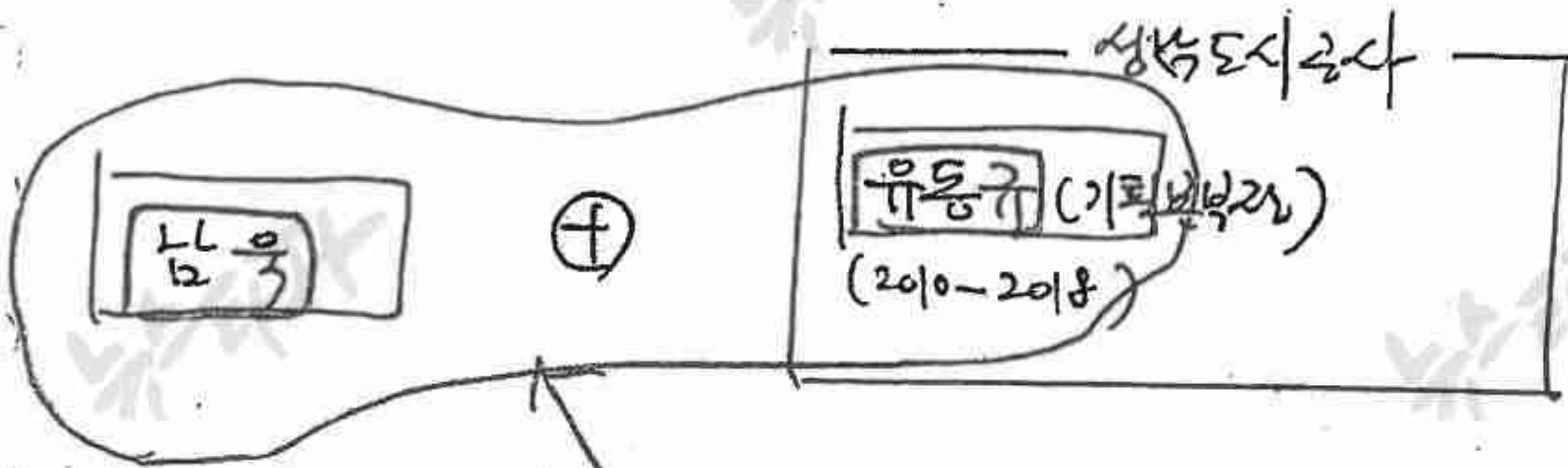
뉴스타파

뉴스타파



유차(로이) - 수정본

2020. 7. 2.



현바탕 [8-19], 100억 도구

"이기성이 유동규의 남부들  
친라고 현바탕을  
[8-19]

이기성의 남부에 대한  
녹음자료

[10차-6월] 현바탕이  
현바탕

100억  
↓  
50억

[8-19]  
[8-1]

이기성  
[(주)리광, 박영수 고개랑 의사촌]  
- 100억 도구 [8-1]

50억 도구 [8-2]  
[박영수 50억 약속 대가금  
(박영수)  
이기성에게 대신 달라고  
함]

김민배기라.

⇒ 김민배가 박영수에게  
받은 50억원은 박영수  
통해서 주리라고  
이기성 본인에게 달라고 함

- 이기성의 현바탕에 대하여

- 남부 15억
- ⊕ 주리 15억
- ⊕ 김민배 5억
- ⊕ 김민배 13억

은 48억 2300원  
[8-1]

- 녹음일시 : 2020. 7. 2. 16:00
- 녹음장소 : 판교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12:38 대화중, 37:23~)

김 만 배 (...)

정 영 학 이번예요? 시장 누가 (...) 딱 좋으네요.

김 만 배 그 상태에서 옥이가 얘기를 했대. (...) 그 만든 애들이 (...)

정 영 학 본인이 시작을 해보겠다?

김 만 배 그렇지. 그런데,

정 영 학 답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협박이고. 형님이 잘 막으셨죠. 정리를 잘 하셨죠.

김 만 배 이기성이는 이제 남옥이 15억, 조우형이 15억에다가 5억을 내가 (...) 13억을 줬는데, 우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이 한 10 몇억은 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서 그거를 회수했지. 그랬더니 그걸 또 회수 당했다고 남옥이한테 또 얘기했대. 응? 기성이 이 새끼 참 염치없는 새끼야. 그지? 동규가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 빌려준 돈 회수했는데 뭘 잘못됐니?’  
그런데 기성이는 옥이한테 그랬대. 100억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 그런데 그것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빌려간 돈을,

이기성

남옥



정영학

회수를 했다?

김만배

회수를 했다 이거지.

그 얘기를 기성이가 또 나중에 또 뭐 이러쿵 얘기를 해.  
너 거의 형이 얘기했는데, (...) 너한테 빌려준 돈 (...) 그리고 나한테 수현이를 돈 50억 주는 거를 자기를 달래.  
이기성이가 수현이를 차려주겠다.

→이기성

왜? 그랬더니, (...)

그러면 애초에 영수 형이 할 때 (...) 응? 지금은 그게 아니지.

니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현이를 주는데, 내가 수현이를 한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너 그런 얘기 형한테 하면 나쁘다고 그러지. 형이.  
그래서 생각을 했지. 하나로마트 (...)  
양정을 안하는 게 되잖아.

박수현

(박영수 고장랑의 딸)

정영학

형님, 양정 하면 제가 뭐를 할까요? (웃음)  
아니, 제가 각서라도 쓸까요?

김만배

아니야. 형은 왜냐면,

정영학

아니 형님, 진짜 뭐 합의서라도 쓸까요?

김만배

나는 우리 팀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

정영학

어디서 말입니까?

김만배

우리 이 대장동 팀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해. 우리가 뭐 할까봐.

정영학

걱정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걱정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전투력이 막강했죠, 형님. 형님이 일단 딱 뒤에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잘 뛰고. 아유, 막강이죠. 막강.

김만배      정영학 뛰고.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심지어 은행들도 진짜 안하냐고 물어볼 정도니까요. 이미 움직이려면 나오기 전에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어딴습니까.

김만배      그래서 인제, 어제 시에서 그..

정영학      제가 각서라도 쓸게요, 형님. 혈서라도 쓸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아니, 영학아, 형이 너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영학      예.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작년에,

김만배      HMG에서 포기했다니까.

정영학      그 시끄러운 이후에 아예 손을..

김만배      HMG에서 포기했다니까. 시장에 소문이 났어.

정영학 기업은행, 재창이가 하고 있습니까?

김만배 몰라. 나 신경 안 써.  
재창이는 누구랑 하고 있는 거야?

정영학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야, 남욱이한테 (...) 남욱이가 어찌 하는지 다 잘라 먹어가지고 징역 보내고. 업체 선정하는데 돈 받고, 또 이래 돈 받고.

정영학 네. 업체에서 받아먹는 게, 돈이 있으면 안 그러지 않을까요?  
돈이 있어도 그럴까요?  
일단은 뭐 양정은 절대 손 안 댈 테니까 하나로마트 끼어주십시오.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그래. 하나로마트는 내가 인제 팀을 어떻게 잘건지 그 고민을 해보자.  
왜냐면, 저거를 제안서를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정영학 뭔가 그러면 형님이 한번 모아서, 스타트해라..

김만배 응. 한번 얘기를 할게.

정영학 그다음에, 누가 주로 할 건지.

김만배 응. 어떻게 누가 하게?

정영학 형님이 결정하셔야죠. 형님이 방향을 딱 잡아주셔야,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누구 위주로..

김만배 내가 두놈한테 그랬어. '니네는 씨팔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면 성문이가 '절대 싸움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왜 없어. 그래서 이런 전력으로 무슨 오리역을 하나. 오리역은 실기했다. 이미 계

약을 해놓고 해야지, 시청에서 지구단위 만들 때 하면 그게 오느냐.

정영학 지나버리면..

김만배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이제 오리역은 아니다.

정영학 형님이 고민을 며칠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저는 서브로 재무 쪽은 정 회계사 검증을 꼭 받아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재무 쪽은 정 회계사가 맡고. 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님한테 충성 경쟁이 돼요.

김만배 아이, 무슨 충성경쟁이야.

정영학 아니, 어쩔 수 없.. 형님,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공을 뜨게 만들어야 되고 다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님이 방향을 조금은 정해주셔야, 역할을 나눠주셔야 싸움이 없어요.

김만배 그건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정영학 예.

김만배 왜냐면,

정영학 왜냐면, 이제는 맡아놓으면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잘할 것 같거든요.

김만배 분권을 해야지. 그리고,

정영학 예. 그래도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김만배 그런데 지금,

정영학 안 그러면 저 큰 프로젝트, 산으로 갑니다.



김 만 배 너, 재네들한테 맡겨놨다가 못해.

정 영 학 말도 안 듣고.

김 만 배 B1 가지고도 말 안 듣고, (...)  
내가 이성문 때문에.. 이 새끼 진짜 골치 아픈 새끼야.  
왜냐면 현대엔지니어링 본부장한테 직원들 평점을 건넸대.  
그래서 본사에서 엄청 혼났대.

정 영 학 평점을..

김 만 배 지 자의적으로. 52점. 그러면 짜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양완범이한테. 진양의랑. '너랑 나랑 가서 사과하  
자. 직원이 단독적으로 처리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사과해서 마무리  
해야지.'  
아무 사과도 없는 현장에 일해주는 사람도 미치겠는 거 아냐. 응?

정 영 학 맞습니다.

김 만 배 왜냐면, 이견이야 조금씩 있는 거야. 나무를 거꾸로 심든 (...) 균기 좀  
잡고 설계변경해서 잡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싸움했든 저기에서 싸움  
했든 무슨 상관이야 있어. 화천을 사이에 두고. 응?  
2017년 계약으로 하는 것 (...) 2020년으로 그거를 평가해서 붙이면 깔끔  
하거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정 영 학 맞습니다.

김 만 배 여기 이 사람들 (...) 사람들인데. 그런 평가서를 본사에..

정 영 학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좀..

김 만 배      그래.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정 영 학      아예 사업에 대한 총괄을 누구, 그다음에 누구, 누구 딱 정해주시고,  
서로..

김 만 배      니가 생각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 왜냐면 너랑 나랑,

정 영 학      형님, 저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김 만 배      아니 왜냐면, 골치 아픈데, 너 땀에 그래.

정 영 학      제가 왜요?

김 만 배      너무 처음에 성문이를 (...)

정 영 학      예.. 저는 아니고, 그냥 일 열심히 잘..

김 만 배      그래서 성문이가 너무 독재하니까. 급조를 할려면 아예 하지 마. 응?  
(..)부터. 그러니까 일을 모르는 게 없이 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아예 현장 일은 양완범, 이렇게 정리를 (...)

정 영 학      형님, 그거는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형님, 저야 초창기에..

김 만 배      니가 회장이었지 이 새끼야 내가 무슨 회장이었냐? 아무 관여도 안했지.

정 영 학      형님, 저는.. 사업에 대한 거는..

김 만 배      말만 회장이었지, 형이 (...)

정영학 아니, 아닙니다. 초창기에 전혀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일단 열심히 했고.

김만배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잘 해서 바꿔놔야 돼.

정영학 그거는 누구도 결정 못합니다.

김만배 아니, 그래서 내가..

정영학 형님이 결정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셔야 끝납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저도 결정 못해요. 전혀.

김만배 재무는 정영학한테 모든 결재를 받아야 되고.

정영학 그렇게만 해주시면 실수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수지 짜는 거나 이런 건 수지, 재무 관련된 사항은 정 회계사한테 검증 받아서 해라. 옛날에는 맡겼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맡깁니다. 해보고 싶을 겁니다.

이제는 옆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본인 힘으로 본인이 해보고 싶어합니다. 그거를 뺏어서 줄 수도 없습니다.

김만배 그러면 이제 주주로 들어와야 돼. SPC에.

정영학 아니, 저는 당연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든 일단 재무부분은 정 회계사하고 상의



해서 해라.

상의해서 하라 하면 상의하고 끝나요. 그럼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김 만 배      결재를 받아야지.

정 영 학      예. 가서.. 그다음에 두명 갖고 형님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김 만 배      예를 들어서 성문이는 여기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안 시키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부회장 줘야 돼. 그런데 뭐 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거 끝나는데 대표이사를 또 줄 수는 없잖아. 주식은 똑같이 주고.

정 영 학      형님, 그런 명분을 주십시오 그럼.  
그럼 대신 일에 대한 범위는요? 이성문 대표가.

김 만 배      다 정해야 돼.

정 영 학      예.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김 만 배      재무는 모든 결정을 하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공동대표 하는 것도 다 (...)

정 영 학      제가 보니까요, 형님이 되게 조직을 운영을 잘 하신 거거든요.

김 만 배      요새..

정 영 학      한 가지. 한 가지.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끔 '야, 그만해'

할 때도 토론을 해버릴 정도니까, 이제는 한번 어느 정도에서는..

김 만 배 성문이가.. 내가 그랬어, 성문이한테. '너는 잘못된 거야. 왜 B1을 바깥에 나가서 상의를 해. 안에서 여기 테이블에다 놓고 해야지 애들이 너를 믿지'

정 영 학 그런 것도 형님이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김 만 배 얘기를 할게, 내가.

'너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너에 대한 영이 안 서는 거야. 조직의 수장이 왜 일을 바깥에 나가서 해. 정일천하고 안에서 하면 되지'

정 영 학 그런 것도 형님이 하지 말라고 막으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 만 배 그래서 요새 B1도 어떻게 하면은 (...) 그랬으니까, 성문이가 원하는 거를 다 (...) 21세기 평가위원회 그것도 안된다고 조용히 냈어. 칠 칠.. 아니, 시하고 (...)돼서 안돼. 개가 그런 것..

정 영 학 그런 것도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김 만 배 그런데,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지네끼리 토론했는데, 성문이가 언제까지 달라, 저기를 달라고 그랬대. 기회를. 그런데 그것도 안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대형을 넣으면 죽어.

정 영 학 형님, 그거는 저도..

김 만 배 그것도 안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정 영 학 그거는 형님이 '중대형은 넣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김 만 배 응. 그건 아예 안된다고 그랬지.

정영학 방향을 그렇게 잡자 하고, 이거는 사업의 수익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나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형님이 방향을 정해주십시오.

김만배 그렇게, 그렇게 해서 (...)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정영학 민감한 거는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김만배 아니, 해줬어 그거는. '중대형은 넣지 마'

정영학 예. 됐고요.

김만배 그런데 최초로 분양 받을 때 그래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  
안되면은 포기해.

정영학 안되면 다시 뭐..

김만배 그리고 내가 이득은 다 니네들 줄게. 형이 회장 하다가. 대신에 PM 수수료 만큼 세금 정도만 처리해주고 니네들이 다 가져가. 그리고 필요하면 골프장도 생각해봐.  
그런데 골프장은 안돼. 왜냐면, 애들이 자꾸, 밤에 자꾸 술을 마시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영학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외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 하나.  
형님 너무 민주적이셨죠?

김만배 아니, 나는 너한테 그랬어.

정영학 아, 저요?



김 만 배 왜냐면 형은 (..)

정 영 학 B1은 저는 전혀 관여를 할..

김 만 배 그래. 그래서 B1도..

정 영 학 어느 순간 빠져있었기 때문에..

김 만 배 응. B1도 나는 너 뒤에서 상의하는 줄 알았더니,

정 영 학 아니, 안합니다.

김 만 배 저놈이 정일천하고 상의해서.. 처음 들은 거야, 너한테.  
SPC를 만들면 자기 앞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 애들 모아놓고.  
이 SPC의 주된 수입을 대변해 나가는, 대부분 화천대유 같이 (..),  
화천대유나 회사의 주식은 당연히 주식을 해야 돼. 그지? 그래야지 많이  
(..)  
그런데 요번에 하나로마트 때는 똑같이 회사를 상식 (..) 수익은 그렇게  
나누잖아. 선 배당이 됐든 후 배당이 됐든. 응?

정 영 학 어차피 뭐 이걸 절대 많이.. 형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  
각입니다. 직원들한테 하나로마트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먹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기대가 너무 커져요. 이렇게 어차피,

김 만 배 아직 이성문이고 양완범한테 얘기 안해.

정 영 학 조금 주십시오. 조금. 이거는 책임지고 끌고 갈 오너는 있어야 되고요.

김 만 배 나는 이렇게 할라고 그래.

정 영 학 그다음에, 직원들은 조금만 주셔야 돼요.

김 만 배 너 20% 주고.

정 영 학 형님, 절대 그건 낭비예요.

김 만 배 아니 아니, 내 생각을 들어봐.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어.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너 20% 주고.. 너 그럴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라고 그랬어.  
20% 주고, 이성문 10, 완범이 10, 이렇게 줄라고 그랬어. SPC.

정 영 학 그..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직원들 많이 주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주셨다가,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뭐 저는, 저도 조직을 조금..  
진짜 머리 굵은 애들은 해보니까요, 처음에 조금 줬다가 나중에..  
지금 5 준다 했다가, 나중에 1-2 더 주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지금 20, 10 쥐놓으면 같이 생각합니다.

김 만 배 그래서 이렇게 할라고. 이렇게.

정 영 학 지금은 형님, 조금만 주셨다가..

김 만 배 비용은 화천대유가 내는 게 있고, 대신에 SPC에 들어오는 주주들의 그 주  
주 납입금은,

정영학 각자 내고요.

김만배 각자 내고. 10%면 10% 만큼 내고, 20%면 20% 만큼 내고.

정영학 형님, 좀 더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너 말 들을게.

정영학 예. 좀 더 줄이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주는 거는 진짜 3%, 5% 요 정도가 좋죠.

김만배 그러면 너 오기 전에도 (...)하고,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정영학 그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형님 지분 중에서 다른 데 줄 때도 있고,

김만배 응.

정영학 나중에 잘했다 1%씩 더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지금 20% 쥐놓으면 나중에..

김만배 너는 20% 쥐야 돼.

정영학 저도 절대 필요 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영학아,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정영학 절대 처음부터 많이 쥐 놓으시면 나중에..  
옛날에도 보면 형님, 지분이 커 놓으면 진짜 뭐..



김 만 배 돈이 좋을까, 지분이 좋을까?

정 영 학 지분을 개인적인 생각에는 돈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분이 있으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김 만 배 왜냐면 그 정도는 해야 돼.

정 영 학 지분을 주신다 하더라도 5% 이내.  
왜냐면 20%, 10%씩 나눠버리면 또 형님, 그건 과합니다.

김 만 배 오케이.

정 영 학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김 만 배 오늘 저녁에 생각을 좀 해.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리고 그거를 동의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 (...)  
그리고 니 얘기, 오늘 나하고 한 얘기는 성문이한테 하지 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형님이 그거는 끝나고 직접 실행하실 때  
이야기 하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미리 해놓으시면 이제 이미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이 아무  
리 잘해줘도 불만이 있는 겁니다.

김 만 배 기자들하고 틀려.

정 영 학 형님이 마음이 너무나 착해서 그렇습니다.

김 만 배 기자들하고 틀려. 기자들은 처음에 정해놓고서 딱 하는데.

정 영 학 그런데 인제, 형님이 어떻게든지 직원들 잘해주고 싶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어떻게든지 많이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너무 착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기대보다 적으면 실망이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시는 정도에서 끝내는 게..

김 만 배 하여튼 너 지분도 많이 관련 있으니까.

정 영 학 아이, 아닙니다.

김 만 배 그런데 (...)

정 영 학 예. 저는 정재창이 요새..

김 만 배 (...)?

정 영 학 아닙니다. 학을 떼어서 양정은 아예 그쪽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김 만 배 개네들 분석은, 개네들 분석을 얘기해줄게. 형이 누구한테 들은 개네들의 분석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개네들이 이런 분석을 한대. 소문은 이성문이와 동등관계래.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분석을.

MDM 하는데, MDM 회장이 정영학하고 이익을 공유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성문이는 HMG를 통해서 MDM하고 연결이 된 거고.

정영학 시나리오입니다.

김만배 아니, 그런 얘기야. 그쪽의 분석이.  
나는 그렇다.

정영학 예.

김만배 남욱이를 본 게 지난달에도 봤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MDM하고 끼고 싶겠지만 MDM에 대해서..

정영학 그쪽에 뭐.. 예.

김만배 형이 들은 얘기야.

정영학 예. 전혀..

김만배 아니 아니, 그냥 하든 말든 형은 상관 안해. 형은 데리고 갈 거고.

정영학 아니 형님, 하든 말든이 아니라, 형님이 저기하면 안 끼워 주신다면서요?

김만배 아니, 아니라니까.

정영학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 무섭잖아.



정영학 그럼 형님, 괜히 그러면 소문만으로도..

김만배 아니 아니, 본인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정영학 실제 안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 대표도 맨날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저한테. 형님..

김만배 그런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시장이 얘기해.

정영학 그거는 옛날에 저기가 돌아다니면서, 남, 그 팀이 돌아다니면서, 대장동 팀이다 하고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김만배 그래. 남욱이..

정영학 거기서 형님, 여의도 어디 뭐 키움증권 백동흠이 만나고 했을 때,

김만배 아니,

정영학 우리는 언제든지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끝나면 다 데리고 올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회계사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 다 백███이 이야기를 (...)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도 뭐, 그 사람은 일을 좋아해서 절대 일 그만 안들 거라고,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한번 잡은 일 안 놓습니다.

김만배 백███이가 그랬대?

정영학 예. 한번 잡은 일 죽어도 안 놓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뒤에서 할 겁니다 까지 했다가, 제가 이 대표한테다가.

김 만 배 너는 위험한 건 안하잖아.

정 영 학 안합니다.

김 만 배 그래. 안되지. (...)

정 영 학 저는 그냥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정재창이 낀 건 안할라고..  
저를 협박하는 것 보십시오.

김 만 배 정재창이한테 (...) 그 정도면. 너는 (...)  
동규한테 그랬어. 동규야, 형은 너를 보호해줄라고 그래. 그런데 차용을  
누가 (...) 재창이 돈 안돼. 재창이도 돈 없어. 형 생각과 개 생각과 (...)  
그런데 문제는,

정 영 학 아. 그러면 최근에 '유' 랑 남옥이랑?

김 만 배 개네들 수시로 만나잖아.

↳ 유동규 + 남옥  
정 영 학 남옥이랑,

김 만 배 남옥이랑 만난다는데 (...)  
왜냐면, 이기성이가 유동규랑 남옥이를 칠라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내놓은 거야. 맨 처음에. 그랬다는 이야기야. (...)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애초에 그쪽을 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대든 거지.  
그래서 형이 그냥 옥이 손을 잡아줬지.  
그래서 그때 100억원은 안되고 50억 정도 선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상의를 했었지. (...)  
그래서 경기도에도 소문이 들어간 거야. 남옥이가 저거를 한다고 나갔는데 (...) 성문이 잘못되면 누구 (...) 그런 얘기야.

\* 이기성  
북문자본  
[103화-63]

정 영 학 변호사가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는..  
그게 오해가 변호사가 돌아다니는 거가 이성문 대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김 만 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

정 영 학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래가지고 남욱이한테 경고를 해야 돼.  
개네들이야 원래 총알받이지.

정 영 학      총알받이죠. <sup>애도</sup> 바보인 게, 정재창이의 총알받이예요.

김 만 배      그런데 그걸 왜 하냐고. 처음에 나한테 얘기해서 '해봐'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지네들끼리 얘기가 다 된 건데 뭐.

정 영 학      제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닌데.

김 만 배      그런데 너하고는 왜 안한 거야? 정재창이하고. 왜 안한 거야?

정 영 학      대장동 이익 숨겼다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대장동 이익을 숨겼다고.

김 만 배      대장동 이익을 숨기기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프로젝트에 소속돼 있는  
데, 이만큼 배려해줬는데. 그리고 추가도 냈고.

정 영 학      추가적으로 돈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죠.

김 만 배      하나로마트는 나는 개네들 안 낀다.

정 영 학      거기에 들어오면 저는 안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만 배 나는 너가 데리고 오면 안할라고 그랬어.

정 영 학 형님, 저 진짜 안합니다. 일단 뭐.

김 만 배 아니, 왜냐면 너 하면 그 개새끼들이 (...)

정 영 학 형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김 만 배 내일 다시 얘기해. 골프 언제야, 내일?

정 영 학 내일 1시 48분에..

김 만 배 내가 저녁에.. 저녁에..

정 영 학 형님, 그런데 1시 48분이면.. 저기입니다.레이크우드입니다.

김 만 배 아. 그러면 월요일날 봐. 월요일날 (...)으로 와.  
근데 시간도 없대. 빨리 해야 된다니까.

정 영 학 월요일날은 남서울 12시 42분. 화요일날, 화요일날이 쏘모르 6시 52분,  
수요일날은 나비(...). 죄송합니다. 거의 뭐..  
월요일날 저녁도 괜찮고요. 화요일날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김 만 배 월요일날 6일날?

정 영 학 예. 저녁 괜찮습니다. 저녁에. 저희가 삼일에 부대표 하는 친구인데요.

김 만 배 몇 시에 끝나?

정 영 학 12시 42분이면 6시, 7시, 8시면 충분합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여기서, 니가 시간을 봐. 한 9시정도 봐.

정 영 학 한 8시 정도 할까요?

김 만 배 8시에.

정 영 학 제가 중간에 그러면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김 만 배 밥 먹고 올 거야?

정 영 학 밥 먹고 올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래, 그러면 전화를 해. 월요일날.

정 영 학 예. 여기가 다 70대.. 아니, 80대 치는 애들이라..

김 만 배 그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저것 대장동 이.. 성문이는 대장동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못 시켜.

정 영 학 그건 형님이.. 저는 의견 없습니다.

김 만 배 왜냐면 방법이 없어. 왜냐면, 대표를 (...)대로 두번 시킬 수가 없어. 대표로 너 대표이사라도 안돼.

정 영 학 예. 아니 그건 형님이 결정하십시오. 그거는 오로지 형님이 결정하십시오.

김 만 배 그래. 대표로 완범이 대표이사 시키는데 그렇게 두면 안되니까, 부회장을 시켜야 돼.

정 영 학 그건 형님이 고민하십시오. 조직에 대한 거는.

김 만 배 그렇게 할라고 그래. 형은.

정영학 그다음에, 형님이 정하신 다음에, 그건 다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토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만배 아니, 너하고는 얘기해도 되잖아. 너가 주주로 참여하잖아.

정영학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의..

김만배 형은 너에 대한 배려야.

정영학 네. 저야 뭐..

김만배 존중이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형은 너를 존중해.

정영학 아유, 저야 형님 진짜 이거 뭐..

김만배 아니, 너에 대한 존중이 있어.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저야 잘 해주시는데.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리고 주식은 20% 이상 가져가는 걸로.  
그런데 납입금은 니가 내. 비용은 같이 들어가고.

정영학 네. 그거는 형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거는 그래.  
가자~



정영학 네.

김만배 회사 가서 이성문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정영학 (웃음)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이, 미안해서.. 그러면서 진양외한테도 같이 가자고 사과해야 돼.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치우겠습니다.

김만배 그러면 안되는 거 아냐? 솔직히. 그지?

정영학 아, 예.  
고맙습니다.

종업원 감사합니다.

김만배 사고 없이 현장을 해주는데, 52점짜리를 그렇게..

정영학 (웃음)

김만배 그러면 되겠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예. 형님, 접니다. 예. 형님, 접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응, 응, 응.  
형, 내가 5분 있다 전화할게. 예)

정영학 통화 하십시오.

김 만 배     아니 됐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전화 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를 이게 우리가 성남에서 흐르는 마지막 추수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여기서 더 이상 뭐를 하니.

정 영 학     큰 거죠. 하나로마트는 정말 큰 겁니다.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분명히 제안서, 다른 놈들도 들어올 거야.  
그런데 내가 하여튼간 작업을 할테니까.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됐지?

정 영 학     예, 형님.

김 만 배     가. 잘 가.

정 영 학     예, 들어가십시오. 예.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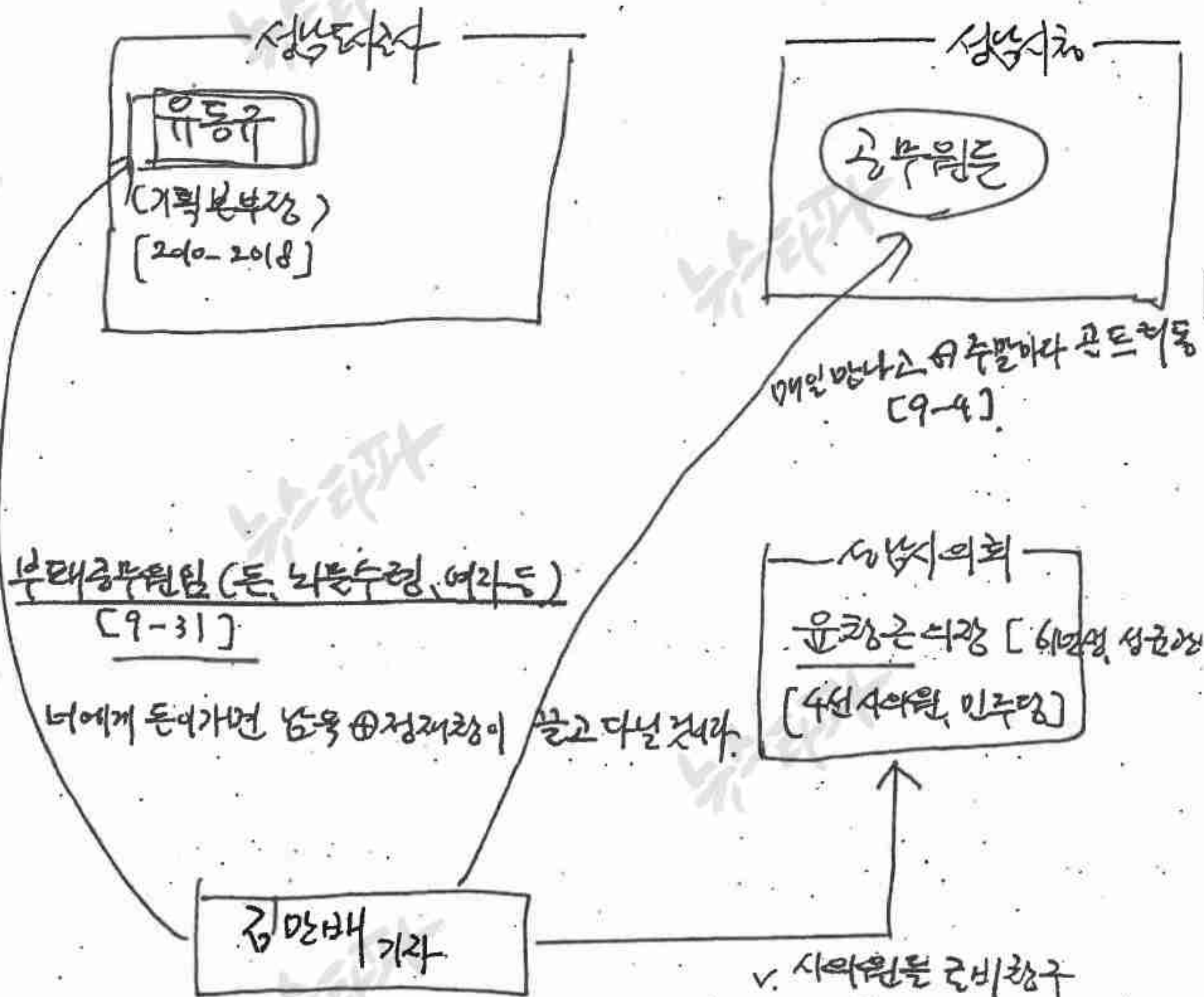
수정완결

9.10.11

(8/23)

9차(은악)-수정본

2020. 7. 6.



매일 밤나고 쉬 주말마다 폰트처럼 [9-4]

부태공무원팀 (돈, 나쁜수령, 여라등)  
[9-31]

너에게 돈이 가면 남쪽 ⊕ 정재량이 싹고 다닐 것이다.

김만배 기자

시의회  
윤창근 의장 [6년성, 성권장]  
[4선시의원, 민주당]

✓ 시의원들 준비장구 [9-28]

✓ 윤창근 이야기하면 김만배 김역간다. -보안유리 [9-22]

남쪽

-전설이 전혀 없는데 [9-5]

정재량  
(공작, 정재량)

-정재량이 가랑 등려위하고, 직으로 새겨놓는 사람은 정영학이다. [9-14]



9차 (특정)

- 녹음일시 : 2020. 7. 6.(월) 20:30~
- 녹음장소 : 판교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14:56 대화중, 6:37~12:30)

김 만 배 저거는 (...) 하고 싶은데, 농협이 아니야. 농협하고 해결이 안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농협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정 영 학 아이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맞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 추진을 내가 이제 농협하고 (...)할 테니까.

정 영 학 네,네. 외부에서는 준비 좀 하고 계시는가요?

김 만 배 아니야. 우선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 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준비는, 그렇다고 지금 시장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어떻게 제안을 해.

정 영 학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주에 대법원 선고한다고..

김 만 배 응. 처음에는 임기를 계산해서 (...) 20억이 나온대.

정 영 학 선거자금 토해내는 거요?

김 만 배 돈이 없다는데.

정영학 선거법에서 지기만 하면 완전히 비용 때문에 신용불량 되더라고요.

김만배 그렇다고 (...) 불러서 뭐 하기도 그렇고.

정영학 아무것도 안해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여자 행정가의 문제점은 리스크를 안 집니다. 국세청 직원이든, 여자 사무관, 여자 심판원, 심사관을 만나면 아주 죽습니다. 조사관 만나도 죽는 거고. 여태까지 여자 삼.. 심판 갔을 때 담당이 여자면 포기하고 소송 갑니다.

김만배 최근에 태광 것 세금 내 후배 통해서 해결해줬는데, 태광, 티브로이드 판거. 그런데 잘했는데, 그 밑에 한 애가 계속 끝까지 그러는데, 청장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정영학 요즘은..

김만배 그래서 이제 태광 그거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좌우지간 영학이는 같이 해, 나랑.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 아직 있어?

정영학 네.

(잠시후)

정영학 스타트는 언제부터 하십니까?

김만배 아니,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농협 저기를.  
여기 낙생농협 회장이 농협중앙회 회장이잖아.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거기도 내가 옛날에 도와줬거든.

정영학 네, 네. 그것도 (...)입니다.

김만배 응. 그래서 우리 회장 신탁으로 준비하고 있어.

정영학 거기 GTX 노선이 서면 좋겠다고 어디 언론에랑, 국회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은 있다고..

김만배 하나로마트?

정영학 네. 하나로마트.

김만배 그거를 (...) 하는 사람이 (...)인데, 그런데 농협을 못 틀어. 농협은 서 회장 쪽 사람이야. 낙생농협 정 이사를 (...)

정영학 네..

김만배 밥 많이 먹었는가 요새 배가 나오네.

(17:16~40:00)

김만배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법. 하기 싫은 소리를 쉽게 하라. 직원들한테나.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 야, 내가 니네들 돈 많이 줬는데. 현찰이 가 뭐 현찰로 만들어줬는데. 야, 내가 직원들 돈 많이 줬는데. 본인 돈은 너네꺼냐? 본인들 돈이 되는 거고. 꼭 공무원들 접대에서는 카드로 해. 현찰로 왜 많이 쓰냐. 그러면 카드는 나중에 입증해야 된대. 야 새끼야, 그 많은 카드를 국세청이 누구랑 썼냐고 다 물어보니? 현찰이 더 위험하지, 새끼야. 현찰은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줄 텐데. 내가 비자금을 만드니 뭐하니. 내가 현찰을 돌리는 건데. 그냥 카드 써, 임마.



그리고 공무원하고 골프 칠거면 새끼야 누구랑 친다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성문이하고 양완범이하고 진양희가 한달에 일곱 번 정도치고, 나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시청 사람들하고 공 쳐야 돼. 그러면 말이 되니, 새끼야? 응?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많은 시청에 공무원이 어디 있어? 응?

야, 내가 저녁마다 만나고 주말마다 시청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공치는데, 니가 또 데리고 가니? 그건 말이 아니지.

나는 임마 일주일에 한번만 카드 써. 그리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는 건 내가 나는 내 돈으로 쓴다. 내 회사지만.

애들 돈 많이 줘. (...) 싫은 소리 나는 쉽게 해. 성문이한테도 (...) 얘기하고. 회사에서 돈 빌려서 현금을 쓰고 싶다느니. 그러면 배당 줄게. 세금이.. 지금 세금 안 낼 방법이 어딴어.

그리고 나중에 나는 화천대유는 박현덕 대표이사, 천화동인은 이한성 대표이사 페이퍼컴퍼니 만들 거야. 그리고 니네들 사표 받아서 다른 법인으로 줄 거고.

난 쉽게 얘기해. (...)

너도 쉽게 얘기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야지 직원들도 오해를 안 사고. 아, 저 사람은 업무스타일이 그렇구나.

정영학 제가 그게 좀 안 됩니다.

김만배 내가 욕이하고 재창이하고 니가 상대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정영학 길어지죠.

김만배 여기 가서 이만하게 해결하더라. 왜냐면, 총체적으로 해결할 건 요만한데. 왜냐면 참아서. 그리고 감정을 누르고. 막 해야지 감정이 뒤로 간다.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 해야지 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 배워야 됩니다.

김만배 내가 영학이 욕 막 해도 별 것 아니거든. 처음에 씨팔 어찌고저찌고 해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굴러가면은 되게 최고 커지거든.

정영학 지내놓고 보면 형님 해결방식이 맞습니다.

김만배 남욱이는 진실이 없는 애야. 모든 사람한테 진실이 없어. 응? (웃음)

정영학 (웃음)

김만배 진실이 없어.  
A11도 내가 너한테 처음에 그런 게 아냐. 그 새끼가 나와서 지가 그런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싸움을 하냐고.  
나는 어차피 하나씩 받은 거 개네들도 준 거야.  
그런데 지가 징역 갔다 와서 A1,2에 20%를 더 받고 싶대.  
그런데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거는 분란 생기지.

정영학 네..

김만배 안 된다고. 거기서부터 영학이 형은 A11에 돈을 많이 가져가고 뭐..

정영학 가져간 거 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형도 잘못이지. 열 번 얘기하면 귀가 열리거든. 응?  
'아 그래? 그러면 그 새끼가 그러면 김우희 그렇게 된 거야?'

정영학 (웃음)

김만배 이렇게 돼서 시작이 돼.



그런데 두 놈이 와서 덤비러 왔는데 애는 A11 얘기를 왜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그 새끼보고 그랬어. 야 이 새끼야, 니가 지랄한 거잖아, 처  
음에. 이런다고. 응?

정영학      인제 뭐 그것도 그때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셔서 빨리 처리한 겁니다.

김만배      그럼~ 빨리 얘기해야 돼. 감정을 섞어서 (...) 직원들한테도.  
토요일날 내가 성문이한테 보자고 그랬는데. 야 이 새끼야, 너만 빼고,  
너하고 완범이하고 니네들은 우리 회사에 최대 문제들이다.  
모든 직원들 있는데.

정영학      (웃음)

김만배      아, 전혀 그렇지 않대. 물어봐, 새끼야. 병채한테 물어보고, 니 친구한  
테. 현덕이한테.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고 할게. 니네 둘  
새끼 다 (...) 현덕이는 새끼야, 이 새끼야 슯놈들 자존심 때문에 회사가  
있고.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물어봐 그러면.  
자기가 고치겠대.

그리고 내가 그랬어. 야 이 새끼야. 현장에 사고 하나 없이 그런 현장인  
데, 그런데 공사 못한다고 유 상무가 문서를 새끼야 본부장한테 주면 그  
사람 자르라는 얘기지. 그러면 너 이 회사에 왜 불경도 드리고 제사를 하  
니? 불경스럽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한 건데. 그래서 직장 찢리면 어떻  
게 할래? 응? 최 소장 같은 경우는 (...) 그런다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문  
제 있으니까 다음에 일 안 주면 옷 벗어야 돼. 젊은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해. 말로 최 소장한테,

정영학      뭐라 할 수는 있어도.

김만배      뭐라 할 수 있어도, 문서를 주면 안돼.  
그리고 문서를 새끼야 너가 받아가지, 양완범이가 받아가지, 진양익이 받  
아가지. 응? 왜 보고도 안하고 이 새끼 이거. 응?  
그리고 임마 잘못하면 새끼야 너, 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너하고 나하고



구속이야 입마. 응? 너, 사고 없이 이 새끼야 여기까지 했으면 정성 들이면서 맨날 해야지.

정영학 인명사고 없이.

김만배 그리고 돈 좀 더 주면 어때.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 그러는 거지. 원래 큰 거는. 응? 그러면 추가공사비. 완범이한테도 내가 시켰어. 너 하라고. (...) 그런데 그런 것 꼬집어 (...) 내가 먹니, 완범이가 먹니? 응?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면 병채가 이 물을 갖고 물이 내려주고 있나 보고 있는데.

정영학 (웃음) 예.

김만배 내가 병채한테 맨날 보고 받고 있다. 그래 그 물이 잘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애는 이래. 아, 이쪽은 공무원하고 잘 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저쪽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애들이다. 그래서 말을 쉽게 해야 돼.

정영학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특히 (...) 오래 가져가면 안 돼.

정영학 제가 원래 버릇이 그냥 중립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 의미인지 저 의미인지 잘 모르도록 많이 합니다.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김만배 아니, 말을 쉽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야지 감정이 안 나. 그런데 이걸 묵혀두면 감정들이 막 나. 그러면 감정이 서는 거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해결이 잘 됐습니까? 양 전무하고 이성문 대표하고.

김 만 배      응. 그런데 양 전무가 깊이 생각이 있더라고. 성문이는 ‘예, 예’ 는 하는데, 내가 보니까, 성문이는 ‘예예. 형님 (...) 별로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  
그런데 재네들 저렇게 융화 안 돼도 사업 못해. 무슨 사업을 해.  
재네들 데리고 (...)

정 영 학      아니 그런데 초창기는 들이 잘 맞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맞았다기 보다는, 내가 볼 때는 갈 길이 바쁘니까..

정 영 학      정신없었죠. 고민할 틈이 없었죠.

김 만 배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  
너는 임마 새로운 걸 신경 써, 이 새끼야. 자료를 봐가면서. 성남의뜰 (...)  
응?  
니가 (...) 기둥이 무너지고 약속까지 한 마당에 (...) 신경쓰지 마라. 응?  
그리고 (...) 우리가 이렇게 빨리 준공해주십시오 (...) 응?  
우리가 여태 돈 그거 몇푼 아낀다고 회사에 뭐가 올는지. 100억 아껴서, 그래. 100억 아껴봤자 50억 아끼는 거여. 그러지 말고 나중에 잘못 터지면 그 이상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흘러가게 해. 응? 그 물을 누가 먹니?

정 영 학      돈 좀 쓰시더라도 준공 빨리 나는 게 좋은 일이고요.

김 만 배      완범이 생각이 맞는 거야. 공사비, 추가공사비 주더라도 준공 빨리 내고 사고 없이 허가.. 그리고 공무원 유착된 놈들이..

정 영 학      그건 뭐..

김 만 배      그럼. 흘러 들어가게. 우리가 돈 줄 거야? 개네들이 돈 쥐야지.

정 영 학      일단 저는 뭐 그걸 떠나서, 빨리 준공이 돼야..



김 만 배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인제,

정 영 학

들이 회의 때 대화 자주, 내지는 평상시 때 대화를 잘 안하나..

김 만 배

그런데 내가 경고했으니까. 두놈한테.  
내가 그랬어. 내가 진짜 니네들 믿고 씨발 오리역을 하니? 하나로..  
아유, 내가 안한다. 내가 그랬어. (...) 시스템이 훈련되기 되기 전까지.  
내가 영학이를 불러서 한다. 씨~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형님, 저는 소문으로 많이 냈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소문으로 많이 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

김 만 배

아니, 너는 형이랑 하나로마트 해.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래서 20% 가져가.

정 영 학

아니, 그거는 형님,

김 만 배

아니 아니, 하여튼간 그런데 20%로 정해. 그래서 아무리 적어져도 15% 이  
상은 가져가. 왜냐면,

정 영 학

저는 딱 그 반 정도면 좋습니다.

김 만 배

안 그래. 형은 처음에 이만큼 줘야 될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조금 주면  
아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충분히.



정영학 기존에 형님이 많이 주셔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서 동규 만나서 '동규야, 너 시장 하지 마'

정영학 네, 맞습니다.

김만배 니가 이것 만약에 (...) 일을 했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남욱이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 씨팔놈아 너하고 (...) 형이 너 둘은 할거야. 그런데 시장 가면 (...) 그래서 양완범이가 남욱이한테 휘둘려서 분명히 잘못된다. 하지 마라. 그러면 형은 하나로마트는 누구랑 할 거야? 남욱이 미워하는데. 정영학이랑 할거야? 그래서, 형은 영학이랑 하지.

정영학 저는 (...)

김만배 응? 영학이랑 나는.. 그러니까 남욱이가 그랬대. 만배형은 영학이 형만 편애한다고. 최근에도 그랬대. 돈 문제 가지고 (...) 만나서. 응? 그래서 동규가 그랬대. 너도 정영학 회계사만큼 저기하면은 실력을 보여줘. 신뢰를. 응? 만배형이 왜 정영학 편에 서 있느냐. 근본은 흔들지 않고 해치지 않고 있는데, 너는 근본을 흔들라고 그랬대매. 응? 그러니까 (...)

그런데,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가 무일푼에서 이거 협력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응? 이거를 (...) 지금 또 시작인데. 응?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면 남욱이는 바보 같은 놈이래. 만배형 옆에서 (...) 해주고 있으면 만배형이 버리겠냐고.

정영학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옆에서 조금 조금씩 오래 가자

하셨는데..

김 만 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받을 갈아 가는데 씨앗 뿌리면 되지, 뭐 하러 밭 가니? (...)

나는 영학아, 같이 갈 거야. 너랑.

내가 욕해도 화나서 욕한 거니까 이해해.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진짜 조금만 주십시오. 너무 많으면 부담돼서..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부담이 아니지. 나는 또 니가 더 준다고 그래도.

정 영 학 아니, 아닙니다. 반 정도면 좋겠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20% 정도 주고.

이제 성문이하고 완범이하고 잘 되면 그 새끼들 10%씩 지분을 주든, 아니면 수익금을 줄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오늘도. 야, 내가 법인을 만들라는데, 개인이 받아가나 법인이 받아가나 똑같은데, 나라가 계속 쉽냐? 내가 그랬어.

야 임마, 개인이 받아가면 반이지만, 법인이 받아가면 20 몇%는 또 법인에서 개인이 받아가려면 또..

정 영 학 가져올라면 문제죠.

김 만 배 그래서 그냥 나 같으면 법인 안 만들고 개인이 가져가. 응? 분양 했지만. 응? 개인이..

정 영 학 이번에는 형님은 개인이 들어오십시오. 왜냐면요,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이쪽 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좀 세금을 받아서 내시고 상환



을 하면 이중으로 이익이죠.

김 만 배      그래. 그래서 하여튼간 내가 우선은 밀작업을 할 테니까, 너는 제안서 만  
들 생각을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저쪽에 불난 동네에 (...)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하자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리고 저 새끼들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정 영 학      아, 예.

김 만 배      내가 하라고 그래도 안할 거야. 기분 나빠서.

정 영 학      저도 그렇게까지, (저) 자살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애들한테..

김 만 배      그게 무슨 얘기야?

정 영 학      정재창이가 저 자살할 때까지 괴롭힌다지 않습니까.

김 만 배      니가 한마디를 안해서 그래. 해야 될 말을.  
그런데 왜 재창이한테 그렇게 관대해?

정 영 학      저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관대한 게 아니라요, 재창이랑 같이 싸우면, 옛날에는 잃을 게 없는 사람



입니다.

김 만 배      지금은 있잖아.

정 영 학      지금은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상대가요..  
형님은 사실은 진짜 뭐 기자.. 형님은, 있는 사람은 심하게 안 싸우거든  
요. 적절히 물러나실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싸우면 그냥 막 나가기 때문에 피해버려요 그냥.

김 만 배      그런데 개는 반대야. 그러면 안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 보수적으로 할랍니다.

김 만 배      그리고 남욱이는 모두에게 진실해.

정 영 학      그런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모두에게.

정 영 학      예. 저도 이번에 고생 좀 했습니다.

김 만 배      나는 욱이 저쪽에서 뛰는 얘기 다 들었거든.

정 영 학      어디..?

김 만 배      남양주 얘기.

정 영 학      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재창이 혼자 뛰니까?

김 만 배      그러겠지. 그런데 옥이는 걸으로는 모르지. 안한다고 하고 그거 할 수도 있지. 재창이는 포기 안했고.  
재창이가 가장 무서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 회계사라고.

정 영 학      저는 아닙니다. 저야 뭐..

김 만 배      아니,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내가 두 사람에게 그랬어.  
정 회계사는 아닌데. 계속 골프 치는데. 맨날 골프 치는 애가 무슨 그거  
를 하냐고.

정 영 학      이성문 대표 맨날 전화 와갖고 움직이냐고.  
뭔 소리냐고. 대표님이나 움직이지 마라고.

김 만 배      아, 이성문 대표.. 이성문 대표도 아니다. 이성문 대표도 아니다.

정 영 학      아 그러니까요. 둘다 소문만 나 있고.  
그래서, 누가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다.

김 만 배      저쪽이지 뭘. 재창이.

정 영 학      그랬더니, 이성문 대표가 움직이시냐고.

김 만 배      딸이 니네 회계법인에 근무한다는 등.

정 영 학      아닙니다. 전혀. 대표님, 제가 지금 골프가 며칠 째인데요.

김 만 배      그래. 내가 모 시행사 회장한테 그랬는데. 아니, 정영학이를 저거하면,  
그걸 만약에 하려면 가장 바빠야 될 사람인데, 일주일에 5일을 골프 치는  
것 같던데.

정영학 더 칩니다.

김만배 응? 아니 그러니까 5일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정영학 보십시오, 형님. 거의 뭐..

김만배 그런 사람이 무슨 저기를 하겠냐.

정영학 예. 말도 안돼 진짜. 개도 웃기지.

김만배 그런데 인제 지금은 재네들이 싸우는 게, 일이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 주도권 싸움이야. 성문이란 완범이란.

정영학 형님이 어디 편 들어주느냐의 싸움이네요.

김만배 아니, 편 안 들어줄 거야. 두놈 다 싸움을 안 멈추고 화해를 안했는데. 두놈 다. 꼭 이 새끼들하고 그거 할 일이 뭐 있어. 응? 안하는 거지.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라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대표이사도 현덕이로 바꿀 건데. 성문이한테도 얘기했어. (...) 골프 치고 놀아. 일 안해서 내가 니네들, 니네 같은 놈들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나. 내가 대놓고 그랬어. 내가 죽어, 이 새끼야. 니네들하고 일하면. 죽지. 저것 데리고 일하면. 내가 영학이를 불러오는 한이 있어도 니네랑은 안한다, 이랬어. 응? 야, 니네랑 어떻게 일을 하니. 전력의, 개 전력의 반도 안 되는 애들인데.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김만배 그런데도 거기서 싸움박질 하고 앉아있으면..

정영학 형님, 전혀 아닙니다.



김 만 배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싸워? 병신 같은 새끼들. 응?  
남남이 뭐하러 싸워? 응? 가는 길까지 손 꼭 잡고 가면 되지.  
니들 결혼할 거야? 왜 싸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싸워서 이기면 이득이  
와, 뭐가 와? 두손 꼭 잡고 목표치까지 가면 되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응?

(49:00~1:14:56)

김 만 배      그런데 지금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앞으로 더 (...)  
그런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서류가 먼저 가냐, 공사가 먼저 가냐야.  
그런데 공사가 먼저 가면 안돼. 그걸 가지고 서류를 보내고.  
그리고, 그런데 마무리하는 애들, 인수인계 하는 애들, 연결된 공무원들  
이.. 우리가 썼었어.

정 영 학      아, 그렇죠.

김 만 배      현대엔지니어링이 벌써 이미 사업지구라는 걸 진행을 했던 건데.

정 영 학      예. 빨리 준공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야죠.

김 만 배      그래. 그러니까 너도 성문이한테, 물어보면은..  
돈 절약하는 게 무슨 지고지순해. 선인자야.

정 영 학      아니 인제, 토지 준공이 안 나면, 건물 준공이 안 납니다.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건물 준공이 안 나면 입주한 사람들도 등기가 안 되고 재산권 행사 안 되  
니까 엄청 뭐라 할 겁니다.

김 만 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정영학 빨리 준공하도록 준비 철저히 잘 하자..

김만배 왜냐면은 빨리.. 공무원한테 우리가 돈 줄 수 없지.  
그리고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추가 공사비를 주는데 도로 가지고 지랄한 거지. 나중에. 하천 가지고 지랄하지. 응? 다 지랄하지.  
그러니까 개네들하고 연결된 (..) 하게 해야 돼.  
돈 아끼는 게 지금은 잘하는 게 아니야.

정영학 네. 거기는 제안서를 먼저 써야 됩니까?

김만배 인제 내가, 이거를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정영학 아..

김만배 있는데, 이 사람하고 시청 안에 있어. 있는데,

정영학 일단 뭐 상의해보시고.

김만배 상의를 해라. 상의를.

정영학 예. 아니, 양 전무는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까?

김만배 양 전무?

정영학 예.

김만배 양 전무한테는 내가 얘기, 지나가는 얘기로 했어. 안된다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우선은 농협 푸는 것 하고, (..)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에다가 하나로마트를 넣어주는 걸로 해야 돼.

정영학 예.

김만배 그지? 내쫓으면 안 되고.

정영학 펜찮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지하에 (...) 매장 같이 지하에 하나로마트를 넣어주는 걸로 해야 돼. 그지?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면 그냥 하나로마트가 나갈 수 있도록 현금 보상해주고. 그거를 고민을 해봐.

정영학 예.

김만배 어느 게 이득인가. 100억 정도 줘서 내보내는 게 이득인가. 최고 (...) 써야 돼. 하나로마트를 지하에다 넣는 거를. 왜냐면 거기에 제안내면은 성남시장이니까 지분도 줘야 되잖아. 성남시에. 땅값을 제외한 공동개발비.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는 하나로마트 넣어주고, 지분도 주고. 고민해봐.

정영학 이거를 사오는 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김만배 오래 걸려.

정영학 그러면 30년 임대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 이후에 그냥 매수청구권을 받아



오시거나, 이런 계약이시면 좀 괜찮지 않나요?

김 만 배      아니, 인제 그런.. 왜냐면 사올려면 의회 의결을 해야 돼.

정 영 학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래. 이거 가지고 그냥 또..

정 영 학      싸워야 되니까요.

렌트는 그냥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오고, 대신 30년 후에 서로 매수가 액에 사올 수 있는 옵션을 계약서에 넣으면.. 그런 것도 한번..

김 만 배      그래. 30년 있다가 누가 사겠냐 그런 거지.

정 영 학      중간에 유동화 해서 팔든지.

김 만 배      팔든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하여튼간 방법을 고려해봐.

정 영 학      해보시죠.

김 만 배      왜냐면 나는 그 사오는.. 처음에 사올려고 했는데, 사오면 매각이 되게 복잡해지잖아. 응? 그렇다고..

정 영 학      그냥 기본개념이요, 시.. 시.. 아까 시 땅이라고 하셔서.  
시 땅 자체 중에 이걸 통제로 사오는 거는 아마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엔씨 판교 땅 사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김 만 배      이렇게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정영학 그러니까 방법.. 시 꺼를 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30년 동안 빌리고 예를 들어서, 반은 건물 지어서 줄테니까, 빌리는 대가로, 시에서 임대하고, 반은 저희가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그냥 임대.. 이 임대보증금만 나오면 되고요.  
30년 이후에 시가대로 사서 우리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면.. 고민해보시죠, 형님.

김만배 그래서 거기다 뭘 넣을까도 고민해야 돼. 기업을 유치할지.

정영학 네.

김만배 하여튼간 얘기를 좀 많이 하자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너도 고민을 해. 어떻게 할 건지.

정영학 시 땅 사오는 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옛날에 네이버 부지건 뭐건. 정말 어려운데요.

김만배 엔씨소프트, 창근이 형이 의원들하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나 문창근 생생의회의원(28)  
정영학 아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김만배 아니,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 '형, 엔씨소프트 같은 회사가 성남에다가 사옥을 하도록 부지 사서 (...)'

정영학 이해관계 없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알어. ‘그 얼마나 많은 고용을.. 소프트 회사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시는 세수 나오고. 이미지가 좋은데’

정 영 학      형님, 고맙습니다.

김 만 배      ‘무조건 해줘라. 나 같으면 해준다.’

정 영 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솔직히.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감사합니다 해야지.

정 영 학      그런데 인제 너무 저기하니까요. 이번에 엔씨에서도 그냥 판교구청 부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만 배      포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사갔잖아?

정 영 학      사갔습니까?

김 만 배      응? 사갔어.

정 영 학      잔금까지 다 아직..

김 만 배      응?



정영학 그거를 엔씨가 산 게 아니구요, 증권사랑 컨소입니다. 컨소.

김만배 창근이 형이 의장 됐으니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

정영학 나 윤창근시어리파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나한테.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정영학 네.

김만배 어차피 얘기하잖아. 그런데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내 얘기 하면 나 징역 가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럼..

김만배 아니 아니, 내가 보안 지키고 했어. 창근이 형은 지금까지..

정영학 엔씨는..

김만배 아니, 해줄게. 도와줄게.

정영학 한번 다음에..

김만배 아니, 이걸 난 삼성에 돈 한푼 안 받고도 도와줬다.

정영학 저도 엔씨는..

김만배 엔씨. 그쪽에 좋은 인연 맺어놓으면 좋지 뭘.

야, 영학이 인연이 내 인연이지. 씨발.

정영학 아, 그럼요 형님. 언제든지. 언제든지.

김만배 그럼~ 똑같은 거지.

정영학 옛날에는 혹시, 기업대출 요런 거 할 때,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김만배 그럼~ 야, 내 인연이 니 인연이고, 니 인연이 내 인연인 거지.

정영학 어디 뭐..

김만배 스님한테 그랬어. 시주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스님, 화천대유에 있는 것도 내꺼고, 내 통장에 있는 것도 내꺼고, 성혈사에 있는 것도 내꺼지, 뭐 상관있어요? 내가 별 쳐다보면 별이 내꺼고, 쳐다보면 내꺼지. 죽어서도 가져갑니다. 별을 떼요? 쳐다보면 내꺼지.

정영학 (웃음)

김만배 그래, 안 그래? 마음만 하면 (..)

정영학 형님하고 비슷한 분입니다. 필수록. 스님하고 형님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좀.

김만배 누가? 스님?

정영학 예.

김만배 (..) 스님이 미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정영학 아..

김 만 배 그런데 내가 아, 이 스님이 요런 부분이 한계가 있구나..

정 영 학 아, 그러신가요.

김 만 배 미리 예단하는 거야.

건강 조심하고 그러래. 그래서, 저 사실은 (...) 하고 있습니다.

개 얼굴 보세요. 지나 지나지. (...)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원장이 공신들을 죽이는데 이랬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스님, 전쟁의 신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사가. 그래서 그칠지에다가 창과자를 쓰면, 창을 멈추게 하는 말이다. 창을 멈추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왜 전쟁을 하나. 도사가. 더 이상 전쟁이 없게 얘기해서 전쟁을 없애야지. 응?

작은 작은 전쟁들, 한꺼번에 창을 멈추게 하려면 (...) 정리를 해야지. 너,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래서,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스님 것도 내꺼고. 성혈사. 화천대유도 내꺼지.

저 별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저 별도 내꺼지.

저 별을 쳐다보는데 니꺼 내꺼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스님, 제가 시주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이걸, 응? 이걸 걱정하면 안 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형이 영학이랑은 뜻이 맞아. 생각이.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너도 고민을 해봐. 형도 큰 틀에서 지금 고민을 해. 여태껏 고민을 한 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판교도 엔씨 부분도 만약에 니가 도와줄 일 있으면 형한테 얘기해.  
형이, 창근이 형이..

↳ 문창근

정영학 최근에, 저도 인제 한참 저기했는데요, 그 회사가 불륨이 갑자기 커졌습니  
다. 그래갖고 이제는 더 큰 데로 갔습니다. 큰 데로,  
전부 삼일로 가고, 전부 김앤장으로 가고.  
그래서 중소형은 다 없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만배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영학 윤 박사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있습니다.

김만배 개인적으로 하고, 이.. 그냥 내 생각이야.  
도시개발에 통과가 돼 있을 때는 그러지 말고, 자문으로, 자문회의에 모든  
걸 (...)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이 공무원 출신들은 누구 눈치 보면 또 못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눈치 보면 안돼.  
그래서 내 말은, 그게 A팀, B팀, C팀 (...)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정영학 예.

김만배 자문의 능력을 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통상 검찰 수사 나오면 김앤장 같은 데는 아, 이 수사에는 누구누구 여기  
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만 짚.. 형이 (...)

정영학 네..

김 만 배 그런데 도원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는, 이 도시개발이니 재건축 같은 데가 시간이 (...) 세무회계의 자문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러면 안돼. 형 같으면.  
그리고 우리,

정 영 학 조사 쪽 좀 강화를 하든지, (...)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또 밖으로 빼면 또 안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영학이야.

정 영 학 그 밥그릇 싸움이 심합니다. (웃음)

김 만 배 안 심해.  
그리고 니네 하나, 되게 똑똑한 애 하나 나갔잖아. 사이 안 좋아서.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 영 학 남■■■. 네, 네.

김 만 배 응.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영학 하나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아까 싫은 소리를 잘 하는 게.. 한마디 한번 해야 돼.  
해야지 사람들이 (...) 하는 거야.

정 영 학 맞습니다.

김 만 배 남들이 (...) 그래서. 그리고 나누자, 이런 거를.  
그래야지 강화되는 거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 인연을 버리지 마. 엔씨, 도와줄 것 도와줘. 나도 뒤에 숨어서 도와줄  
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창근이 형이 의장 됐는데 뭘.

↳ 윤창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똑똑해. 의원들도 똑똑하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의원들 로비는 의원 통해서 해야 돼. → 9차 22.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니가 보안만 잘 지키면 돼.

정 영 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이 대표도 몰라. 나랑 윤창근이랑 친한 거.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다음번 출마 생각도..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게 좋습니다. 캐리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김 만 배 그럼. 그래서 은미가 창근이 형이 의장 전에 시장 보궐선거가 나오면 은미는 (...) 창근이 형도 임기 끝나면 창근이 형이 (...)

정 영 학 그런데 임기가 그럼 인제 시작 아십니까?

김 만 배 2년. 2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런데 은수미 안 찢리고 왔다 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럴 수도 있어.

(잠시후)

김만배 그거지?

정영학 예.

김만배 도와줘서 그 중에 잘되면 정 회계사 좋고, 정 회계사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그렇잖아? 안 그래?

정영학 옛날에는요 이게 회사가 적을 때는 라인이 다 이렇게 끼었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정영학 그런데 인제는 밀에가 너무 많아갖고..

김만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너하고 친하면서 중요한 결정은 저기, 자문도 해보고, 또 중요한 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나 같으면 못해.

엔씨소프트가 성남에 아는 사람이 너 (...)

정영학 맞습니다.

김만배 우리가 안해봤냐.

정영학 예. 옛날에는 라인이 다이렉트였는데, 인제는 중간에가 몇 겹이 끼어 있어 갖고, 인제는 이야기를 넣으면 본인들이 해결을 할려고 해요. 윤 박사하고 직접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뭐 윤 박사..

진짜 옛날에 연 한 천억 2천억 할 때 하고, 지금은 1조를 해놨습니다. 순이익이 1조입니다.

김 만 배 도지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윤 박사한테도 얘기해서.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니가 직접 만나서 해야지.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직접 하는 거지 뭐 사실.

정 영 학 아유, 제가 뭐..

김 만 배 내가 보건데, 니네 보면은 옥이랑은.. 왜냐면 보안도 안 되고, 너무 위험 해.

정 영 학 비밀이 없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다 나옵니다.

김 만 배 나는 지난번에 모든 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옥이 이 새끼.. 동규가 그러더라고. 형, 개는 항상 진실해. 누구한테나. 그런데 뒤집으면 누구한테나 진실이 없는 거지. 응?

정 영 학 그런데 인제 말 주변도 있어서, 사실 보통 꼭 앞뒤 이렇게 가정 하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교묘하게 인용해서 해버리면, 아예 답이 없더라고요.

김 만 배 그리고 재창이랑도 (둘)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비슷해.

↳ 남욱 + 정재창

정 영 학 예.. 요즘도 붙어 다니던가요?

김 만 배 옥이는 재창이 카드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 생각한다고.

↳ 남욱



너는 이미 승부가 딱 끝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이쪽에 딱 서는데, 재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애.

정영학 저쪽으로 갑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진짜, 어 이게 뭐죠. 일단 여태까지 그냥 살아왔던 가치관의 혼란이 깨끗하게 그냥, 지면 지더라도 진 쪽에 남아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염치도 있고 의리도 있고, 지면은 저리 갑니다.

김만배 그래. 둘 다 똑같애. 그리고,

\*10차-33호  
- 유동규: 부패공무원

정영학 한번 형님 쪽 정했으면 그냥 지더라도 있어야죠.

김만배 그래. 돌아다니면서 좇나게 씹고..  
→ 유동규 [성남도서관사 기획본부장]

내가 그래서 동규한테도 그랬어. '옥이는 형이 절대로 안 만난다' '시장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부패공무원' 내가 그랬어.

유동규 ← '너는 부패공무원이다' '형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똑똑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좇까는 소리하고 있어. 부패. 여자 속이기. 돈 많이 쓰기. 돈 뇌물 받지. 응? 그러면 쳐도 부패한 년이고. 그러면은..'

정영학 형님이 남 변호사를 데리고 있으면 나올 생각도 있는 거네요. 뭔가가 될 테니까.

김만배 난 안한다. 그런데 너는 영학이.. 아니, 영학이 아니라,

유동규 ← '너는 옥이한테 개 끌려 다니듯이 끌려 다닐거다. 거기에다 재창이도 한 마디 했어. 재창이가 가만 두겠니? 니가 자수한다는 건 지금 위치지. 시장 되거나 돈 갔다가는 너는 응? 코뚜레에 뚫려서 질질 끌고 다닌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나 인천공항 공사나, 응? 강원랜드 사장 그런 거나 가라'

가자~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하여튼간 그거 고민해봐. 나도 고민할 테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뭔지, 도와줄 테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뚜벅~ 뚜벅~)

김만배 (...)

정영학 예. 내일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6시 반이라 그렇게 해야죠.

김만배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어도 마음만은 변치 않고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

(뚜벅~ 뚜벅~)

김만배 이름이 우종인가 그러지?

정영학 예.

김만배 변화는 있어도 변하는 게 없네.

정영학 예..

김만배 너도 그러니..

정영학 (웃음)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근데 형은 조금 있다가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김만배 다음주에. 그래서 나도 이걸 지금 밀바닥 조사 다 하거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응. 그러니까.

정영학 저는 사오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렌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에요.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너도 한번 생각해봐.

정영학 네.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차문 닫는 소리)

정영학 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끝)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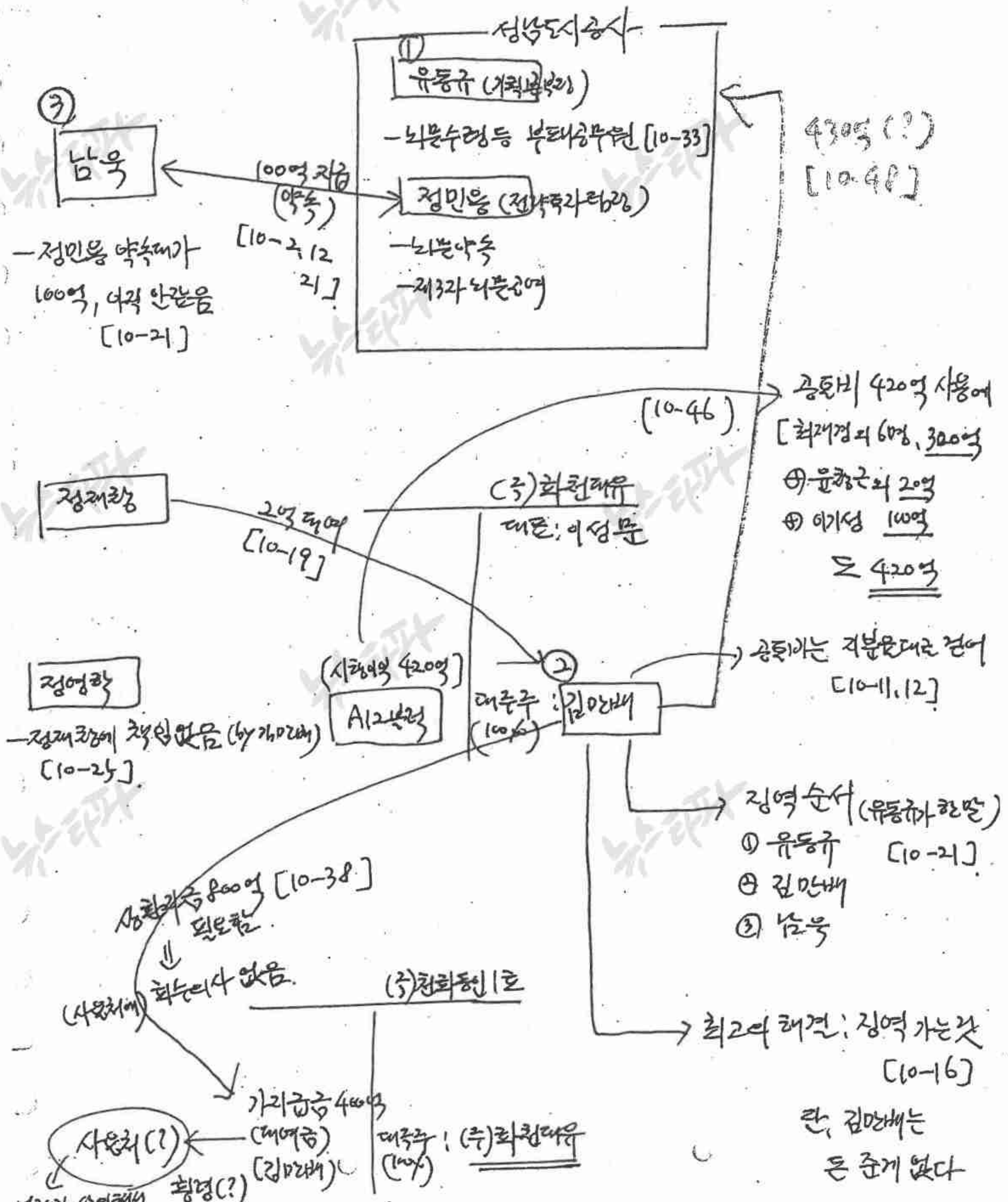
농업

농업



10차 (문자) - 수정본

2020. 7. 27.





10차 (두정)

- 녹음일시 : 2020. 7. 27.(월) 20:30~
- 녹음장소 : 판교 (주)메종드쁘띠프로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46:04 대화중, 1:35~)

김 만 배 그래서 만났는데,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 저 뭐야, 남욱이 만났어.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런데 인제 그.. 남욱이는 너 욕하더라.

정 영 학 어쩔 수 없죠 뭐. 그 새끼 나쁜 새끼.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욕을 하니'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예. 세금 때문이에요?

김 만 배 응,응.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어. 욕이한테.

'야, 우형이가 그러는데 다 니가 쓴거라는데. 개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응? 형도 세금을 개인적으로 지금 돈 값은 게 400 얼마인데'

정 영 학 형님, 저도 많이 내요 세금.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랬지. 그리고 5백 얼마를 썼대. 본인이. 그래서,

정 영 학 개인적인 거죠 뭐.

정민용은 남욱이 박달(차임)해야 한다

2020-7-2

\*13차 후

\*10차 2.12. 기록

남욱

김만배 응. 니가.. 다 줄 수 있대. 그래서 '야, 니가 어디다 썼어?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민용이도 100억' '썼어?' 그러니까,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안 줬는데..'

정민용 [성남시에서 전략사업팀장]

정영학 예..

\*10차 - 12쪽, 기록

김만배 응.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지.

- 정민용 100억, 미리준 상태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어디야. 구리에 무슨 45층 성준이랑 들이 얘기하더라고. 45층. 하나은행하고 저스트알하고 선진이 들어갔는데, 저스트알이..

정영학 형님, 저는 아시다시피,

김만배 아니 아니, 얘기 들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형이 영학이 대변인도 아니고'

정영학 그러니까요.

김만배 응. '그거는 영학이 만나서 물어봐. 형은 모르니까' 선진이 형님께 설계회사 아니네. 그래서, '나는 선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간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왜 모르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영학 일단 그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만배 이리 와. 이리. 여기가 좋다. 여기가.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너 여기 앉아. 왜냐면 거기가..

정영학 들락날락 하고..

김만배 거기 앉아. 그래서 알려줄라고.

정영학 안 그래도 제가 하나은행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일단 뭐 저야 아시다시피 뭐 아예 생각도 안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저는 아예 싹 풀어놨잖아요. 아예 풀어놨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이걸 돈만 깨지고. 전혀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스트알이냐고 물어봤더니, JR자산운용입니다.

김만배 거기 '저스트알' 이라고 써있어.

정영학 저스트알이라고 나와 있길래, 저스트알이 주주로 들어갔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병식 부장이요 그거 보여줄 수 있답니다. GRE자산운용하고 JR자산운용하고,

김만배 형은 상관없어.

정영학 교보증권인데요. 아니 뭐, 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만배 그래. 아니, 상관있으면 어때.  
내가 그래서 그랬어. '너는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한대.  
'왜 안하냐' 그랬더니,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그러냐. 이왕 했으면 해야지'

정영학 저는, 혹시 저였으면 그렇게 무한경쟁.. 아, 너무 심하게 풀어놔서 아예 생각도 안했습니다.



김 만 배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럼 어디가 먹을 것 같냐?' 그러니까, MDM이 먹을 것 같대. 그래서 '왜 MDM이 먹어?'

정 영 학 아, 남양주요?

김 만 배 응. 물어보니까, 저 별건에 확약서 하면 점수를 더 주는 걸로 할라고 그런대.

정 영 학 저는 그게 신한 게.. 제 판단은, 산업은행은 하도 금융사고가 많았기 때문에요 확약서가 안 나올 겁니다.  
신한은행도 옛날에 부동산 PF에서 리먼 때 가장 많이 뜯긴 데가 신한이거든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난 데가.  
그래서 신한도 아마 확약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MDM이 지금 아시다시피,

김 만 배 신한은행.

정 영 학 신한하고 산업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듣는 소문이.

김 만 배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정 영 학 그거 끊을 수 있는 데가 기업밖에 없어가지고.

김 만 배 그거 수사도 받아야 돼.

정 영 학 예, 예. 아니면, 그.. 돈을 파킹을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만큼을 파킹을 하면 끊을 수는 있습니다.  
파킹을 저기도 하지 않을까요? 팩스도. 호반 돈으로. 추정입니다. 추정.

김 만 배 그런데 저것 100% 수사한다. 확약서 때문에.  
형이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

정영학 그건 진짜 하면 안 돼요.

김만배 하면 안 되니까.

정영학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무조건 확약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기사내용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한테 물어봤거든요.  
저스트알이냐고요. 줘..

김만배 아니, 성준이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

정영학 제가 그래서, 저스트알.. 이 부장이요 '저스트알이 아니구요, JR자산운용이에요'

김만배 거기 '저스트알' 이라고 써있다고 욱이가 보여주더라고.

정영학 예, 예. 그런데 옛날에 JR도 사실은 아는 회사이긴 합니다. 아는 회사이긴 한데요. 나중에 그러면..

김만배 그런데 왜 기사에는 저스트알로 나왔지?

정영학 거기에 그게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구요,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닌 정보들 모은 거라서, 제가 나중에 이 부장한테 컨소시엄 협약사항도 좀 보여봐달라고 할라구요.

김만배 아이, 뭐 어때~

정영학 아니 그래서 혹시.. 저는 할라면 확실히 해야죠.

김만배 아니, 그런 거 신경 뭘 써. 뭘 써. 아니 그런 데에 뭘 신경 써.



정영학 그다음에, 그게 한 3,4억씩 깨지는 거거든요.

김만배 그런데 또 하나, 남욱이는 세명이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누구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형은 너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정영학 예, 예.

← 남욱

김만배 정영학, 정재창, 자기. 그래서, 뭘 만나? 니네들 다 돈 벌고 좋은 거지.  
해줬으면 되지. 그랬더니, 왜 자기를 그렇게 씹었는지..

정영학 제가 남욱이를 씹던가요? 지가 공격을 하지.

김만배 그래.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성문이 뭐 자기..  
야, 성문이나 양완범이나 영학이나 너 씹은 적 없다.

정영학 없습니다.

김만배 너 씹은 적 없고. 니네 아버지가 문제 한번 일으켜서 회사에서 너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는 한 적 있어도, 영학이가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성문이가 씹었다고 하는 거는 성문이가 술 먹고 이기성이한테 남욱이 욕하고 너 욕했을 때 저 욕이가 너 (...) 돌아다니더라. 응?

← 남욱  
이기성이가 너한테 녹음을 전달해줄라고 한대. 응? 그거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서로 불만이면 다 가서 징역 가야지.

그랬더니, 징역은 자기는 한번 갔다 와서 그런 건 안하고 싶대.  
해결하는 건 그거지, 새끼야.

← 남욱

정영학 까면 지가 가조 뭐.

김만배 그럼. 너도 세계 나가.

정영학 예.

\* 이기성 현백 [ 8화 - 1P쪽 ]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뭐냐면, 이제 돈 좀 그만 뺏으라고 너 유동규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디 그 씨팔놈아, 공통비 내라고. 너랑 영학이랑 공통비 안 내면 배당 없어" 그랬더니, "아~ 형, 내가 영학이 형이 내기로 했는데"  
 "너 이 새끼야, 내가 처음에 영학이보고 내라고 그런 거 맞아. 그렇지만 니가 그랬지. '형님, 저도 내야죠. 반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너야. 영학이한테도 물어봐" 내가 그랬어.  
 했어, 안했어? 응?

정 영 학 그걸 다 저한테 내라 이건가요?

김 만 배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너랑 합의를 했다.  
 그래서, "나는 몰라. 그런데 니가 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형이 처음에 제창이 것도 형이 내기로 했잖아요" 이러더라고.  
 "아, 내가 했지. 내가 안한 거 안했다고 안해. 한 건 했다고 그래. 그런데 전제가 비용을 다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선배당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바꾸자 한거지, 형은. 응? 그런데 형이 한 건 했다고 그래. 그런데 하여튼간 그 이외에는 형은 니네들한테 요구할 생각도 없고"  
 (휴대폰 통화)

김만배

\*13화 5, 26 29쪽

정 영 학 어차피 뭐..

김 만 배 그런데 하여튼간 극렬하게 싸워. 물러나게.  
 내가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간 니네들 둘이 내년엔 합의 없으면 배당은 없다" 내가 그랬어.

공통비

정 영 학 예.. 결국 그거 내기 싫다는 얘기네요.

김 만 배 내기 싫다는 얘기야.

2020-9-27

정영학 합의고 뭐고 그냥 핑계죠 뭐.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냥 내기 싫다.

김만배 내기 싫다.

그런데 그 새끼 왜 반 낸다고 그랬던 거야, 그때?

정영학 재창이 걸 제가 많이 내기로 했으니깐요. 재창이 걸 제가..  
아니 형님 원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창이 주식을 지가 샀기 때문에 25%  
를 받은 거예요.

↓ 재창      ↓ 남우

김만배 아니 그렇지.

정영학 원래 16%여야, 같이 반반이어야 되잖아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저는 명확한 게, 재창이 지분을 (지가) 3분지 1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가 저보다 10%를 더 받아간 거예요.

→ 남우

김만배 하기로 했으니까,

→ 남우

정영학 그럼 재창이 걸 원래 (지가) 내야죠. 원래는.  
저는 재창이하고 관계가 사실은 금전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위례하고 대장동을 바꾼 게 (지가) 바꾼 거죠. 제가 바꾼 게 아니잖  
아요.

→ 남우

주식은 (지가) 팔아서 지가 지분은 많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지도 25%가 아  
니라 원래 16% 가져가야죠. 9% 더 가져간 거에서 재창이 걸 해결을 해야  
죠.

그래서 제가 재창이 거를 60억을 제가 할 테니까, 한다고 하니까 공통비를

남우



반반 한 거였죠.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했어.

“너 혼자서 뭐 했다고 그랬는데, 너 새끼야 너 뭐 분담할 때마다 우형이 들이대서 우형이가 돈 내잖아. 재창이 것도 내고, 기성이 것도 내고. 너는 너만 했다고 그랬는데 우형이도 냐잖아”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  
우형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다 해줬거든.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너는 뭐 너 혼자 530억 부담했다는데, 우형이 말로는 니가 서서 다 나냈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야, 웃기는 소리하지 마. 너는 처음에 양아치 기질이 있지 이 새끼야. 약속은..”

정 영 학 형님, 처음에 원래 이 새끼도 25%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김 만 배 아니, 잘했지. PF 안줄라고 그랬던 거잖아. 한 16%로 줄라고 그런 걸 니가 지켜준 거지. 그지? 응?

정 영 학 네, 네. 전혀 거기에 대한..

김 만 배 감사도 없잖아.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16%로 끝을 낼라고 그랬었는데.

정 영 학 16%도 많이 준 거죠, 형님.



김 만 배      그래. 그런데 니가 지켜준 거지, 솔직히. 해달라고.

정 영 학      아니 뭐 그거야 뭐 약속..

김 만 배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 새끼.

정 영 학      그렇죠.

김 만 배      그리고 이렇게 해. 자, 싸우면 형이 니 편을 들을게. 응? 니 편을 들을 테니까, 너는 거기서 그래. '미리 배당을 해서 너 손해 없는거다' 남욱이한테. '만배형한테 나만 욕먹었다' 응? 무슨 말인지 알지?  
너랑 나랑은 같은 편이 돼야 돼. 자꾸 개랑 같은 편 되면 안돼.

정 영 학      네,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는 그냥..

김 만 배      응,응. 형은 너를 위해서 니 편 들어주는 거야. 난 그 새끼 싫어. 응?

정 영 학      사업하는 게 싫죠, 저야.

김 만 배      년 새끼야 그리고, 아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

    '형님, 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러면서. 가면서.

    '영학이랑 재창이 형이랑 다 관계 끝냈는데, 끝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이 공모 전에' 그래서 '있었지' 그랬더니, '정영학 형이 형한테 따로 연락을 그 전에 했나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뭘 그 전에 해? 없었지. 연락이 언제 있어? 니가 형 마지막 승선자야. 일한 다음에 찾아와서 3백만원인가 얼마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맞지? 그 전에 온 거.

정 영 학      그 전에 뭐 특별히..

김 만 배      그 전에 왔는데 그 전에 아니라고 해. 알았지?

정영학 예. <sup>남욱</sup> ↑

김만배 저 새끼 60억 안 낼라고 그래.

정영학 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김만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배짱부려서 해야지 뭐.

정영학 저한테 내라 이거예요.

김만배 아니 그러지 말고, 각 주주별로 다 걷어, 그냥. 퍼센테이지로. 응? 영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이성문 대표한테 이야기해야죠.

김만배 응. 퍼센테이지로 해서 다 걷어.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그런데 왜 저한테 공통비를 다 내라고 하는가요? 저 애가. 남욱이가.

김만배 니가 낸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형 얘기가.  
'야 이 새끼야, 형이 영학이보고 내라고 그랬더니, 니가 형님 저도 반 부담하겠습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니가 내내 회계 선비용 정산을 안하고, 선배당을 가져가서 내가 영학이 혼낼 때 영학이보고 내라니까, 니가 낸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때 영학이 형이 하기로 했대.

김만배. '형이 들었잖아, 이 새끼야 근데. 니가 낸대매? 품 잡고. 아, 형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 내야죠. 니가 낸대매? 이 새끼야' 내가 그랬지. 응? 그랬더니, 아 그건 영학이랑 만나서 자기가 정리하겠대. 응? 정리하든 말든.

정영학 하~ 참, 선 배당 받게 해줘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그걸 갖고..

김만배 고마워해야지. 그 얘기해.

↳ \*102464 - 11 -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 이 새끼야, 선배당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씨팔놈아 둘이 편 먹고 형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이 새끼야 못 낸다고 그래, 이 새끼야. 왜 핑계를 대? 세무를 영학이가 했어? 이 새끼야. 니가 돈 썼지. 응?'

정영학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돈, 정민용이 돈도 아직 원래..

김만배 안 갖고.

정영학 아직 안 줬죠? 준다고 해놓고.

김만배 응, 안 줬지. 응. 몽주도 안 줬고.

정영학 그 돈도 하나도 안 나갔는데 5백억이면 지가 그냥 기껏 써봐야 옛날 위원장 뭐 얼마나 줬겠습니까.

김만배 위원장 18억 줬대.

정영학 그다음에 몽주하고. 그거야 본인이 5백억을 더 받아갔는데, 줘야죠.

김만배 아이, 그럼~ 거기서 해결해야지.  
안 되면 영학아, 지분대로 해.

정영학 지분으로 내면 제가 제일 유리하죠.

김만배 그렇게 한다고 딱 해버려. 그러면은,

정영학 지금 정재창이한테 모는 게 사실은 제가 몰게 아니고, 옥이가 내야 내는 겁니다. 지가 주식을 재창이 꺼를,

김만배 샀어.

남욱이 (즉) 판교에나있어 주식을 정재창으로부터 매수함 (1/3 지분)



정영학 사고 지가 떨어냈기 때문에, 사실 지가 벌면..

김만배 떨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벌면..

정영학 그렇죠. 지가 그래서.. 원래 지분이 저하고 옥이가 대장동 똑같아야 돼요.

김만배 똑같아야 돼. 그래. 아니 그래.

정영학 저보다 옥이가 9%를 더 가진 이유가,

김만배 재창이 꺼.

정영학 재창이 것 떠안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만배 그런 취지로 준 거고.

정영학 그런데 왜 나중에는 재창이 쥔 제가 묻니까?  
이건 그냥 팬히 코너에 몰아넣고 뺐은거죠.

→ 남욱 + 정재홍

김만배 그래. 그리고 둘이 쥔 수도 있어, 이 새끼들.

김만배. 형한테 와서 물어본거지. 재창이가. 다 알고.

형이 볼 때는 시간차가 있어. 저 남양주 걸 보고 분명히 사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 그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정영학 남양주 확약서 들어가 있는 것 나중에 알았거든요. 엇그제 알아갖고,

김만배 확약서 뭐?

정영학 대출확약서 들어가 있는 거를.

김만배 나는 오늘 알았어.

1021 13.36

정영학 엇그제 알아갖고 제가 이성문 대표한테 ‘대표님, 확약서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그랬더니, 다들 모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약서 들어가 있어갖고 나올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 있네요. 혼자.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끊을 것 같다.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회의 때, 이사회 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리 같이 그렇게 다 풀어진 거는 굳이 들어가서 못 먹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김만배 그거 거기서 떨어진 건 잘했어. 형한테도 떨어지고, 잘했어.

정영학 예. 아무 연고도 없는데요.

김만배 성문이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거기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입안자들하고 연락을 한 거겠지만.

정영학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은행하고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사회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신한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발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은행은..

김만배 제일 신한은행장이랑 친한데도 멈춰줄까?

정영학 어차피 기업은행 (...) 말고는..

김만배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어디랑 하는 거야?

정영학 재창이랑.

김만배 남옥이랑, 재창이랑?

정영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 만 배      기업은행은 시행사 어디야?

정 영 학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서 너를 또 욕을 하는 거야.

정 영 학      그 광고 나온 이후부터 개가 좀.. 예, 예.

김 만 배      형이 알려주는 거야.  
정영학이가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개떡을 만들어놨대.

정 영 학      제가요?

김 만 배      응. 그래서 내가.. 야.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 얘기 좀 들어봐. 형이 니편을 들었어. 그래서 애가 화났어. 아니, 개가 남을 욕하는 애니? 뭐 저기를, 지 이득에 상관없는데, 관여 안 하는데 왜 너를 욕해? 개떡을 만들어? 누가 그래? 그랬더니, 하나은행에서 자기 대출을 해줄려고 그러다가 이병식 부장이 노 해서 안해서 농협에서 했대. 어디를? 그러니까, 청담동 꺼를, 그래서, 청담동 뭐를? 그러니까, 형님이 알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난 모르는데. 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언제 해? 너는 뭐 이매동인가 어디에 땅 사서 뭐 한다고 그랬지. 청담동 얘기는 처음이야. 내가 그랬지.

정 영 학      저도 처음입니다.

김 만 배      응. 그랬더니, 정영학이가 자기를 은행 다니면서 개떡을 만들어놔서 그랬다고. 야, 영학이는 그런 얘기는 안하고, 형이 듣기로는 수시로 은행 돌아



남북

다니면서 (니가) 시행 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돌더라. 그런데 영학  
이는 너 욱 안해. 내가 그랬지. 응?  
하여튼간,

정영학 원래는 이제 작년에 막 이렇게 콜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같이 합시다.  
잘랐잖아요. 3월달에.

김만배 저것..

정영학 예.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이 세명의 작전은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 그  
래요. 형님한테서 일단 형님 편을 들고 있는 저를 좀 잘라내면, 자기쪽에  
데려다놓으면 형님한테 뭐 하기가 편하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김만배 그런데 나한테 덤벼봤자, 덤벼봤자 형한테 게임이 되니? 손가락으로 하늘  
을 가려?

정영학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든지 저를 제거하고 바로 이제, 아니면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예 제가 연락을 끊었으니까.

김만배 욱이는 징역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형은 징역을 안 무서워해.  
형은, 내가 그랬어. “최고의 해결은 다 까고 징역 가는거야, 이 새끼야”  
그랬어.

정영학 욱이가 뭐 형님이나 저나 뭐..

김만배 너랑 나랑 둘. 내가 그랬어. “나는 돈 준 게 없어”

정영학 남북+김만배  
지는 많죠.

김만배 응. “나는 돈 준 게 없어. 돈 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누굴 줬  
어? 증거를 대봐” 그랬어. “누구를 줬니?” 내가 그랬어. 응?

→ 김만배

형은 돈 준 증거가 없어. 니네들이 돈 줬다고 떠들고 다닌 거지. 형한테 돈 받은 놈이 누가 있어? 응? 난 니네들 같이 사진도 안 찍어, 이 새끼야. 응?"

그런데 인제 그거는..  
야 참, 하나 더.

↓  
남옥+재창

정영학

예.

김만배

이거는 인제 너의, 니가 창피한 부분이 있었고. 재창이는.. 남옥이는 그 날 와서, 어제인가 언제 와서 내가 너도 6천백만원 주고, 남옥이도 6천백만원 줬대. 6천백만원 줬냐, 1억을 줬냐?

정영학

언제 말씀이에요?

김만배

옛날에 재창이한테 빌린 돈을. 골프장 회원권 사라고.

정영학

6천이요.

김만배

6천백만원이야?

정영학

예.

김만배

1억이 아니라?

정영학

예. 6천.

김만배

6천이야?

정영학

예.

김만배

2억을 빌려서 6천씩 줬어?

정영학 예.

김만배 아, 형이 쓰고?

정영학 저랑 옥이한테 줬어요. 6천을.

김만배 6천을?

정영학 예.

김만배 아, 6천이었어?

정영학 예. 6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성 것, 한성이 6천이어서 한성 샀을 겁니다.

김만배 아니, 한성을 산다고 그래서 형이 1억을 준 게 아니야?

정영학 한성이 그때 기껏 해봐야 6천만원뿐이 안했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인제 형이 그 돈을 재창이한테 빌릴 때 옥이가 자꾸 생활비 생활비  
해서 그거를 빌린 건데, 그런데 우형이 돈 줄 돈이 없어서 최용석 변호사  
한테 내가 재창이한테 내가 돈을 빌릴 거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정영학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김만배 응?

정영학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내가 10 몇억을 빌릴 건데, 두 사람이 쓸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애.



정영학 저야 뭐 저로서는 뭐했는지를..

김만배 재창이가 '그 당시에 돈 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빌렸지' 그런데 니 얘기 그때 하고.  
그러면 애들은 내가 그 돈을 뭐 어디다 로비를 한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영학 형님, 최 변호사님 돈 갖고 어디 하신 거 아니잖아요?

김만배 아니, 회사도 빚 갚고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정영학 그걸 갖고 제가 그걸 했답니까?

김만배 아니아니, 재창이한테 돈 빌릴 거니까 내가..

정영학 예. 최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김만배 아니, 내가 재창이한테 빌릴 거니까 빌려주지 마라 그랬대, 니가. 재창이한테. 그래서 재창이가 '그 형이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나보지요' 그러면서 2억을 빌려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어. 2억 너한테 빌릴 때 영학이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영학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대. 그래서 '그 새끼 빠져서 그랬나보지' 내가 그랬지.

정영학 저야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를 돈 없으면 빌려주지 마시고,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죠. 제가 뭐.

김만배 그래.

정영학 '다른 데 쓸 데도 없으실 텐데 뭐' 그 정도겠죠.

김만배 아유, 저거 참..

정영학 말을 비꼬면 꼬아져요.

김만배 맞아.

정영학 예. 진짜로. 똑같은 거거든요.

김만배 너 저기, 형은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나는 내가,

정영학 저도 상관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어차피 반을 내가 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렴을 하든 그건 반을 내야 돼.

형은 너가 (...) 좋아. 이사회 결의한 내용들이라.

정영학 네.

김만배 결의가 되나? 그게 직원들 인센티브가? (...)에서.

정영학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자산관리회사에서 통보를 보내는 거죠. 지금 인센티브 따로 줄 테니까 해달라. 팬찮을 것 같은데요.

김만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영학 명분이 팬찮습니다. 제가 봐도 명분이 팬찮아요. 직원들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줄 테니까 따로 해달라. 그래서 그 비율대로 얼마로.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내기 싫어서 엄청 공격을 한 거예요, 형님.

김만배 그래. 세금이 어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5백억 돈 받아간 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에 넣었어? 5백억을'



'김우희 넣고 뭐, 저 김용철이'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 뭐, 위원장 18억'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도 달라고 그런다는데 형님이 안 준다고 그랬다면  
 서요?' 그래서 '야 새끼야, 내가 (...) 준다고 그랬어. 무슨 안 준다고  
 그래, 이 새끼야?'

정영학 잘해주라 하셨죠, 형님이.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가급적 잘해주라고.

김만배 응, 응. '그리고 또 얘기해봐. 어디 썼어?' 그러니까, '아, 정민용이'  
 '줬어?' 그랬더니, 아직 안 줬대. 아직 안 준 거는 (...)

'니네 아버지 새끼야 석산에 날라간 돈, 그게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이  
 새끼야' 응? 그렇잖아?

'너는 좀 양아치 기질이 있어. 처음에 돈 입빠이 준다고 그러다가, 나중  
 에 안 주고. 그런데 뭘 줬겠어'

'그리고 최고 시끄러우면 다 징역 가는 게 최고 좋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랬대. 징역 가면 자기가 1번, 내가 2번, 남옥이는 3  
번이라고 그랬대. 유동규 김만배

그래서 '나는 징역 가는 거 팬찮아. 니가 최고 중범이야. 너야. 너  
 자. 남옥이 25%에 대한 거는 정재창 결(사서) 한거다. 남옥

정영학 그럼요, 형님. 당연하죠.

김만배 당연하지.

정영학 원래는 똑같았어요, 저랑. 저랑 완전히 똑같았고. 지분도 똑같았고, 다 똑  
 같았어요.

김만배 그런데 그걸 사서,



정영학 그걸 교환하는 바람에 재창이가 여기 3분지 2, 지가 여기 3분지 2. 원래 20.. 3분지 1을 하면 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4가 돼야 되잖아요. 1% 더 가져갔어요, 형님.

김만배 그거는 니가 지켜줬다고 그럴거야. 그다음에 욕 막 할거야. 작전이야, 욕해도.  
'야 씨팔놈아, 정재창이 그 당시에 남육이가 하기로 했으니까 지분 더 주라고 그런 건 너잖아, 이 새끼야' 내가 그랬거든. 그래도 되지?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아니 아니, 작전상.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알았어?

정영학 나중에 만났을 때요?

김만배 만났을 때.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아니, 알았어, 몰랐어?

정영학 예, 좋습니다, 형님.

김만배 응. 녹음하는 거 아니지?

정영학 (웃음) 녹음기 안 켜졌습니다.

김 만 배 알았어.

정 영 학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요즘 기자 새끼들 너무 녹음해서.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알았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너랑 나랑 호흡을 잘 맞춰야 돼, 임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만나자 하면 굳이 나갈 생각도 없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김 만 배 아니, 내가 할라고 그래. 내가 그 말을.

정 영 학 형님이 하십시오. 아니, 그게 정확한 게요,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이 하게. 내가 그럴 거야. 너 욕을 막 하면서. 영학이 이 씨발 새끼가, 너 이새끼야 정재창이 것 안았다고 16%로 끝을 낼라고 그랬더니 25% 맞춰줘서..

정 영 학 제가 16이니까요 예, 예.

김 만 배 응. 그렇게 된 거야, 이 새끼야. 니가 정재창이를 해야지, 내가 그럴거야. 재창이한테도. 나중에. 지금은 안돼. 우형이는 킨앤파트너스 돈 받은 걸로 하고.

정 영 학 예, 예. 아, 그거는..

김 만 배 배성준이도 안 즐라고 그러는 거 형이 준 거잖아.

↳가만배

정 영 학 예, 예. 형님 께에서 준 거죠, 그건.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사실 교환이잖아요. 정재창이가 지것 지분 포기하고 대장동하고 교환을 했고, 사실 그걸 기준으로 지분을 정했고. 제가 이곳 남보다 좀 더 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는 보면 좀, 저도 양보하고 지도 양보하고. 공통비 내놓고.

김 만 배 응,응.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정 영 학 원래는 재창이 걸 같이 부담할 거면, 지하고 지하고 지분이 같아야죠.

김 만 배 응. 16, 16, 16인데. 응? 16, 16, 16이야. 그러면 남옥이가 32가 돼야 되잖아.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거기에 저기 우형이 것 7. 응? 그리고 저 뭐야. 아니 아니, 배성준 것 10하면 10이잖아. 그러면 35가 되잖아. 그렇지?

정 영 학 그 정도 맞습니다.

김 만 배 이렇게 하자고 그래. 15, 15, 15 해서 45인데, 너 25 맞춰주고, 영학이 16 맞춰주고 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응? 거기서 배성준이 것 빼고 뭐 빼고. 응? 아니 아니 그냥..

정 영 학 그 정도 맞습니다. 그 취지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



김 만 배 그렇지. 그렇게 해서 너도 정재창이한테 너는 책임 없다고 해.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원래 니건데 너까지 끌려간거다, 이렇게 얘기해.

정 영 학 그 계산이 맞구요.

김 만 배 정재창이한테. 만약에 그러면.  
내가 볼 때 개네들이 그 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애.  
무슨 말인지 알지? 준비를 많이 했어.  
이성문이가 형을 가만 안둔다고 했다는 등. 너한테. 옥이가 정재창이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3자대면을 하자고 그러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저하고 이성문 대표 (...)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런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재창이가. 3자대면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정 영 학 하시죠, 형님.

김 만 배 내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나왔겠지. 내가 영학이한테 뭐라고 그러면 영학  
이가 성문이한테, 그러니까 성문이가 회장님이 그러시면 제가 가만 안 있  
겠습니다. 이 정도는 술 먹고 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정 영 학 이 대표는 이런 건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설득하겠습니다 내지  
는, 그냥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건 해도요..

김 만 배 응,응. 상관없어. 일단 이미..  
그런데 하여튼간 남옥이 지분은 형성된 범위가,

정영학 예. 제것 (...)

김만배 너, 내가 지금 니편 들어주고 있는 거 알지?

정영학 예, 형님. 맞습니다. 그게 맞으니깐요. 그래서,

김만배 알지? 취지를.

정영학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옥이가 9%를 더 가져간 게요, 그렇게.. 원래는 32% 가져가야죠.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그런데 더 가져간 게.. 더 가져갔다가 인제 아까 빼준 거. 우형이 것 빼 주고, 누구 빼주고 거기서 빼주고.

김만배 응, 응. 그렇다고 해.

정영학 예, 맞습니다.

김만배 16% 처음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45%라고 그래. 40%라고 그래.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니네들이 합쳐서 40%인데,

정영학 맞습니다.

↳ 25:15.

김만배 응?

정영학 예. 그 정도였습니다.

김 만 배      니네들 셋이 40%인데.. 그래야지 말이 되지.

정 영 학      원래 반이었죠. 반. 처음에 이야기가 50%였는데,

김 만 배      반. 50%. 응, 응.

정 영 학      그 중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머지 둘이 나뉘어진 거죠.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래서 니 편을 들어줄게.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래서 재창이도 책임을 니가 져야지. 니가 가져갔으니까.

정 영 학      코너에 몰아넣고 그냥..  
이성문 대표 성향이요 절대 형님한테 반기를 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상관없어. 반기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정 영 학      대신, 일 가지고는 똥고집은 있어서.. 그런 것 외에는 뭐 형님한테,

김 만 배      상관없고.

정 영 학      위계질서를 거스르거나 이럴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이제 뭐 반기를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그거는 개 일이고, 혹은 형의 일이고. 무슨 말인지 알지?  
형은 절대충성 바라지 않아. 그냥 일 잘하면 돼.  
사적으로,

정 영 학      열심히 일하다가 뭐라 하면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김 만 배      그럼. 형은 상관 안해. 뭘 그런 걸 상관해.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고.

두밀사거리는 내가 빨리 계약을 하라 했다 늦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 새끼들 내가 양 전무한테도 그러고 성문이한테도 '계약금 깎지 말고 얼른 해라. 민원도 많은 일이고,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좃만한 돈 아꼈라고 그러다가.. 정보통신비용 그 시에서 공무원 하고 유착되는 기업이 하청업체 가져갈라고 딴 사람 통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데도 참 애를 먹이더라고. 아주 요령 부리고.

정 영 학      그런 일 때문에 형님한테 인제, 형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좀 말 안 듣는 거.

김 만 배      아 그럼. 형은, 그리고 형이 배신을 하든 말든 그거는 형 개인적인 일이고, 큰 틀에서 이성문이 대표로 하는 거, 형은 신경 안 써. 그리고 재창이가 형을 자극하는 게, 나보고,

정 영 학      자극하는 거죠.

김 만 배      뭐라고 자극하냐면, 부장님한테 드려서 회장님한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보고한다고. 응? 그 얘기가 니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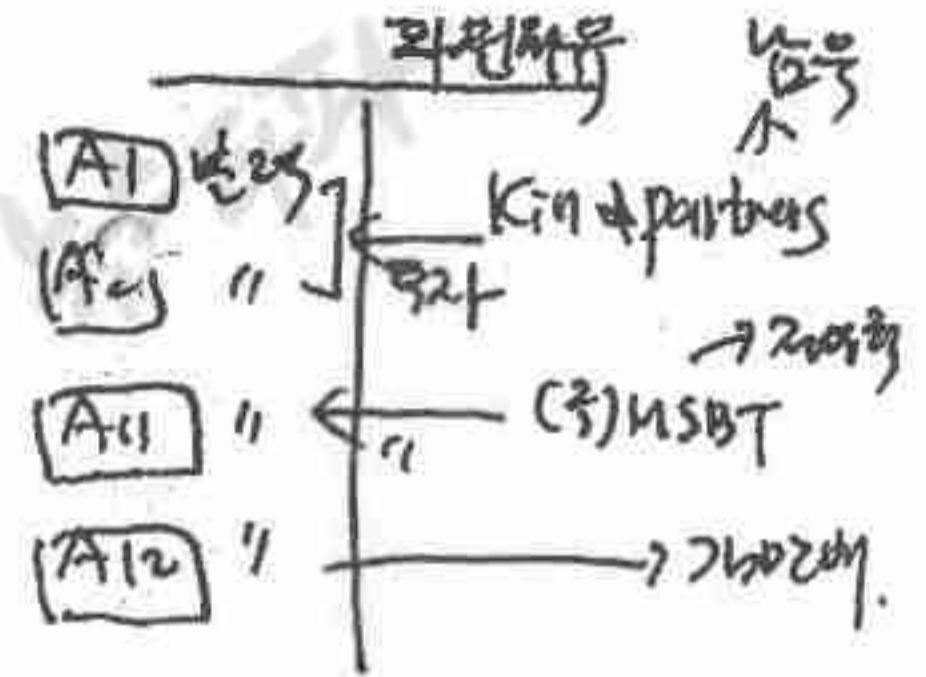
정 영 학      하아~

김 만 배      아니 아니. 야.

정 영 학      이간질 하는 겁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래. 자극하고. 그런데 형은 내가 그랬어.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는 회사 일에 신경을 안 쓰는데,

정 영 학      그게 애들이 가장 무서운 게요, 이성문 대표하고 형님 갈라놓는 거고,



김 만 배 너. 너하고 나하고 이간질.

정 영 학 저하고 형님하고 갈라놓는 거가, 사실은 의심만 심어놓으면 돼요. 그게.

김 만 배 그런데 형은 상관없고. 니가 시작을 한거야, 이 새끼야. 왜 거기 와서 형한테 덤벼, 이 새끼야.

정 영 학 덤빈 거 전혀 아닙니다. 덤빈 거 아니고요.

김 만 배 남욱이가 처음에.. 형이 얘기할게.  
남욱이가 처음에 형한테 불만을 얘기한 거야.  
왜냐면, A11은 형이 얘기했지. A1,2를 우형이가 남욱이랑 캔앰파트너스한테 돈 더 받고 싶어 할 때 내가 '하지마' 이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영학이 형은 A11에서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뭘 어떤 거야?' 그러니까,

정 영 학 다른 건 없고.

김 만 배 조용히 해봐! 형이 얘기해. 자꾸 그러면 말이 끊어지잖아.  
'영학이 형은 거기서 자기 이득을 챙겨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처음에 이랬어. '너한테 A1,2를 주고, 영학이한테 A11을 주고, 형이 A12 가지고 비용 정리해달라 했는데, 거기서 챙겨가든 말든 그 새끼 재주이고, 못 챙겨가면 병신이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자기네도 챙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챙기지 마. 늦었어 이미' 그랬어.  
늦었어, 안 늦었어? 니가 얘기해봐.

정 영 학 지금 이미,

김 만 배 아니, 그 당시. 징역 갔다 와서.

정 영 학 예, 예. 늦었죠 이미. 얘기 끝났는데요.



김 만 배 끝났는데. 끝났는데, 분양했는데 어떻게 일을 할 거야.  
'자, 늦었어. 하지마' 그래서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특별한 얘기도 안했어.

정 영 학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김 만 배 그리고.. 줬는데 뭐 이미.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못 벌어가면 병신이지' 내가 그랬어. 남욱이한테.  
'야, 못 챙겨가면 병신이지.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A12에서 은행 대출하면서 거기에 한거랑 벌써 그 얘기를 해서 불만 섞인 거야.  
그런데 니네들 들이 와서 니가 형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잖아.

정 영 학 제가 옥이한테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김 만 배 그날 만약에 옥이가 A11 가지고 얘기했으면 '야 이새끼야, 니가 먼저 지랄했잖아, 이 새끼야' 그 얘기할라고 그랬어.

정 영 학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억울하다, 좀 도와주라, 했는데, 그거를.. 좀 세게 얘기해주라. 나 진짜 억울하다. 대신 그때 열심히 했다.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얘기한 거야. 너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못 가져가면 바보지. 그거 줬는데' 응?

정 영 학 예. 제가 바보죠 뭐. 가져갈 때 안하고.

김 만 배 응. 하여튼간 옥이의 지분 형성은 그렇게 됐어.



정영학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김만배 (휴대폰통화)

정영학 제가 이병식 부장한테 컨소시엄 팩스 좀 보내달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JR자산운용 JR..

김만배 내가 오늘 저기한테 양 전무한테 전화해서 '아니, 선진이 누구랑 관련된 거죠?' 그랬지. 그랬더니, 삼환이랑.. 삼환이 될 것 같대.  
그래서 '아니 거기를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랑은 친한 데가 아니고, 삼환이랑 친하다' 고. 그러니까 삼환이 할 것 같애.

정영학 예.

김만배 이런 것 일일이 해명하면은 뭐하러 해명하고..

정영학 저한테 공격을 하니까요.

김만배 저기가 얘기하데? 배성준이가?

정영학 아니요. 기사가 났습니다.

김만배 기사를 보여주더라니까. 성준이 앞에서.

정영학 제가 그래서 이게 괜히 오해 사겠다. 제가 뒤에 있을까봐.  
선진이면 형님도 개입돼 있다고 오해도 하겠다.

김만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학 예. 형님이 시킨 거밖에 안 되잖아요. 친한.. 이렇게 인제 소문이 나 있으

니까.

김 만 배 나는 선진은 몰라.

정 영 학 관계없다. 그리고 저도 제가 저스트알하고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김 만 배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나는 하나로마트 건, 영학이 데리고 할 거야. 너랑은 안해, 새끼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뭐래냐면, '저도 형님이랑은 안합니다'  
'너 많이 해, 임마. 나는 영학이..'

정 영 학 애들이 지금 양정을 잘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김 만 배 아니,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정 영 학 형님한테 이렇게,

김 만 배 세계..

정 영 학 대드는 거 보면 애들끼리 뭐가 좀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래. 이미 당선됐다고 이렇게..

정 영 학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 컨소시엄이 오픈이 안 돼요. 전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협약서가 들어가기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들어간 걸 보면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김 만 배 그리고 형이 떠보느라고 '야, 형은 기다리고 있었지. 응? 양완범이하고 이성문이한테..'

정 영 학 줄지.

김 만 배 'AMC를 해주고, 우리 다 택지 하나씩 먹으면 안전하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오더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정 영 학 누구랑 한다 했어요? 안한답니까?

김 만 배 응, 응. 형이 떠났는데, 눈치를 못채. 거기서 유동규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는 해.

정 영 학 시끄럽다고.. 그 기사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성남팀이라는 게 하도 부담스러워서.

김 만 배 그렇지. 동규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겠어. 그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했겠지.

정 영 학 기사가 좀 세계 나오고.

\* 9차 - 31쪽  
유동규: 부패공무원  
(by 2602세)

김 만 배 형은 유동규한테 그래서 (...)  
형은 유동규를 얘기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응? 진짜로.  
내가 그랬어. '너 부패공무원이야'

정 영 학 예..

유동규

김 만 배 '형님, 왜 제가 부패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야, 업자한테 돈 받지. 계집질 하지, 여자가 한들이 아니지. 그런 놈이 무슨 국가에 큰일을 할라고 그러니. 나중에 큰일날라고. 게이트 되게. 지금은 니가 (...) 쓰는데, 대통령의 측근 되는 순간에 (...)전데. 너는 공직 가면 안돼' '안 가겠습니다' '거기 공사 사장이나 이런 것 가'

정 영 학 형님도 거기를 안 마주쳐야 되는데요.

김 만 배 유동규?



정영학 아니요. 남욱이.

김만배 안 마주칠 수가 있니. 정리할 때까지.  
그런데 형은 니가 걱정이 되는 거야. 형은 세서 형은 신경 안써.  
그런데 너는 스트레스에 약하더라고.

정영학 오늘 콩팥이요, 김청수 교수가 48%. 보니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48%가 나와서 인제는 좀 자기가 안심이 된답니다.

김만배 김청수 교수가 남자야?

정영학 남자입니다. 아산병원. 저 수술했거든요. 콩팥을..

김만배 형 여자친구 이름이 김청수였거든. 고등학교 때.

정영학 (웃음) 남자입니다. 남자. 콩팥에 3.3센티 지름을 떼어냈거든요. 상당히 크게 떼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8%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서 자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를 더 잘해달라. 48%면 50% 이하이긴 한데, 그래도 기준이 그 정도가 살아있으면 괜찮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김만배 알았지? 형이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래. 남양주도. 남양주에서 돈 벌든 정재창이가 벌든 니가 벌든 상관 안해. 벌면 좋다고 그래. 그런데 사고만 치지 마. 사고 칠까봐 형은 걱정이야. 왜냐면 돈 버는 거, 돈 벌라고 이 길에 뛰어들었지. 그지?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마. 그런데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형이 지금 이런 얘기, 작전이 아니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나에 대해서 모르냐?

정영학 그냥, 그냥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생각도 하시는 거.

김만배 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남욱이가 형은 어떤 공격을 하든 상관 안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형은 배당 안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김만배 배당을 안하면 돼. 법인을 나중에 해산하더라도 공탁을 걸어놓으면 돼. 응? 무슨 말인지.. 응?

정영학 (..)

김만배 그러니까 1안. 년 내기 싫으면 반은 남욱이보고 내라고 그래. 그래서 정 안 되면 물러서서, 2안, 사람들에게 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형은 남욱이가 저거 이..

정영학 편하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만배 응. 안 내게는 안할거야, 형은. 나는 니가 내면 편하지. 그런데 형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진실이야. 그러니까..

정영학 제가 왜 냅니까, 형님.

김만배 그럼. 안 낼라고 작정한 거야. 그때 낸다고 한 이유는, 저 새끼 남양주 찰라고. 잡을라고 했던 거야.

정영학 그때 남양주 하자고 할 때죠, 그때는.

\*10차 13.25

김만배 형이 볼 때는 이미 재창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

\*11차 14.

정영학 그래서 이거 해놓고 풀어주고 듣고 와서 단절시키고, 형님도 어차피 인제 뭐 이간질 다 시켜놨고.

김만배 그리고 인제 정영학 (너) 하나 두들겨 패서 좀 더 받아내고. (...) 작전이야. 형이 딱 보면 남옥이..

정재창이는 이렇게 정교하지 않아. 땡깡은 부려도.  
되게 정교하잖아.

정영학 사실 저한테 직접 대놓고 요구는 안하고 형님한테 제 욕을 하는 것 보면, 형님 욕한 거예요.

김만배 응?

정영학 형님한테 욕한 거라고요.

김만배 욕한 거겠지.

정영학 형님한테. 저는 뭐..

김만배 아니 그런데 너를 만나서 따져야 되겠대, 셋이. 이젠 재창이 얘기고. 그래서 내가 개를 왜 공격을 하니. (...)

자기 없는데 재창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한테 재창이 욕을 그렇게 했대. 그래서,

정영학 절대 욕 안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김만배 내가 그랬어. '야, 개는 너 욕 안해. 형 앞에서는. 개 앞에서만 하니?'



정영학 그러니까요.

김만배 나한테 (...)

정영학 없을 때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아이, 그럼. 그리고,

정영학 지가 욕하는 것.. 예를 들어 지가 욕하는 걸 제가 거들어줄 수는 있죠. 대화에 동조인데.

김만배 그렇지. 아니, 먼저 그래. 아니, 니가 먼저 욕한 거 아니냐고. 니가 하니까 재창이한테 (...)  
절대 여기에 끼면 안 된다는 놈이 애야?

정영학 예.

김만배 (...) 문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낙지라고 그랬나. 한 발만 들어오면 더 들어온다고. 응?  
형은 신경 안써.

정영학 저도 뭐..

김만배 왜냐면, 욕하든 말든.

정영학 저 그래서 아예 안볼라고 생각을..

김만배 개는 배당 안해주면 죽어.

정영학 예. 근본적인 문제가요, 사람들의 관계를 하도 이상하게 말로 막 안좋게 벌려놓으니까, 아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나중에 큰 싸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김 만 배 왜냐면, 불만 있으면 씹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응?  
근본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정 영 학 기본 인제, 보통 저희 관계는 기본적인 신뢰는 있고, 일하다 보면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뭐 하다보면 뭐, 형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틀리셨는데 아유, 고집 피우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뭐..

김 만 배 그리고 나는 그랬어. 하던 거 하지. 다른 거 안해. 대장동을 마무리 해야지, 남양주 같은 걸 왜 하나. 니네들 다른 것 돈 벌더라도 형은 여기 있어야지.

그리고 보니까, 내가 빚진 게 회사에 400 얼마인데, 그거 갚으려면 800억이 넘더라. 그러면 돈도 없고 해서, 이 사업 하나 해야 되겠다. 영학이하고 하나로마트 할거다.

원래 B1을, 아니 저 안했으면 오리역을 우리가 계약하고, 도에서 지구단위 갱신할 때,

정 영 학 바뀌서..

김 만 배 그 계약된 돈에서 하나로마트로 방향을 전환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

그리고 회장..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 남양주 한다고 돌아다니질 않나. 전설의 남옥 변호사. '니가 떠들고 다녔다며? 새끼야. 응?'

그랬더니 부인을 안하더라고.

형한테 은행에서 물어봐서 내가 '남 변호사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고.

응? '정영학이가 은행에 가 뭘 씹었길래 이 새끼야 그래? 개가 뭘 씹어?'

그랬더니 '아, 이병식 부장이..' '들었어?' 내가 그랬더니, 들은 건 없대. '그런데 왜 씹었다고 그래? 새끼야'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니 귀로 들었어야지. 누가 너를 씹었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지.

들었어야지.

정영학 저는 하나은행 (...) 그게 하나은행이 소개한 (...)

김만배 펀드 내가 옛날에 하지 말라 했지?

정영학 예, 예. 그거는.. 세상살이 호락하지 않아요.

김만배 우리는 주식으로 34억 벌은 거 알어?

정영학 많이 버셨네요. 펀드에서 물려갖고 많이 물렸습시다.

김만배 너는 펀드 하지 말라고 그랬지, 형이.  
염 회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지금 증권사 최고 많이 번 저지른 사람이  
염 회장하고 그 주변인데. 그 사람들..

정영학 작년에 들어준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됩니다.

김만배 펀드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정영학 제가 또 많이 했습니다.

김만배 안 보면 안 돼. 봐야 돼.

정영학 보긴 보는데, 서먹서먹합니다.

김만배 이병식 부장이.. 난 그러잖아. 영학이도 아직 내 성격을 잘 몰라.  
형은 입에서 나간 거는 지켜.

정영학 형님 또 스트레스..

김만배 아니 아니야, 안 받아. 너한테 알려줄라고 그런거지.



형은 그런 거 신경도 요만큼도 안써. 진심이야.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형은, 까서.. 까는 거지.  
 형이 왜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은 거 없어.  
 내가 왜 정리를 했겠니? 가지급금, 형 앞으로, 이미 까져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게 수사 받으면 되지.  
여차하면 형이 깔라고 그랬어.  
 재창이, 남욱이 뭐, 재창이가 밀려나면서 남욱이..  
 형은 남한테 좃빠리들한테 돈 빌리는 거 안해.  
그냥 확! 검찰하고 상의해서, 끝.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봤자 니돈 뺏어갈 거야, 형 돈 뺏어갈 거야? 검찰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 대신에 징역 사는 거는 뭐.. 응?  
그까짓 징역 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 되니? 응?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에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정영학 세금 많이 냈고, 사업 성공했고,

김만배 그럼. 회사 돈 빌려서 내가 쓴 거,

정영학 형님이 갚으시면 되고요.

김만배 갚으면 되고.

어따 썼냐 그러면 '니네가 밝혀' 그러면 되는 거고. 그지? 응?  
 그리고 내가 업체에서 돈을 받았어,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았어? 뭐를 했어? 그런 거 한 푼도 없어.  
 오히려 굴 뚫는 사람들 선물주고, (...) 사람들에게 삼계탕 내고. 노동자들에게. 그런 현장이 어디 있어?  
 공사? 나는 처음에 공사, 최윤길 의장도 알다시피 반대한 사람이야.





김 만 배 겁이 많은 애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이 좀, 뜻이 그러시니까 다행입니다. 애들한테 막 들이밀고 안하시니까.

김 만 배 나는 그런 것은 안해. 너가 해야 돼.  
형은 1단계 얘기한 거야. 2단계. 2단계는 형이 생각대로야.  
3단계, 아주 가혹하게.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형은 절대로.. 너 여기서 형이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겠냐? 형이 간이 적거나 약하면 어울렸겠니?

정 영 학 일단 그건 저야 뭐 잘 알죠.

김 만 배 형은 간 크기는 대한민국 최고 커. 이거 사납게도 (...)  
니네들한테만, 니네들한테만 좋은 형이었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만 중심 잘 잡으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형이 너를 보자고 한 이유는 다른 얘기를 물어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하니까 저스트알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주관이고, 남욱이가 저러는데..  
자, 형은 60억 남욱이한테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좃만이 까블면 안되잖아.  
응? 형은, 너보고 내라는 소리 안해. 너가 다 낸다 그러면, 형은 싫어.  
오케이?

정 영 학 예, 형님.



김 만 배 왜냐면, 저 좃만한 새끼들이 건방 떠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내가 '너 왜 내? 영학이가 내라고 그러지' 이랬어.  
 그랬더니, '아, 저도 내야죠, 형님. 같이 내는 거죠'  
 '그래, 그럼 내!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러면 내야지. 낸다면 해야지'  
 그리고 세금 너한테 자꾸 지랄하는 이유가, 돈 안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알고 있지.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야, <sup>정영학</sup> 개가 무슨 죄가 있어? 돈, 니가 썼어? 영학이  
 가 썼어?' 그러니까, 아유, 자기가 썼대.  
 '그런데 이 새끼야, 영학이가 이 새끼야, 국세청이야? 이 새끼야. 미친새  
끼야. 응?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김 만 배 '개가 국세청이야? 아니면, 뭐야? 새끼야. 응?' 그러니까,  
 '아, 박연주랑 정영학이가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나온다' 고 했대.  
 '야, 이런 미친놈이 있네. 이 새끼야. 개가 그런 말을 했겠니? 미친새끼  
 야'

정 영 학 이번에 처리한 것 중에 일정부분 리스크를 지고 한 건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줬어요.

김 만 배 그런데 우선, 형은 이럴거야. 배당 결의해놓고, 배당 없다.  
 그러게 (...) 말 나왔을 때 했어야지, 왜 내년에 하자고 그래. 공통비를.

정 영 학 저는 이미 내놨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때 말을. 니가 내년에 하자고 그래서..

정 영 학 옥이한테요?

김 만 배 응.

- 정영학 제가 늦추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내놨고.
- 김만배 재네들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느낌이.
- 정영학 저도 안하고 있으면 형님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배당받으려고 하겠죠.
- 김만배 응. 아니야. 그런데 배당은 안한다 그러니까, 겁을 콧 먹더라고.
- 정영학 예. 형님 성격이 있으니까.
- 김만배 겁을 콧 먹더라고.
- 정영학 하고 저게 당선될 게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
- 김만배 저거 기사 나가. 저거 기사 나가. 왜냐면, 저거는 피할 수가 없어. 저거 불법으로 하는 이상 나가. 저거는.
- 정영학 저거를 내보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만배 저 하나은행에서도 나가도록 해야지.
- 정영학 은행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약서가 어떻게 나가요?  
무조건 빌려주겠다. 사업이 망해도 빌려주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안 돼도 빌려주겠다. 이런 확약서라서..
- 김만배 큰일나.
- 정영학 저거 금감원에.. 금감원에 저런 게 통제가 심할텐데.
- 김만배 저거는 일단 나가면 큰일나. 저거는 난리나는데. 있을 수도 없고.

정영학 어제 (...) 빼놓고 또 연락이 옵니까? 개한테.

김만배 형은.. 내가 그랬어. '내가 너, 옥아, 너 전화 수신거부 해놨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정영학 공통비 내기 싫어서 할 거예요.

김만배 개가 전화번호가 어딴어.  
8821. 하나가 더 있는데.

정영학 아.. 요건가 봅시다. 8522.

김만배 8522. 하나 더 있는데 또.

정영학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옛날 번호죠. 잠시 왔다갔다 할 때 쓰는..

김만배 음.. 그래서 하나는 차단해놨어. 형도.

정영학 8522 씁니다. 8522.

김만배 8522. 안 받아. 지난번에 문자도 왔는데.  
전화 안 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정영학 저야 뭐..

김만배 아유, 잘못 눌렀네, 씨팔. 얼른 끊었네.  
알았지? 영학아, 세계 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너랑 나랑 입을 맞춰야 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남욱이 지분은 (...)인데. 형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정영학 예, 맞습니다.

김만배 형은 생각 없어. 좃빵을 치든 뭐하든. 알았지?  
나는 내가 그랬어. 남욱이한테. '나는 너한테 구라 안 까,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구라 깔만큼 약하질 않아. 응? 야 이새끼야, 내 뜻대로 밀고 가지, 병신아. 내가 구라를 까? 이 새끼야. 너희들한테'

정영학 형님한테 힘이 있는데 뭐할라고..

김만배 '구라를 까? 나는 그런 짓 안해. 이새끼야. 니가 이 씨팔놈아, (...) 그리고 이 씨팔놈아, 니가 처음에 영학이 형, 그 11에서 영학이 형 성격상 절대로 차병원만 소개해줄 게 아니라, 김우희 꺼라든지, 그게 영학이 형이 반 이상은 가져간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이 씨팔놈아, 그래서 내가 가져가든 말든, 못 가져가면 병신이지' 내가 그랬지.

'그런데 이 씨팔놈아, 왜 나하고 영학이하고 싸움을 붙여서 영학이가 나한테 그거 가지고 이 씨팔놈아 경비 나오게 해? 이 개새끼야!' 내가 그랬어. '니가 그랬잖아, 이새끼야. 응? 왜 싸움을 붙여? 이 씨팔놈아' 내가 그랬어. '변명은 안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창피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새끼야. 못 가져가면 병신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못했어? 응? 영학이가 못가져가면 병신이다. 니가 영학이 형이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해서, 야, 못 가져가면 병신이지. 가져가야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뭘 왜 싸움을 붙여? 이개새끼야!' 내가 그랬어.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니가 얘기한 거잖아' 그랬어.

'나는 영학이한테 A12에서 비용 만드는데 거기에 쓴 거 아무 얘기 안한

거, 그런 걸 얘기해? 새끼야. 이 씨팔놈아. 왜 니가 싸움을 붙여? 이 새끼야! 그리고 5백 얼마 썼다는데, 가져와봐, 이 씨팔놈아. 어디 있어, 니가? 다 니가 어디다 썼지. 우형이도 그러더라, 이새끼야. 니가 달란다고. 그리고 우형이가 그러는데 이새끼야, 기성이 돈 낼 때도 우형이 돈 내고, 재창이 낼 때도 냈대매. 이새끼야. 응? 뭘 혼자 내, 니가? 이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말로는 씨팔놈 뭐 다 한다 그러고, 나중에 니가 지키는 게 있어?' 내가 그랬어.

'그리고 맨부랄로 이 씨팔놈아,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이 좃같은 새끼' 응?

정영학 고마워해야죠.

김만배 응?

정영학 고마워해야죠.

김만배 내가 그랬어. '맨부랄로 이 씨팔놈아, 이만큼 벌었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 새끼야'

정영학 세상에, 형님이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 챙겨주시고.

김만배 그래. 그리고 지금도 내가 뒤통리 다 해주고, 그 사람들,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 저기도 그 새끼가 내야지. 박영수도. 강찬우도 우리가 고문료 주는 거 지가 내야지. 응? 그래, 안그래? 내가 그런 얘기해도 내가 내는 거지.

정영학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형님.

김만배 아니, 스트레스 안 받아 형은. (...) 형은 안 받아. 너를 염려하는 거야, 이 새끼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니가 자꾸 밀리니까 형까지 오잖아. 왜 밀려? 거기서.  
형은 배당 안하면 그만이야. 안하면 어쩔거야? 응?

정 영 학      제가 죽어도 싸움을 잘 못해요.

김 만 배      개가 죽는 거지.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서 뭐 ‘유동규한테 내가 개 받을게 430억이 있는데 말이야..’  
‘야 야, 좇까는 소리하지 마라. 형은 니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 새끼야. 니가 계산했겠  
지, 이 씨팔놈아. 나는 얼마 배당 나올지도 몰라, 이 새끼야. 그런 거 신  
경도 써본 적이 없어. 선진 니가 얘기한 거야. 선진 너한테 처음 들었어,  
이 새끼야. 그런 거 신경도 안써’  
옛날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정 영 학      저하고 형님하고 몰래 한 걸로 알았을 수도 있나 보네요.

김 만 배      그렇게 지네들끼리 얘기해서 웃었대.  
저스트알, 하나은행, 선진에서 너랑 나랑 했다고. 남욱이 새끼가.  
그런데 떨어졌다고..

정 영 학      (..)  
제가 그거 나중에 컨소시엄 표지라도 한번 좀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김 만 배      아니, 그런 거 하지마.

정 영 학      JR자산운용 (..)

김 만 배      그런 거 왜 필요해? 궁금하면 형한테, 완범이한테 물으면 되지.



내일 회사에서 그 어디 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와가지고 브리핑 한다.  
(..)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그래서 만약에 내일 끝나.. 올려면 오고. 그런데,

정영학 내일 몇 시예요?

김만배 3시. 3시. 그러면 나중에. 아니, 나중에 따로 들고. 따로 들고.  
그건 뭐 내일 시작인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니 선에서 나중에 거쳐야 되는 거니까.

정영학 저는 구리 같은 경우, 사업타당성 확보하기가.. (..)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주의였거든요.

김만배 구리?

정영학 예. 아이 그.. 컨소시엄이 되나.

김만배 내가 그래서 이랬어. 약간 꾸며댄 얘기를 남욱이한테 했어.  
'야, 호반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니가 하는지 알고 있어' 응? 그렇게.

정영학 그걸 호반이 먹었습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남양주.

정영학 아, 남양주.

김만배 그렇게 나는 그냥 그렇게만 던졌어. 팩트 아닌 얘기를.  
너가 했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는 니가 했는지 알고 있었어. 호반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새끼야, 하나은행은 처음에 우리 애들이, 하나은행 회장이 자기랑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니네 (...)

정영학 예..

김만배 그 얘기는 내가 그냥 추측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서 막 속였.. 잘 속였다고 그리고 막 웃겠지 뭐. 응?

정영학 그게 IBK가 (...) 했던..

김만배 저거 그런데 형이 볼 때,

정영학 재창이가..

김만배 100% 수사한다. 응? 왜냐면, 이목 돌릴라고 풀어낼거래. 부동산 자꾸. 저 수사 (...)

정영학 저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그 일반 아파트 분양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줍니다. 정책적인 목적인 거.

김만배 응.

정영학 형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청년주택 이런 거는 해주지만, 주상복합 지어서 분양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걸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기 저, 제가 알기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하더라고요.

김만배 저건 수사할 거야.

정영학 저걸 하느라고 몇억 깨졌을 텐데, 조사할라고 (...)

김만배 아니, 남양주도 그렇고. 형이 볼 때는,

정영학 남양주는 돈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설계를 안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저게 인제,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거 수사 들어갈 거야.

정영학 협약 수수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1%만 하더라도 몇십억 깨지겠네요. 0.5만 하더라도.

김만배 돈을 넣어놓을 거니까.

정영학 넣어놓고 하면 수수료가 훨씬 싸겠죠. 싸게 해도 꽤 나가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그래. 아니 그런데 형이 볼 때는 저거, 공모 취소될 거야. 그리고 당선 무효.

호반이 하면은 호반이 힘이 있으니까,

정영학 막을만 하고요.

김만배 막을만 하고. MDM은 그만한 힘이 안돼.  
MDM에 회사를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영학 그쪽이 LOC를 끊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김만배 그걸 알아도 안돼.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정영학 물어보면 소문 날까봐.

김만배 응.

정영학 'LOC 나왔어요?' 하면, '예. 왜 그러세요?' 하면, '궁금해서요' 하면, 관심 있나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뭐 끝났는데요 뭐.



김 만 배 끝났는데 뭐.

정 영 학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인가이지 않습니까. 7월말이나 8월 초가.  
공통비 내기 싫어서 안 내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김 만 배 <sup>→ 2000억 할</sup>  
너하고 붙을 생각을 하더라고. 전쟁하겠대.  
그리고 너는 해. 형은 배당을 미루고 있을게.  
자, 회의를, 배당회의를 언제까지 해야 돼?

정 영 학 내년 3월요.

김 만 배 3월 지나면?

정 영 학 상관없습니다.

김 만 배 3월 지나고 해도 돼?

정 영 학 3월달까지 주총을 해야 됩니다.

김 만 배 안하면?

정 영 학 주총은 일단 하시고, 배당결의를 한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을 늦게 주시는  
거죠. 배당금을, 공통비 넣으면 좋게.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저는 넣었으니까 이제. '공통비 넣은 사람은 좋게' 하시면 되죠.

김 만 배 응, 응. 욕이가 우기면 어떻게 할거야? 너한테. 자기 못 내겠다고.

정 영 학 그때 반반 내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창이 것 90억 한 거고.

김 만 배      그러면서 지분 얘기를 해. (..)

정 영 학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가장 좋은 얘기를. 너한테.  
왜냐면, 그래야지 너는 자유로워져. 재창이한테. 그지?  
그래서 많아진 거다. 지분이.  
왜 많아졌는데 이게? 그건 자기가 돈도 대고..  
그러면 형이 다 됐는데 무슨 뭐.. 그지? 다 물어보면 되지. 응?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이유를..

김 만 배      (..)

정 영 학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김 만 배      그래, 실제로. 맞아.

정 영 학      실제로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진 지분에서,

김 만 배      그런데 그때 30%만 줄려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5%.

정 영 학      처음에 5%.

김 만 배      응. 5% 준다고 그러다가..

정 영 학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약속을 지키자 해서 준 거고요.

김 만 배      준 거고.

정 영 학      재창이는 끝까지 팔고 나가갖고 저쪽 컨소시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김 만 배      그럼. 남욱이한테 한 얘기는 어떤 것도 보안이 안된다.  
애는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 영 학      그걸 갖고 또 형님한테 돌려서 이야기하겠죠. 말장난 하는 것처럼.

김 만 배      그러니까 조심해. 재창이가 한 얘기도 다 형한테 하니까, 남욱이가.  
지금까지 다 했어. 그런데 최근만 안하는 거야. 싸우고 나서.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형은, 이 너 관련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도 다 알아.  
다 들었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너, 형이 치사해서 그런 얘기를 안했다고. 알았지?

정 영 학      예. 조심하겠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김 만 배      그때.. 아니,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만 조심해.  
그때 그래서 다 들었어. 재창이 얘기, 니 얘기.  
진짜 양아치야.

정 영 학      그런데 제가 말은 심하게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시 형님에 대한 거는 제가, 형님 되게 일상의 업무 잘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에 대한 거, 앞에는 빼고 뒤에만 욕을  
하면,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면 나쁜 거죠.



이해를 좀 해주세요.

김 만 배      아니 아니, 괜찮아. 임금님도 욕하고, 대통령도 욕해.  
그런데,

정 영 학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김 만 배      그리고, 그런데 기본적인 선을 지키면 돼.

정 영 학      저도 조직을 오래 해봤고, 기본적인 절대 선은 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 이야기하면, 야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뭐 그렇게 까지  
했는데..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니까요.

김 만 배      걱정하지 말고.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나는,

정 영 학      저는 싸울 자신 없습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나는 너 만약에 신뢰하지 않았으면 하나로마트 하자고 얘기도  
안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세상에 회계사가 너 하나고, 계약서 쓸 사람이 너 하나냐?

정 영 학      아니, 아닙니다.

김 만 배      많지. 그런데 형은, 옛날에 얘기한 걸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아우~ 야구방망이네. 그지?

정영학 예.

김만배 야구방망이. 엘지9230. 이름은 누구라고 알 수 없네. 철?  
나는 지금까지, 사업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영학이 이익을 지켜줬지, 영학이 이익을 제약하거나 덜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정영학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만배 아니, 처음부터.  
그리고 남욱이 맨 처음에 내가, 우형이한테 남욱이 써라.  
나는 남욱이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형이 도와주러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응? 그런데 조심해라, 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욱이한테 너는 이 사업적인 얘기를 던지면서 재한테 하라고 그러면 재는 할거다. 응?

→ 우형

그리고, 남욱이 운전하던 놈이야. 우리 골프장 가면. 무슨 말인지 알지? 변호사인데 운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전투를 겁내지 마. 즐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영학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줌이 꺼매요.  
오늘 물어봤더니 48, 점점 기능이 떨어지다가 48에서 멈춘 게 한 3년제거 든요.

김만배 그러면 됐어. 48.

정영학 예. 몸무게가 10키로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만배 빼야 돼. 버거워.

정영학 몸무게.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김만배 걷는 게 최고 좋아. 형은 매일 1시간 반 걸어. 매일 걸어.

정영학 살 좀 빼야 되고. 그래야 콩팥에 과부하 잡고.

김만배 운동을 매일 해. 대신에 걸어.  
이 배가 뭐냐? 이게? 씨팔, 아유 진짜.

정영학 (웃음) 팩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척추는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말고.

김만배 (...)

정영학 예. 척추 검사할 때 뼈 검사도 다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다. 조금 아프면, 통증이 오면 척추가, 살 좀 빼서 검사 한번 해보자, 지금은 하지말자. 비슷한 것 같다. 콩팥이 혈액 쪽이니깐 뼈에 이상이 있을까봐.

김만배 내가 인제 나중에 남욱이한테 어떤 경우든 만나든 뭐하면은 '너는 새끼야, 영학이가 이 씨팔놈아 15%. 처음에 5%였었는데, 니네 30% 줘서 영학이 15, 너 15인데, 영학이가 너 그만큼 올려준거야, 야 이새끼야! 응? 애초에' 이렇게 얘기할거야, 내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해. 아니면 니가 먼저 만나면 그렇게 해서, 재창이 것 때문에 그랬지 내가.. 알았지?

정영학 네, 네.  
그것도 형님, 전체가 화천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줘도 돼요.

김만배 그래. 안줘도 돼, 원래. 안줘도 되는 거였어. 형이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문이가 15% 자기 앞으로 하자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니가 안 된다고 그랬지. 니가 그랬잖아. 그런데,



정영학 그 정도 챙겨줬으면 잘 해준 건데.

김만배 성문이는 120억 줬어. 형이.

정영학 남욱이도 그 정도 챙겨줬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김만배 너무 많이 줬어. 그지?  
너랑 내가 하나로마트 한다고 그때 얘기했더니, 황당해 하더라.  
약올릴라고 그랬던 거지.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남욱 + 정영학 자주 만나고 왔다.

김만배 재창이 형은 자주 본대. 응? '그래, 열심히 해. 같이'  
'형은 영학이랑 한다고 난 생각했는데' '예?' 그러더라고.  
'아니, 분당 하나로마트'  
아쉬워. 오리역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정영학 저는 강북쪽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김만배 응?

정영학 강북쪽은. 강남에 판교나 과천이나 의왕이나 요 정도는 좋아하는데.  
강북이 잘 될까요?

김만배 아니, 정부는,

정영학 워낙 부족하니까.

김만배 정부는,

정영학 네.

김 만 배      국회도 옮길 거야. 청와대는 내비두고,  
청와대가 있으면 수도 이전이 안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취지가,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국회 (..)

정 영 학      저는 하도 부동산 쪽을, 계속 언제 무너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김 만 배      그런데 국회가 옮기는 순간에 서울은 무너지게 돼 있어. 내년엔 강남역이  
무너지듯이.  
화장실 갔다 올게.

정 영 학      네, 형님.

(잠시후)

정 영 학      내일. 내일 비가 안 오네.  
아, 내일 비가..

김 만 배      많이 온대?

정 영 학      아니, 안 옵니다.

김 만 배      오면은 (..) 와.

정 영 학      좀 쉬어야 되는데.

김 만 배      그리고 회사에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어. 너 참여할 거라고.  
어제 회의 시간에.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완범이가 아, 정영학 회계사님도 이렇게 큰 사업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정영학 양 전무가요?

김만배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그랬는데.

정영학 하도 많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만배 아니, 몰라 나는. 양 전무는 다른 애야.  
양 전무는,

정영학 일 때문에.

김만배 일로 인해서는 개는 절대로 사견이 없는 애야.  
내가 그랬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불도저 같은 힘이 필요했는데 이성문이 말을 많이 듣고, 마무리는.. 마무리를 많이 한 건 양완범이 말을 들어. 응? 절대로 길 바깥에 나갈 애가 아니야.  
그리고 마무리 때는 돈을 아끼면 안돼.

정영학 예. 아니 그런데 사실 뭐, 제가 하는 일 양 전무가 다 할 수 있어서, 양 전무가 제가 필요할 이유가..

김만배 그런데 양 전무가 그러더라고. 회의 말미에.

정영학 (웃음)

김만배 양 전무 좋은 애야. 성문이도 좋은 애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참, 지금 멤버들이 정말 좋거든요.



김 만 배      응, 그래.

정 영 학      그런데 저 사람하고..

1화 4  
3화 35.

김 만 배      재창이는 형한테 한놈만 패겠다고 얘기해.      그 얘기 한놈이 누군지 알지?

정 영 학      예.

정영학

정영학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가.. 옛날에 형하고 이거 하기 전에.  
그날도 이런 얘기하다가 틀어졌어.

'야, 이미 땀이 벌었는데, 왜 한놈만 패니? 그리고 (개) 없으면 니가 일을  
했겠냐. 지금까지. 니가 뚫고 뭐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완성을 개 없  
으면 하나. 서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형님은 (...)라고. 이거 다 풀어달라고. (...)

'이 씨팔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돈을 받았어? 한푼이라도. 이 새끼야'  
응? 내가 그래서 남욱이한테 그랬어.

정 영 학      제 예측대로예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뺏고 이리 가겠다 이렇게 예측하  
고 있었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김 만 배      그런데 형한테는 안 되지. 남욱이한테 내가 며칠 전에 그랬어.

정 영 학      (...) 딱 그러서..

김 만 배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새끼야 주둥이는 다 알지. 낚시 간다고 그랬더니,  
형이 80만원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안줬지? 애들한테는 800만원 줬대매?  
응? 재창이 그러더라. 형 쫓아와서 8백만원 줬다고.

야 이새끼야, 성준이랑 나랑 기다렸어. 비 오던 날. 그런데 80만원 달래도  
안줬지? 그리고 이화영 선거한다고 처음에 천만원 해준다고 그러더니 안  
해줬어' '그거 화영이 그 나중에 조금이라도 해줬는데'

'나중에 해줬지. 300만원. 응? 응? 나중에. 그걸 쓰고 나서. 그러면서 에

들한테는 너 형 돈 줬다고 했지? 300만원 줬어'  
'형님, 제가 좀 줬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학이 형한테'  
'이 씨팔놈아, 언제 줬어?'  
가자~

정 영 학    네, 형님.  
화장실이..

종 업 원    화장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정 영 학    네, 네.  
얼른 화장실 갔다 올게요.

김 만 배    갔다 와. 여기 있을게.

정 영 학    네, 네.  
(뚜벅 뚜벅)

김 만 배    차는 어디 있어?

정 영 학    저기 주차장이에요.

김 만 배    아까 여기 애들이다. 애들이. (...)

정 영 학    예.  
(뚜벅 뚜벅)

김 만 배    차 빨리.

정 영 학    아, 예.

늦게 다니시는데, 운전 편찮으십니까.

김 만 배 아, 편찮아. 그냥 (...) 있는데.

정 영 학 (웃음) 예.

김 만 배 그리고 너무 비밀통화를 많이 해서..

정 영 학 (웃음) 형님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네,네. 형님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부웅~~)

정 영 학 제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아니야. (...)

정 영 학 참~ 형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김 만 배 나한테는 감사하다고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공통비는 못 내겠다는 거야.

정 영 학 그거죠 뭐. 예, 예.

김 만 배 그런데 말로는 영학이 형이 다 내야 되는 건데..



정영학 네, 네. 아니, 지 배당 빨리 해준 게, 제가 무슨 죄입니까.

김만배 응. 그런데,

정영학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야지.

김만배 고마워해야지, 사실은.

정영학 예. 사실은 배당 빨리 해줘서 고마워해야죠.

김만배 그렇지. 공통비도 막말로 안 내는 거 아냐? 다른 거. 그지?

정영학 네, 네, 네. 고마워해야죠. 진짜로.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고마워해야 할 일을 진짜 그렇게 욕을 하는지..

김만배 그래. 저 차 지나가면 내려.

정영학 예, 형님.

김만배 (..) 더 있냐.  
그래 그래.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잘 가.

정영학 조심히 가십시오.

김만배 그래.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간다~

정영학 네,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예.

(차문 닫는 소리)

김만배 건강 조심하고~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김만배 내일 비 오면 와.

정영학 네, 알겠습니다. 예.

김만배 다음에는야 (...)

정영학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끝)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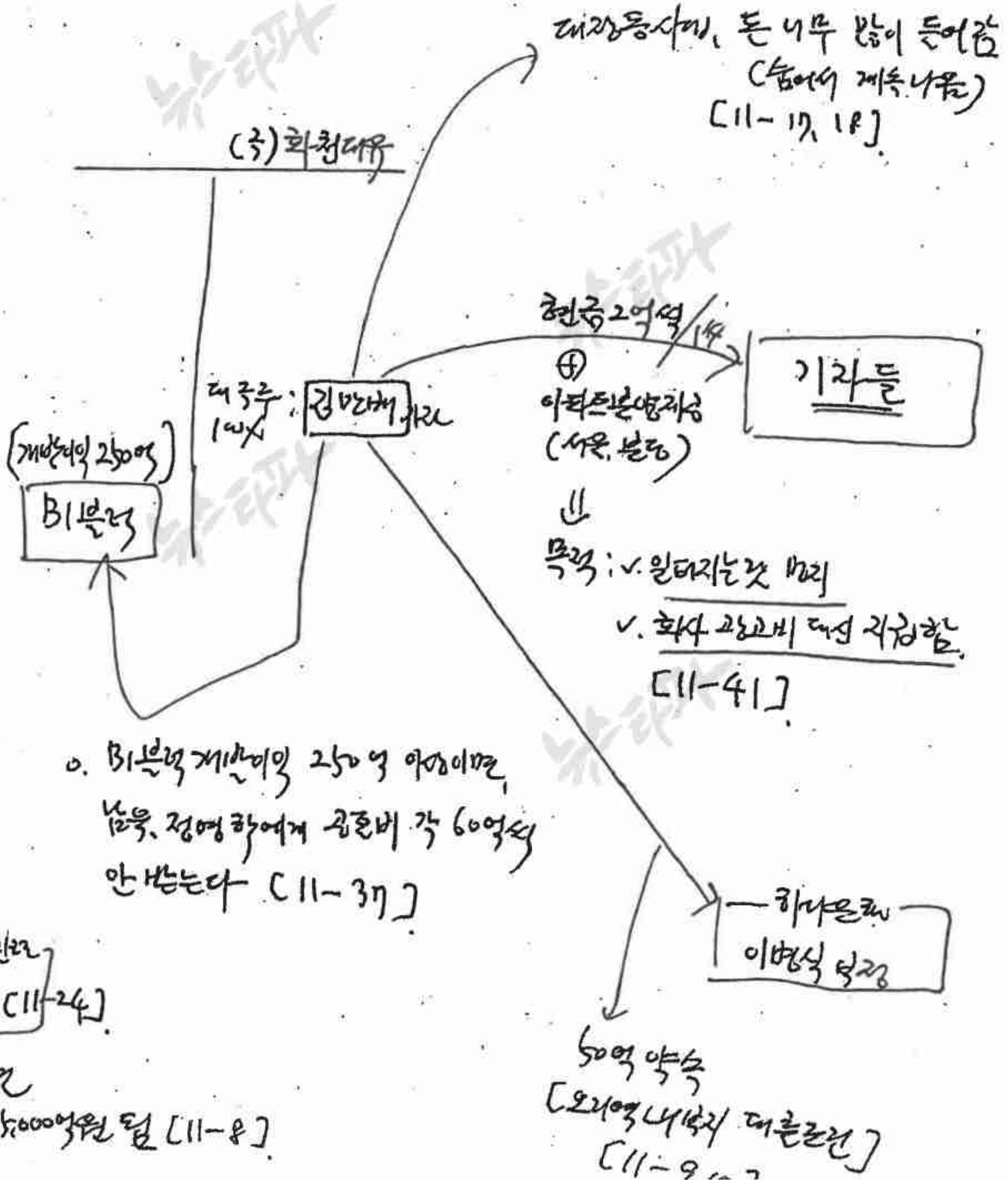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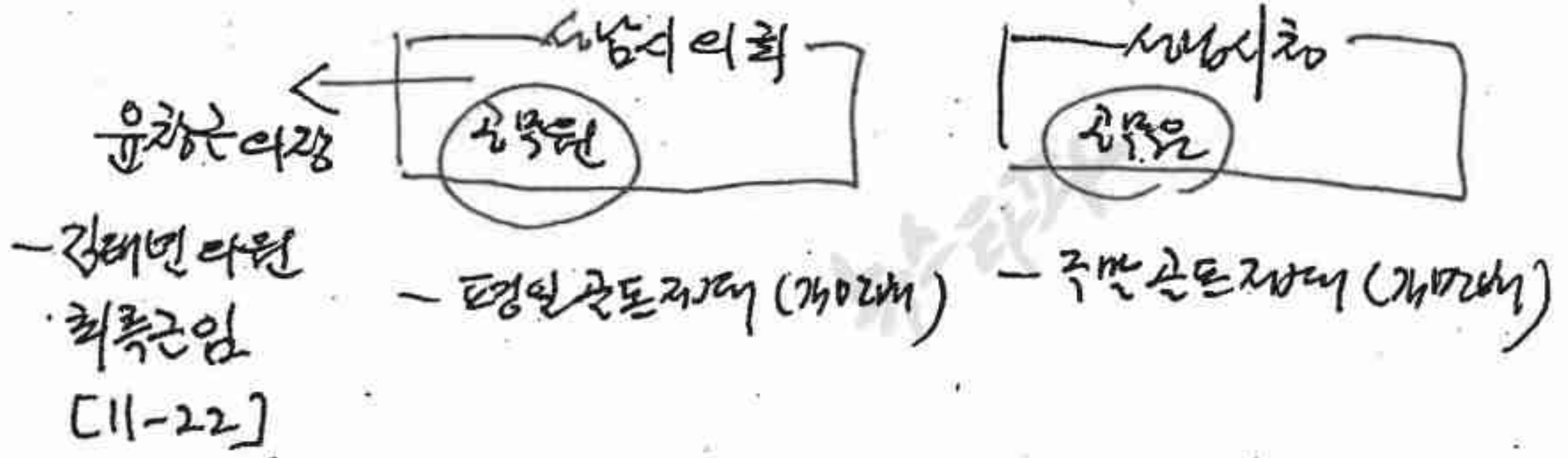
뉴리과

뉴리과



11차 (은약) - 수정본

2020. 7. 29.



11차 (특정)

- 녹음일시 : 2020. 7. 29.(수) 20:30~
- 녹음장소 : 판교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1:12:49 대화중, 4:14~)

김 만 배 재창이가 먹을 것 같애. 그지?

정 영 학 예. 분위기상. → 키움증권 상무

김 만 배 분위기상.           이랑 뭐 같이 한다는데.

정 영 학 네,네. 그.. 아니, 저는 어제 하도 그래서 쪽 좀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일단.

김 만 배 응. 산업은행은 안 가고. 그지?

정 영 학 네. 저부터 하면 저는, 제가 제것 파악한 거거든요.

김 만 배 응,응,응.

정 영 학 하나은행. 한국토지신.. 자산신탁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 만 배 응, 응.  
한토신이 저기 꺼 아니야?           이 꺼 아니야?

정 영 학 거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이.

정 영 학 예,예,예.

김 만 배 음.. 그리고, [redacted]이 꺼지, 그거?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MDM.

정 영 학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육이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RE자산  
운용이 주고요.

김 만 배 이거는 금융으로 하고, 응?

정 영 학 네. 형님 드십시오. 저는 이걸..

김 만 배 아니, 같이 먹어.

정 영 학 그런데 저스트알 이름이 나오긴 나왔냐 했더니,

김 만 배 어디에, 그게?

정 영 학 문화체육시설 저스트알이 이번에 보고서를 썼답니다.

김 만 배 아이! 그거 나한테 변명 안해도 돼. 안해도 돼. 변명 안해도 돼.

정 영 학 괜히 형님 그냥 걱정하실까봐.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야. 상관없어.

정 영 학 제가 안 어울릴라고. 가급적이면 그쪽에 안 갈라고.

저희 꺼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움직일 생각도 없고.

아니 또 할라면 형님한테 상의 드리고 해야죠.



김 만 배 아이, 뭘.. 나는 해도 상관없다고 봐.

정 영 학 그 다음에, 시행은 GRE자산운용에서 했구요.

김 만 배 아, 이게 그거구나.

정 영 학 예. 외국계 회사이고. 회계는 KPMG의 애들이 영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7천만원 주고 했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사무실 1억. 문화체육시설 1억4천. 그래갖고 토탈 한 4억 들었다는데요. GRE가 손해 보고 끝났고.

김 만 배 이게 그거지?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요번에 그거..

정 영 학 사실 뭐 도원은 어디에도 안 나오고.

김 만 배 아니 참, 영학이 참 소심해. 보면. 아이, 영학아.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씹새끼 이게 무슨..

정 영 학 (웃음) 그러니까요.

김 만 배 요번에는 저기는 저 뭐야, 호반하고..

정 영 학 수협을.. 수협이 IBK 컨소시엄에 들어가니까,

김 만 배 그래?

정영학 그냥 들리는 소리가, 정말 조그마한 시행사인데 잘 모르겠다. 하고는 있다. 제출은 다 했다. 듣보잡 시행사인데, ■■■이 주도를 하고 있다.

김만배 ■■■이 (...) 재창이.

정영학 예. 그다음에, 이 ■■■ 부장이 에이엠씨 사장으로 갈 생각이다, 까지는..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IBK 생각은 5천억짜리 협약서가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봅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하나은행도,

정영학 웬만하면 못 씁니다.

김만배 못 쓰는데 (...)

정영학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 원래는 이 부장이 올랐더니 너 사표 내라 했답니다. 심사부서에서. 미쳤니. 그런데 나온 거예요. 위에서 회장이. 불가능한 게 나왔기 때문에..

김만배 응. 그거 인제 나중에 문제 돼.

정영학 예.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들어간 이유는, 골 때립니다 이게.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김만배 응.

정영학 웬 국회의원 보좌관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공모현황. 지금 그 다음에 이번

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따져가지고 거의 정신 병 걸릴 수준이랍니다.

김 만 배 어디서?

정 영 학 산업은행 담당이. 국회의원 보좌관,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김 만 배 음.. 왜 그럴까?

정 영 학 뭐, 국회의원 보좌관 움직일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정민용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산업은행이 저게 발행이 안 돼 버린 겁니다.  
산업은행 쪽은 탈락으로 보이구요. 오늘 쪽 돌아다니는데,

김 만 배 MDM은 탈락했네?

정 영 학 예. 오늘 돌아다녀본 결과.  
어제 그제 형님이 뭐라 하셔서, 저 아닌데요.. 이거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그냥 여기저기..

김 만 배 그러면 육이랑 재창이랑 하는거여, 아니면 어디야?

정 영 학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김 만 배 너한테 올거다. 재창이가 먹었으면. 그거잖아.

정 영 학 아니요.

김 만 배 재창이는 저거 마무리 못해.

정 영 학 저는 진짜 생각 없습니다.



김 만 배 나는 오면 해도 된다고 봐.

정 영 학 저는 형님 우산 밑에 있어야 편한 걸 알겠어요.

김 만 배 난 여기 있는 게 좋아.  
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합쳐서, 혼자서 토목공사 합쳐서 3천억 벌어서, 응?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다른 사람들도 주고 뭐..

정 영 학 제가 또 배꼬래가 제가 적어서 별로 욕심도 없고.

김 만 배 아니 아니, 뭐 많이 벌어야지 맞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버는 게 어때.  
나는 어제 회의 때도 그랬어.

정 영 학 어제 회의 잘 하셨습니까.

김 만 배 그런데 애들은 겁을 좀 먹더라고. 딱 보니까. 하나로마트 애들.  
범위도 크고, 세입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풀 되는 거 아니냐.

정 영 학 양재역 남부터미널 쪽 하고, 화물터미널도 세입자 때문에..

김 만 배 응. '니네 그러하면은 오리역 해' 내가 그랬어. 오리역을. 응? 오리역을.

정 영 학 네. 오리역 편하죠.

김 만 배 '하려면 그걸 해. 그래서 하나은행 이병식 부장이 거기 무슨 위원이니  
까' 응?

정 영 학 예. B1만 빨리 자금을 저기서 100개만.. 50개만 물어놓고 빼버릴 수 있도  
록 구도를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개 정도만 물어놓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나머지 다 빼버리면.

김 만 배 B1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정 영 학 그럼 빨리 추진을 해서 본PF 하면 80억만 놔두고 빼달라 해도 되거든요.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정 영 학 예. 그럼 기껏 물려봐야 80억이고, 정식으로 해달라 하면..

↳ 성남시 건축과 ↳ 성남시의회

김 만 배 아니, 이제 우리가 윤남엽이 만났거든. 윤창근이 통해서.  
도에다 얘기했더니, 윤창근 의장한테 얘기를 해도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윤남엽이 분당 야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애초 불가능한 안들이었더라고.

정 영 학 어디가요? 저기,

김 만 배 B1에.

정 영 학 아!

김 만 배 정일천이가 추진했어.

정영학 아, 그게요?

김만배 응.

정영학 빨리 턴 해야죠 그럼.

김만배 아니 그래서 턴 빨리 할거야.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오리역(LH사업부지)도 내가 얘기했지. 3,500억이든 얼마에 땅을 사. 그러면 나중에 5천만원 안 될 것 같지? 금방 돼.

정영학 상업용지는 금방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럼!

그리고 우리가 저 신흥동 공원 준공되면 검찰청하고 법원이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오리역에 있는 땅을 팔 거야. 그런데 그냥 팔아서도 안돼. 용도를 바꿔야 돼. 응?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 한 5천만원 넘게. 그러면 우리 땅도 저절로 팔려. 그래서 내가 오리역 할라고 그랬던 거야. 오리역으로.

정영학 빨리 설득해서 한 80개에서 그냥 많으면 100개 정도 물어놓고 뺄 수 있도록만 하시면..

김만배 그러면 계약하면 되지. 이 부장하고 언제 휴가 끝나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정영학 네, 형님. 네, 네. (...) 줌..  
저 펀드 때문에 아예 그냥 제가..

김만배 응?



이병식 부장 (하나은행)

정영학

펀드 때문에 영 사이가..

김만배

펀드에다 돈을 왜 넣니.

이 부장 50개는 내가 해줄게. 나중에.  
사표 내게 해서 자산운용 하나 차려주든가.

정영학

(웃음) 보니까 금전성향은 없어 보입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사람이.

김만배

아니 그래도 자기 일 좀 한번..

정영학

월급쟁이는 해도, 돈 받아서 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50개 주고.

정영학

형님이 자산운용사 차리시면 거기서 월급쟁이는 해도, 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만배

아유, 내가 왜 차려. 차려줘야지.

정영학

자산운용사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부실덩어리입니다.

김만배

난 안해. 나는 그런 거 안해. 그런 거 안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주식을 잘 아니까.

정영학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예.

김만배

한 50개 주면 되지 뭐. 이병식 부장. 그러면 되지 뭐.

↓  
50억

정영학 자주 봐도, 가끔 봐도 그 이야기는 전혀..

김만배 아니, 내가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줄 거야.  
안 받아간다면 고아원에 기부를 하는 거지.  
뭐하러 펀드를 해. 내가 얘기했잖아. 펀드 그 유명하신 분들.

정영학 제가 좀, 들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했던 거라..

김만배 브라질 펀드 해가지고 네 명이서 1,200 넣고 했는데, 300억 남은 거야.  
중도해지 해도. 생각해봐. 1,200억 중에,

정영학 형님, 저는 연락도 안 된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저는 연락도 안 된답니다. 펀드 가입한 자산운용사 연락도 안 된답니다.

김만배 그래. 다 구라꾼들이여. 옵티머스도 그렇고, 다..

정영학 개들 은행들이 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팔아먹느라 바빠갖고.

김만배 그럼.

정영학 여태까지 보면 계속 앞에 사람 빼달라 하면 빼주고, 뒤에 사람 갖다 메꾸고.  
이게 보면 폰지였죠. 폰지.  
제가 갖다 올게요.

김만배 아니, 내가 할게. 내가 녹차나 한잔. 따뜻한 거.  
카모마일 하나 주세요. 카모마일 해?

정영학 아니, 괜찮습니다.

(잠시후)

김 만 배 성문이는 요새 좀 기분이, 전화 통화했는데,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나봐.  
좀 침울해.

정 영 학 예.. 왜 그럴까요?

김 만 배 몰라. 내일 산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내일 간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봐.

정 영 학 저야 잘.. 뭐라 하셨습니까, 형님이?

김 만 배 내가 성문이한테 뭐라고 그래. 지난번에 한번 혼냈지.  
나는 확 화내고 끝이야. 원래 성격이. 응?

정 영 학 이 대표도 꿈한 성격은.. 여태까지 제가 5년을 봤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단 한번도 윗사람에 대한..

김 만 배 아니, 그래. 성문이 멋있어.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성문이한테 그랬어. 저번에 화내놓고. '니가 시작했으니까 이 새끼야 니가  
마무리 해, 이 새끼야'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정 영 학 업무 갖고 뭐라 하시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죠 뭐. 그거 갖고 꿈할 스타일  
도 아닙니다.

김 만 배 어른인데 (...)

정 영 학 B1..



김 만 배 재창이가, 저것 재창이가 먹으면 너한테 올 거야.

정 영 학 저한테 하자고 할 이유가 없죠.

김 만 배 아이~ 그러면 해줘. 괜히 옥이한테 덜러덩 넘어갈까봐. 재창이도 망하고 다 그래. 그러면 개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시끄럽지 않지. 응?  
내가 볼 때 찾아와. ↳ 남쪽 + 장례식.

정 영 학 그런데 하나은행이 확약서를 끊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 만 배 주지형이가 재창이하고 얘기했는데, 호반은 넣으면 회계를 너한테 시킬 거 아냐.

정 영 학 전혀 아닙니다. 호반은 전혀.

김 만 배 그래. 그런데 재창이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재창이는 너한테 와.

정 영 학 재창이하고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

김 만 배 일로 하는 거지 무슨.. 이제 지금부터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이지, 무슨.. 응? 영학아. 일. 일.

정 영 학 저야 형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김 만 배 나는, 나는 하게 된다고 봐. 일로 하는 거지 무슨.. 서로가. 응?

정 영 학 저야 뭐 능력도 안 되고.  
두군데 중에 한군데로 보입니다.

김 만 배 재밌어, 하여튼간.  
호반은 누구누구 먹는 거야? 호반 혼자?

정영학 호반,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나머지와하고,  
저쪽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 MDM

김만배 MDM?

정영학 예. MDM 쪽. 그런데 거기는 신한은행도 협약서 발급이 안 됐구요,  
산업은행도 안 됐구요. 빵점입니다. 빵점. 백점짜리 중에 빵점.

김만배 국회의원 보좌관 누가 전화 왔을까?

정영학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행을 할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냥 포기했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소문이.

김만배 응.

정영학 발행이 된다, 안된다 엄청 시끄러웠나 봅니다. 내부에서.  
오늘 접수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니까, 지켜보시죠.

김만배 보면 MDM이 떨어진 거네?

정영학 거기를 보면 별도평가 100점짜리거든요.

김만배 100점?

정영학 예. 별도평가 100점짜리인데, 세 개이기 때문에 100개를 3등분을 하면 100  
점, 50점, 20점이거든요.  
50점 수주면 상대평가 50점은 극복 불가입니다.



저희 때는 2.5% 허들이 극복 불가였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 허들을 못 넘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금 파킹하고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 만 배 재창이?

정 영 학 네. 예금 파킹하고 발행하면 되거든요. 다 파킹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설득의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진짜 MDM 같은 경우는 5천억을 파킹하고 1년반을 참느냐.

김 만 배 MDM은 돈이 없어.

정 영 학 예. 애네들은 있으니까, 파킹할게요.

김 만 배 그러면 호반이, 앞으로 호반 천하가 되는 거네.

정 영 학 그 방식으로 나오면. 사실 좀, 형님도 하실 걸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면. 시끄러워서.

김 만 배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 동생들이 한 일이라 나한테 심하게 하면 안 될 거고, 두 번째. 대장동 일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

정 영 학 차라리 형님이 하셨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했을 것 같거든요. 편하게.

김 만 배 남양주 양정리구 개반사입문  
재창이는 이미 욕이하고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나한테는 약간의 경비를 엔트리 비용으로 사기로 받아갔고.  
그러면 결국은 나하고 욕이하고 계속 싸움을 붙이겠다는 건데. 그지? 응? 난 안한다.

정 영 학 저도 지금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 9차 30

A 10차 13.36



김 만 배 그냥 나는 나의 시장을 개척할 거야.

정 영 학 그렇게 하십시오. 회사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뭐 밖에서..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그래서, 큰 것도 해봤구요.

김 만 배 시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서 하나로마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겁먹어서.. 겁먹으면 안돼.

정 영 학 세입자가 좀 까다로운가 봅니다.

김 만 배 거기..

정 영 학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농수산물 파는 도매상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김 만 배 원래 장사하는 애들이 좀 무서워. (...)

정 영 학 아, (...)

김 만 배 그래서 인제 SRT까지 넣는 걸로 시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애들이 겁먹었는데 (...)  
오리역이나 할 거야.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너도 합류해. 오리역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양정 하라고 그래도 할까 말까 고민이었어.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힘들어. 오랜 기간.  
나는 공모 나오는 것 하나씩 재미 삼아서 하라고 그랬던 거지, 이제 모험

을 하고 싶지는 않아.

정영학 저희가 인제 주택건설 사업실적이 한군데는 되지 않습니까. 신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금 3억들은 다 넘지 않습니까. 1,2,3,4. 4 빼고. 저도 넘고.

김만배 응, 응.

정영학 돈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김만배 그럼. 이 회사들 이용했잖아.

정영학 100억씩 해서 그냥 다 넣고, 떨어지면 다 빼고..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김만배 응.

정영학 추천?

김만배 응?

정영학 추천?

김만배 응.

정영학 지난번에 공모 잘 안하실 것 같으셔서. 추천이나 이런 거.

김만배 응?

정영학 추천 이런 걸 잘 안하실 거라고..

김만배 그런 거 재미 삼아서 하게.

정영학 그러십시오, 형님.

김만배 그럼.

정영학 돈 안 들어가거든요.

김만배 그럼. 돈 안 들어가. 위험 안하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런데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음. 너무 많이 지쳐. 아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웃음)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응. 아.. 너무, 너무..

정영학 빨리 들어가시는 걸 못 봤습니다. 계속 늦게..

김만배 응?

정영학 빨리 들어가시는 걸 못 봤습니다. 아유, 진짜 힘든 자리입니다. 형님 자리  
가.



2021. 8. 15.

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착수 : 네이버 포스트

경기도가 1조6천억 원 규모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중부일보 7월 6일·9월 11, 자 1면 연속 보도)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민간사업자 입찰 공모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나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 두 차례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계속된 탓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제보 등이 잇따르자 도가 결국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사담당관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이번 특별조사 안건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 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이들 대상은 각종 특혜 의혹 제기 및 도민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 구된 것들이다.

도는 특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중부일보 보도를 비롯한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개별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의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양정역세권 2구역 개발사업은 상패동 일원 약 82만4천242㎡에 오는 2024년까지 종근당 바이오·저 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 4차 산업 도시지원시설 및 주거·상업·유통·복합시 을 갖춘 직주 근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E 은행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비는 약 1조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사업자 공모 과정서부터 '공모 기간' 및 '특정 항목에 대한 배점' 등 업체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국리회

이 가운데 사업을 담당했던 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B씨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공모과정에 개입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자 공모 탈락 컨소시엄들은 두 차례 의정부지방법원에 '입찰절차 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월 8일, 11월 16일 각각 법원서 기각됐다. → 국리회

도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 예정"이라며 "익명제보, 공익제보가 계속된 사안으로,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 사 중대하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양주도시공사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이후 이후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본격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 접수됐던 관련 사업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어느정도 사실 계가 입증됐다"며 "내부적으로는 (이번 조사가)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김 만 배 왜냐면, 이 대표나 양 전무는 정해진 일만 하면 돼.  
 그런데 나는 뒤에서 술자리 배려해야지, (...) 해야지, 쓰레기 치워야지.  
공무원들 접대해 줘야지. 토요일, 일요일날 골프 쳐줘야지. 시의원들 평일  
날 골프 쳐줘야지. 응?

\* P. 4쪽

정 영 학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응. 아,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야.  
 그래서 공모는 저런 남양주 이런 건 안할라고 그래.

정 영 학 예. 단수추천만.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왜냐면, 아.. 쉬운 일 아니야. 거의 남양주 호반 (...)  
 그런데 재창이는 내가 볼 때 (...) 걸릴거다. 정재창이잖아. 응?  
기자들이랑 검찰은 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정 영 학 휴가는 어디로?

김 만 배 강원도.

정 영 학 아, 알펜시아?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이 부장이 땅값을 얼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아봤자 지금 한 3  
 천5백에서 4천정도 될거야. 땅값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 오리역에 법원, 검찰청 부지를 우  
 선 바꿔야지. 우리 걸 먼저 바꾸지 말고. 응? 왜냐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정영학 네, 네. 모델하우스 부지.

김만배 모델하우스 부지.

정영학 네.

김만배 그거 바꾸면은, 용도를 바꾸면 옆에 있는 건 저절로 돼. 그지? 아니면 바꿔서 우리가 그거를 사도 되고.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기 때문에 대장동.. 아니, 신흥동으로 법원, 검찰청 부지가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땅값으로는 안돼. 법원, 검찰청은 이걸 풀어서 비싸게 받아달라고. 그러면 한 5천만원 되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그거 사도 되고, LH 것 사도 되고.

정영학 저희 쪽에 안 들어오는 건가요? 1공단 부지에는?

김만배 그리로 가지. 가는데,

정영학 아, 땅값이.. 아.

김만배 땅값이 없잖아. 법원, 검찰청 부지.

정영학 그 땅은.. 아, 이렇게 빼놓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용을.. 아, 저걸 팔고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김 만 배 응, 응. 그래야지 쥐는 돈까지 먹을 수 있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인제 맞바꾸는 거지. 이참에.

정 영 학 예. 거기 바꾸면 당연히 오리도 또 있으니까요.

김 만 배 응, 응.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은 바뀌서 팔 거야. 그 땅을 사도 되고, 오리역 땅을 사도 되고. 그런데 한번 고민은 해야 돼. 고심 많이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응?

정 영 학 형님이 고민하셔야죠. 답이 있겠습니까.

김 만 배 아니, 그렇지. 응. 그런데 나는 오리역 LH공사 같이 할 거야. 그게 지하철도 돼 있거든. 그게 좋아. 그리고 여차하면 한진을 올릴 수도 있고, 거의 삼성일 수도 있고. 조원태가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년 걸리는 거는 괜찮겠습니까?

김 만 배 빨리 해야지.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즘 (...).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고민을 하자.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 되지. 우선 인수해오는 거를 해야지.  
대신에, 이자에 헉헉 대면 안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정영학 예.

김만배 우리 회사가 매매하고 (...) 캐시플로우를 보가면서 그걸 전략적으로 잘 해야 돼.

정영학 예. 꼭 그럼 형님은 단독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김만배 아니, 상관없어 나는. 그거 뭘 상관을 해?

정영학 그냥 경영권 간섭 안하고 투자자도 받아줄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이익 좀 나눠주고. 대신 들어와 있지 말고.

김만배 응. 그냥 문서로 정해진 대로 하면 돼. 애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문서로.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딱 처음에 약속대로 문서로 주면 되고.

정영학 네, 네. 주식은 안 주고, 대신 이익분배는 해주고.

김만배 이익분배는 해주고. 주식은 너, 너는 주식을 가져가고. 애들한테도 양완범이나 이성문이한테도. 개인이 가져가는 게 나아. 저기보다 주식보다는.

정영학 네,네,네. 요즘 하도 법인주주 이번에 강화됐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서 개인으로.

정영학 지금까지는 법인이 괜찮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 법도 바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바꾸는 게.. 그것도 개인 세율이 50%.. 45% 올랐습니다.

김만배 응, 응. 올랐어?

정영학 예. 개인이 지금 45%거든요.

김만배 응. 얼마였었지, 원래? 44%였나?

정영학 원래 38%부터 시작했죠. 이 정부 들어서. 38. 40. 42. 45. 형님, 45면은요, 주민세 합하면 49.5 여기에 3%, 3% 저희 하여튼 4대보험 부담하면 56%, 7% 돼 버립니다.

김만배 자, 그리고 창근이 형이 의장 됐는데, (...) 응?

정영학 예.

↳ 윤창근 심심시의회 의장

김만배 은수미 다 되고. 창근이 형이 시장 나갈 수도 있고. 응?  
왜냐면, 시장은 윤창근이 그랬어. 자기네 꺼라고 생각을 해. 응?

정영학 그럼 그쪽인가요? 그 형님.

김만배 애는 김태년이 최측근이야.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은수미도 김태년이고.  
그냥 너랑 이런 얘기해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정영학 아유, 저야 뭐, 제가 뭐..



김 만 배      응, 그래. 너는.

정 영 학      어디 전달을 하던가요? 한번이라도.

김 만 배      그래. 남육이나 재창이는 위험하니까 이런 얘기 안했어.

정 영 학      저는 궁지에 몰려도 그런 이야기 안합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아.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렇게 한번 구도를 짜보자고.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나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너도 해서 언제 한번 만나자고.

정 영 학      네, 네. 난이도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김 만 배      오리역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돈은 하나로마트가 많이 벌 수가 있고.

정 영 학      하나로마트는 저는 인제, 아~ 지방행정연구원, 거기가 허들이 넘기가 만만  
치 않겠다 생각이 있어갖고.  
스터디를 좀 하다보면 직원들도 아.. 손들었을 수 있어요.

김 만 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영학 손들었을 수 있어요.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니네 겁먹을 거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정영학 제가 그건 어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조금 공부하다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검토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예 시에서 무시하고 해버리고 다 그냥 지적을 받든지. 그런데 통과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김만배 그래서 저 회사에..  
(휴대폰통화)  
그래서 오리역(LH개발사업부지)으로 돈 좀 벌자니까.

정영학 네. 좋습니다.

김만배 내가 볼 때는 최소 3천억은 나와.

정영학 저도 오히려 이게 낫고. 여기 하나로마트 보다는 오리역이 훨씬 사업 풀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처음에 하나로마트는 시유지라서 이걸 일단 연구원 쪽..

김만배 아니 아니, 시에서 팔기로 한 거야. 하나로마트는. 응?

정영학 네.

김만배 SRT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미리 짜놓은 거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 하겠지.

정영학 네,네,네.

김 만 배 김태년이 그래가지고 김병욱이랑 국회의원..

정 영 학 하긴 해도 난이도가 좀..  
그 다음에, 너무 리스크 있는 것들은 많이 벌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  
고.

김 만 배 그래 그래. 오리역이나 하자고.

정 영 학 오리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직원들 생각도 다 오리역이 낫다 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거지. 겁을 안 먹고. 그게 쉬운 일이야.

정 영 학 예. 다들 오리역은 자신 있어 한 거 아닙니까?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그런데 이걸 좀..

김 만 배 그러면은 빨리 분양하자고. 분양하면 돈이 계약금이 있어야 돼.

정 영 학 네, 네. 본P를, 빨리 건축허가가 건축심의 떨어져서 그냥 아파트 분양 승  
인까지 받으면, 본P 끝내서 그냥 저희는 돈 다 회수해 버리면 될 것 같애  
요. 지금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 만 배 아니 뭐 한 300개 들어가 있지.

정 영 학 300개 들어가 있는가요?

김 만 배 또 들어가야지. 연장하면. 조건이 100개씩 넣는 거라는데.

정 영 학 빨리 해야죠 인제.



김 만 배      해야지.

정 영 학      지금 분양시장도..

김 만 배      여기가 빨리 분양해버려야 돼.

정 영 학      방법도 잘 찾은 것 같던데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해서 분양가 벗어났는  
가..

김 만 배      완범이..  아니야.

정 영 학      원래 그러면 옛날부터 안을 내놔야지, 씨~ (웃음)

김 만 배      성문이가 상의를 안했대.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김 만 배      회사에서 내가 그랬어. 성문이한테. ‘너 잘못이야, 이 새끼야. 계약을  
해지했으면 이 쌍놈의 새끼야 계약금을 몰취하든가. 응? 그리고 일을 왜  
나가서 하니? 안에서 해야지. 응? 조직에 대표라는 놈이. 응?’

정 영 학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고 가  
시고.

김 만 배      성문이도 다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계속 두고 보는 거지 뭐. 끝까지 할지. 못하면은.. 응?

정 영 학      제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사심이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대  
표가. 업무를 몰라서 몰랐죠. 우직한 건 있습니다만.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정영학 안 도와주니까 성질나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 아, 그래?

정영학 안에서 안 도와주니까.

김만배 으음~

정영학 예.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김만배 몰라.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완범이가 그걸 은근히 안 도와줬을 수도 있어.

정영학 예. 그냥..

김만배 현덕이가 그러는데, 야, 왜 그래? 저 새끼들. 두놈이, 솧놈들이 싸우는 의미가 있나. 그래? 싸우게 내비뒀.

정영학 형님이 그거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죠. 야, 빨리 시킨 대로 해라.  
조직인데요, 형님.

김만배 아니, 했지. 처음에 싸우게 돼서.

정영학 원래 싸워서 안 되는.. 대표하고. 예.

김만배 그런데 왜 그런거야? 완범이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보면.  
양완범이는 포장된 그거를 갔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갈라고 그러다가 안 나가. 그냥 발가락 한두개 나가서..

정영학 아주 보수적입니다.

김 만 배      응. 그런 거지. 그래서 성문이가 완범이를 다루는 게 되게 쉬운 스타일이야. 응? 그런데 인제 일을 잘 모르니까.

정 영 학      양 전무 스타일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고 할 스타일이긴 한데요.

김 만 배      아 그래? 그럼 성문이가 그렇게 해야지.

정 영 학      그거는 좀, 끌고 가면 또 잘 안 끌려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똥고집이 좀 있어서. 보니까 둘이 요렇게 하면, 조직이 좀 그래서..  
형님이 빨리 입장 정리를 잘 해주셔야..

김 만 배      아니 뭐..

정 영 학      회사 일이니까, 개인..

김 만 배      일대로 하는 거지.

정 영 학      예. 일이 우선이다. 개인적인..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대표이사는, 향후 사업에 대표이사는, 이성문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회장으로 하고, 양완범이 대표로 해서 할 거야.

정 영 학      그것도 형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김 만 배      그렇게 해야 돼.  
화장실 갔다 올게.

정 영 학      네, 네.

(잠시후)



김 만 배      들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정 영 학      물어보십시오, 형님.

김 만 배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의 분석은 양완범이가, 나는 몰랐는데, 그랜저 타다가 제너시스인가 그거 탈라고 회사에다 얘기했는데, 이.. 하여튼 나가서 싸웠어. 30만원만 (...)

정 영 학      형님 좀..

김 만 배      응?

정 영 학      (...) 보조 좀 해주죠.

김 만 배      안했어. 그런데,

장 양 학      잘못하면 30만원 때문에..

김 만 배      (...) 그런데 성문이는 애들이 해주라니까, 해줬는데 뭘 사냐고. (...)수가 없잖아. 니가 카드 얼마 쓰고. 응?

정 영 학      그렇죠.

김 만 배      성문이는 카드를 천만원이 넘게 쓰는데.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그러니까,

정 영 학      양 전무는,

김 만 배      양 전무는,

정영학      빠지는 거예요. 아유.  
              형님, 그 30만원 때문에 사람이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김만배      (웃음) 그 얘기 알아들은 다음에 ‘야, 30만원 얼른 해’ 그랬지.  
              난 몰랐지. 챙겨보니까 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영학      코미디네요. 코미디.

김만배      그래서 이성문이한테는 카드 5백만원 들로 나누고. 응?  
              아니 그걸 왜 30만원 그거를.. 난 모르겠어. 응?

정영학      자기 돈 낸다 하면, 좀 해주시죠 형님도.

김만배      아니, 난 몰랐지. 처음 알았던 거지.  
              내가 그랬지. ‘어? 양 전무 제너시스 타네’ 이랬더니, 양 전무가..

정영학      (웃음) 본인 돈 내고.

김만배      응. 그래서 둘이 감정이..

정영학      그건 그거고요. 그 정도 그것 때문에..

김만배      몰라.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있고, 다른 자존심 때문에도.  
              그런데 요새는 많이 서로 풀렸어.  
              그리고 인제, 현장에 유 상무가 잘못을 좀 했지.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양 전무하고 나한테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추가 공사를 줘.. 유 상무가 현  
              장에서.. 양 전무도 이제 싫은 거지. 이 대표한테 아, 이제 축출해.

정영학 예..

김만배 거기 새로 온 전라도 사람하고 양 전무하고 짹짹이 돼서 공사 들어간대. 병채가 보고를 하길래, 양 전무는 양 전무대로 의심을 하고,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의심을 하니깐 내가 그랬지. 야 이새끼야, 니네들 둘이 씨팔놈아, 한 놈은 현안이랑 이성문이 잡아서 한다 하고, 한놈은 너랑 유 상무랑 해서 딴 데 즐라고 한다고 (...) 응? 똑바로 얘기해라. 그리고 공사비 빨리 빨리 주라면 주고. 응?

정영학 (웃음) 예.

김만배 두밀사거리도 내가 진작에 하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공사비 아낀다고 뭐 업체를 몇 개 입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정영학 두밀사거리면 입구. 입구 사거리.

김만배 데모하는 데.

정영학 아, 요즘 붙어있더라고요. 옆에가.

김만배 내가 그랬거든. '야, 현안에 빨리 줘. 공사비. 빨리 주고. 빨리'  
그런데 안하더라고. 거기 일처리고 뭐, 따져봐야 된다는 등, 공사비가 많  
다는 등.. (...)  
대기업에 해도, 내가 그랬어. 거기는 SK (...) 4년이 가는 거니까, 대기업  
이 하게 되니까.. 그런데 유 상무도 (...)

정영학 거기 확장공사. 그러니까 사거리 병목현상. 거기가 좀..

김만배 정보통신 (...) 있거든. 단지 내에.  
시에서 좀, 한 다리 걸쳐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길래, 얼른 줘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고.



아 그래서, 말을 안 듣더라고. 이성문이냐. 응? 응?

그래서, 눈에다 위에서 물을 뿌려야지, 바로 뿌려야지 끝에 공무원 애네들도 가져가지. 응?

김영학 (웃음) 예..

김만배 (...) 안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사비를 개 같은 경우 지금 공사비 (...) 안돼. 응? 빨리 하고, 빨리 했으면.. 진작에 하라 하면 진작에 했어야지. 응? 설계도 이 새끼야, 설계가 안 나온 공사현장이 어디 있어?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와서도 다 챙겼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응? 지금은 된대 이제. 마무리는 아무리 잘해놓고도 안돼. 성문이란 저 완범이란 요새 많이 (...) 나도 바빠.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머리 아프시죠?

김만배 응. 양정 일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영학 머리 아프시죠?

김만배 (...) 다녀야지.

그거 짚끔짚끔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밀리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양정. 그래서 애들이 막 뛰잖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영학 아 예.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김만배 아 그렇지. 너도 이름 다 나왔어.

정영학 그런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아니, 여기 저기 소문을 내버렸더라고요.

김만배 그래.

정영학 단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만배 응?

정영학 아니, 안 돌아다녔는데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김만배 응. 그래가지고,

정영학 GS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GS.

김만배 남육이.. 남육이가.. 재창이도 언젠가는 남육이 손에 큰 화를 입을 거야.  
재창이는 나름대로 이 주둥이 조심해야 돼.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런데 재창이하고도 해서는 안돼. 그 새끼.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정상적인 일만 하는 거야, 우리는. 너도 정상적인..

정영학 예, 맞습니다.

김만배 불법은 안돼.

정영학 네, 네.

김 만 배 오리역을 하자고.

정 영 학 좋습니다. 솔직히 하나로마트 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고요. 그쪽은 답이 안 보이는데요.

김 만 배 오리역을 하고. 오리역을 하자고.

정 영 학 스타트를 내년 봄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 만 배 아니 인제 형은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은 받고 해야 될 거 아냐.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뭐 자금이야 어떤 뭐가 투명해서 해야 되니까. 그 전에 LH하고 뭘 얘기를 해야지.

정 영 학 네, 네. 내년 3월 돼야 좀 방향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김 만 배 응. 그때 가면 늦을 수도 있지만,

정 영 학 자금 때문에.

김 만 배 응. B1은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정 영 학 B1을 서두르면요 100억밖에 안 물립니다.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김 만 배 서둘러서.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정 B1 분양률 80%나 100% 되면 그 100억도 빼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생으로 풀어서 분양가 잘 받아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저희 돈 하나



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애? 이익이.

정 영 학 저기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B1?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원래 옛날부터 푸르지오하임도 도생이었잖아요. 도시형생활주택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한없이 튀어서.

김 만 배 나는 인제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 안했었는데.

정 영 학 에, 예.

김 만 배 내가 이성문이 15%, 양완범이 15% 줄거야. B1의 수익을. 그리고 심상무, 양전무 그 저기, 10%씩 주고. 이득을 준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인제, 나는 그래. 저게 한 뭐, 처음에 한 150억이나 100억 정도를 봤는데. 많이 나면은,

정 영 학 형님, 그렇게 되면 직원들 25% 주는 게, 100억씩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퍼센테이지로 주지 마시고 금액으로 주십시오.

김 만 배 금액으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뭐 금액으로 줘도 되고.

정영학 예. 그냥 처음에 이야기를 150억일 때 15% 기준이니까 22.5억 정도다.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그런데 형님 저게 지금요, 도생으로 분양가 잘 풀면, 최소 300~400개는 생각은 하는데요.

김만배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돼. 너하고 남욱이한테 공통비 안받을려고 그래.

정영학 형님, 그것 그거는 하여튼 뭐 그.. 아마 시점이 오히려, 솔직히 형님 운이예요. 어떤 운이냐면요, 저거 옛날에 갖고 온다 만다, 설계된다 안된다 싸워갖고 이렇게 끈 거잖아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그 사이에.. 오늘 제가 의정부 갔다 왔거든요.  
의정부가 분양가 9백만원 하다가, 지금 1,600만원 한답니다.  
그런데 양정이 분양가 1,300에 했다가요, 지금은 1,900 잡거든요.

김만배 응.

정영학 이번에 구리가 사실 300세대 밖에 안 된답니다. 처음에 은행들이 다 안할려다가 1,700 생각을 했다가, 지금 시세가 2,200이니까 하는 거고요.  
여기는 분양가 3,000이 아니라, 3,700~3,800 해도 다 팔리는 거예요.

김만배 아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욕이를 안 만날 거야. 안 만나고,

정영학 직원들.. 그냥 제 생각에요.

김만배 너랑 욕이..

정영학 직원들 조금만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적절히 주시고, 나머지는 형님 공통비 모자라거든요. 한참 모자라시니까, 하여튼 뭐 충당 먼저 하시고.

김만배 아니아니, 그 생각을 해. 뭐냐면,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 너하고 육이한테 받을 돈,

정영학 조금씩 깎아주시고.

김만배 아니, 안 받을려고 그래.

정영학 그다음에, 형님 이익.. 형님 그 가지급 갚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김만배 그거는 나중에..

정영학 그것도 충당하셔야 돼요.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런 거는 내가 나중에 오리역에서 할라고 그래.

정영학 인제 막 이거저거 충당하시면 그래도 한 300개 정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인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이게 만약에 200개, 250개 넘으면 니네들한테 120억 안 받아도.. 안 받고 여기서 정리하면 돼.

정영학 그런데 인제,

김만배 빨리 합리적으로 가자.



정영학 네. 일단 뭐 그래서 직원들 300.. 400억 남는데 25% 주면 100억이거든요. 그거 진짜, 그거는 조금 금액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오너가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일정부분은 줘야 됩니다.

김만배 아니, 나는 많이 줘야지.

정영학 아니 그런데 인제,

김만배 내가 가지면 안돼.

정영학 그렇다 해서 100억씩 주실 것 같지는.. 그거는 좀 오버입니다. 적정히 한.. 처음에 이익을 150개 생각을 했다. 니네가 보고한 대로. 거기에 25% 했기 때문에, 20억..

김만배 20억, 40억 되지. 이성문이 15, 양완범 15, 진양의 10.

정영학 그러면 그때 예상액이 150억이었고, 그거 기준으로 15%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섭섭해 하면 그냥 200억 기준으로 15%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기대하는 거는 직원들도 다 합니다. 형님 돈 투자하신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님 공통비 너무 많아서 충당하셔야 되고. 혹시 좀 남으면 저하고 욕이 쥘 좀 깎아주시고.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형은 그래. 만약에 저게 한 250억개 넘으면 니네 안 받아.

정영학 팬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나옵니다.

김 만 배 받아서 뭐하니. 응?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 가지고 불만이고 그런데 안 받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안 받아도 될 것 같이 세상이 돼 가고 있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형은, 옥이랑은 일 안해.

정 영 학 저도..

김 만 배 옥이가 너 되게 욱해. 그런데 개는 주둥이만 이래.  
개는 자기를 은행 다니면서 뭐 했다는 등..  
내가 그랬어. '야, 개가 이 새끼야 은행 다니면서 너를 뭐하러 새끼야 욱  
을 해, 새끼야'

정 영 학 뭐할라고 욱을 합니까, 제가. 같이 했던 사람인데. 해봐야..  
같이 일한 사람 욱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김 만 배 그럼. '개가 욱해서 뭐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병식 부장이 대출해  
줄렀다가..' '그건 이 부장 일이지 이 새끼야'

정 영 학 참. 이 부장한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김 만 배 '너는 어디서 했는데?' 그랬더니, 농협에서 했다.  
'야, 농협에서 했으면 씹으면 농협이 더 심하게 씹지. 왜 그런 생각을 하  
냐'

재창이 앞에서 자기 욱을 너무 했다는 거야.

'야, 그런 소리 하지마. 영학이는 니 욱 안하더라. 성문이도 니 욱 안하

고. 완범이도 그렇고. 니가 욱하잖아' (웃음)

정영학 (웃음)

김만배 '넌 양아치 끼가 있어'

정영학 형님 뭐라 해버리셔야죠. 왜 남 이야기 하나..

김만배 아니, 내가 소인배라고 했어.  
가자 인제. 성남으로 넘어가면 돼.

정영학 네, 형님. 네, 네. 제가 치우겠습니다.

김만배 이거는 우리 정 회계사가 (...)한거다..

정영학 하하, 아닙니다, 형님.

김만배 오늘 되게 많이 오는데.

정영학 그렇습니다.

김만배 와.. 이 정도면 대박인데.

정영학 형님 (...)하십시오.

김만배 아니, 난 쓸 데도 없다.

정영학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웃음)

김만배 아이~ 개네들은 현찰이 필요해.

정영학 아,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응. 하고 있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 개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응?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그런데 그게 더 안 써.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  
더안써

김 만 배      문제들이. 왜냐면, 일 터지는 것 봐.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어차피 광고 낼려면 그 정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 간다~

정 영 학      네, 형님. 휴가 잘 다녀올게요.

김 만 배      응. 땡큐. 잘 갔다 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나 갈게. 고마워~

정 영 학      네, 형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자동차 시동거는 소리)

김 만 배 오리역 (...) 야, 오리역..

정 영 학 형님이 다 하시는 건데요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같이 해.

정 영 학 형님, 진짜 저도 오리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왜냐면 내가 현찰이 없어서 오리역 할라다가..  
하나로마트는 돈 없어도 되는데.

정 영 학 이게 낫습니다.

김 만 배 그런데 그냥 저거를 같이 해.

정 영 학 예.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김 만 배 같게.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살피가십시오. 예. (끝)